



제2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2nd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배려와 정의

Compassion and Justice

일시_ 2012. 10. 4 (목) 09:30 – 17:00

장소_ 가톨릭대학교 International Hub 컨퍼런스룸 (IH366)

주최_ 가톨릭대학교

Date_ 09:30–17:00, Oct. 4, 2012

Venue_ Conference Room (IH366) International Hub

Host_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목 차

- 04 **초대의 말씀** | 박영식 신부 (가톨릭대학교 총장)
- 06 **축 사** | 염수정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Osvaldo Padilla (대주교, 주한 교황대사)
Sung Kim (주한 미국 대사)
- 10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의 배경**
- 12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 16 **프로그램**
- 19 **Session 1**
 - 사회자 | 이창봉 (가톨릭대 교수)
 - 기조연설 | 이덕선 (Allied Technology Group 회장),
“Bernard Wonkil Lee 소개”
 - 기조연설 | 이덕효 (워싱턴 대교구 신부),
“연대성은 가톨릭 인본주의의 핵심”
 - 기조연설 | Klemens Stock (교황청 성서위원회 사무총장),
“동정심과 정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완적 존중심”
- 77 **Session 2 --- 외국인학생 연설대회 / 학생토론 대회**
- 79 **Session 3 --- 인간학 연구소 심포지엄**
 - 개회사 | 조정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장)
 - 사회자 | 이창봉 (가톨릭대 교수)
 - 발표자 | V.G. Girish (가톨릭대 교수),
“윤리와 사회적 책임 –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요소”
 - 발표자 | 안성조 (제주대 교수),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 발표자 | 유성호 (한양대 교수),
“현대시에 나타난 연민과 배려”
 - 토론자 | Lucia Lin (대만 보인대 교수), 이영종 (가톨릭대 교수), 김신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135 **Session 4 ---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 개회사 | 박건영 (가톨릭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 사회자 | 박일영 (가톨릭대 교수)
 - 발표자 | 이영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의와 배려가 만나는 곳”
 - 토론자 | 이창우 (가톨릭대 교수), 남기호 (연세대)
- 159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 Contents

- 04 **Message from the President** | Rev. Yeongsik Pahk (President, CUK)
- 06 **Congratulatory Remarks** | Most Rev. Andrew S. Yeom (Archbishop, Archdiocese of Seoul)
Most Rev. Osvaldo Padilla
(Archbishop, Apostolic Nuncio in Korea and Mongolia)
Sung Kim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to the Republic of Korea)
- 10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 12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 16 **Program**
- 19 **Session 1**
- M.C. | Changbong Lee (Professor, CUK)
- Keynoters | Dr. Matthew Duksun Lee (Chairman, Allied Technology Group),
"Introducing Bernard Wonkil Lee"
- Keynoters | Rev. Paul Dukhyo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Solidarity as the Axis of Catholic Humanism"
- Keynoters | Rev. Klemens Stock S. J. (Secretary, Pontifical Biblical Commission, Vatican),
"Compassion and Justice: Complementary Attitudes of Respect for the Dignity
of Every Human Person"
- 77 **Session 2 --- International Student Speech Contest / Student Debate Contest**
- 79 **Session 3 ---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 Opening Address | Rev. Jeong-Hwan Cho (Dean, ELP College, CUK)
- Moderator | Changbong Lee (Professor, CUK)
- Presenters | V.G. Girish (Professor, CUK),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 Key Components for Successful Business Ventures"
- Presenters | Seong Jo Ah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
"Psychopathic Offenders Magnetized: Insights from Cognitive Analysis"
- Presenters | Sung Ho Yoo (Professor, Hanyang Univ.),
"Pathos and Compassion in Modern Poetry"
- Discussants | Lucia Lin (Professor, Fu Jen Catholic Univ.), Young-Jong Yi (Professor, CUK)
Shin Jung Kim (Professor, Korea National Open Univ.)
- 135 **Session 4 --- Seminar hosted by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Opening Address | Kun Young Park (Director,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UK)
- Moderator | Ilyoung Park (Professor, CUK)
- Presenters | Gloria Young A. Lee (Attorney at Law, Barun),
"The Crossroad: Where Justice and Compassion Come Across"
- Discussants | Chang Uh Lee (Professor, CUK), Kiho Nahm (Instructor, Yonsei Univ.)
- 159 **Themes of the Forum**(Proposal)

| 초대 말씀



가톨릭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제2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포럼은 하느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간직하며 평생 가톨릭 정신을 실천하셨던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영성과 유훈을 기리고자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올해 포럼은 “가톨릭 인본주의와 사회: 배려와 정의”라는 주제로 국내외 학자 및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그간의 연구와 경험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금년 포럼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심층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논의와 토론을 위하여 4개의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제1세션으로 “배려와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톨릭 인본주의”와 “사회공동체와 배려”라는 주제로 국외 인사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제2세션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배려와 정의”라는 주제 아래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의 연설대회와 가톨릭 대학생들의 토론대회가 열립니다. 제3과 제4세션에서는 국내 학자들과 저명인사들이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활발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3세션이 배려와 정의라는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을 위한 발표시간이라면 제4세션은 이 주제를 사법계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법조인의 실제 경험을 듣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본 포럼은 자유롭고 풍성한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핵심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장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톨릭 인본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홀히 생각했던 정신적 및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가톨릭대학교가 추구하는 영성, 인성 및 지성을 고루 갖춘 대학인을 양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뜻깊은 포럼에 많이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 신부

박영식

Message from the President

Welcome to the second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The first forum was hel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2011. The University holds the forum annually in order to pay tribute to the spirituality of Mr. Bernard Wonkil Lee, who practiced the spirit of Catholicism throughout his life with a strong belief in God and a proactive way of thinking, trustfulness, and respect for people. The theme of this year's forum is "Catholic Humanism and Society: Compassion and Justice." We have invited outstanding scholars and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to create a forum for sharing our thoughts and experiences and discussing current issues related to this theme.

We have organized a total of four sessions for in-depth explorations of the theme and extensive discussions of its related phenomena. First of all, in the first session, distinguished guests from abroad speak about the topics of "Compassion and Justice: Complementary Attitudes of Respect for the Dignity of Every Human Person" and "Solidarity as the Axis of Catholic Humanism." In the second session, under the theme "Compassion and Justice in Today's Korean Society," two very exciting contests are held, a speech contest for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t Korean universities and a debate contest for CUK undergraduate students. The third and fourth sessions are devoted for the mai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ouching on this year's forum theme. The third session provides a forum for presentations by scholars who have done research on this theme, whereas the fourth session provides a forum for presentation and discussions by a lawyer who has strived to implement the spirit of "compassion and justice" in the field of law.

The forum aspires to create a public arena where we all get together to think about essential values in Korean society and it ultimately aims to realize the spirit of Catholicism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we hope that the forum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spiritual values that we might have lost in the turmoil of fast industrialization and that it contributes to building a more peaceful and righteous society. The forum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cultivating university students equipped with spiritual richness, strong character, and intelligence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We hope that many of you will be able to join us in this meaningful event. Your participation will be greatly appreciated.

October, 2012

Fr. Johan Yeongsik Pakh, S.S.D.

Presiden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축 사

찬미 예수님!

“버나드 원길 리(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이 제2회를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오늘 포럼에서 강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에서 오신 교황청 성서위원회 사무총장 클레멘스 슈톡(Klemens Stock) 신부님과 미국 워싱턴교구 성 유다 쉬라인 주임이신 이덕효 신부님, AT 그룹 이덕선 회장님, 이영애 전 의원님, 그 외 다른 발표자들과 토론자들과 서울대교구장으로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시어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실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님과 성 김 주한 미국대사님,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가톨릭 인본주의와 사회: 배려와 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듯이 작년 제1회의 주제는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 만남에서 공동체까지”였습니다. 즉, 가족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올해는 사회로 확장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장되어 자연공동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의 확장은 이 포럼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회적 본성을 지닌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보고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를 통찰할 때 비로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와의 관계입니다. 두 관계가 모두 중요하지만 가톨릭 인본주의는 특히 타자와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이유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이 진정 누구인지, 왜 존엄한지, 어떻게 아름다우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타자라는 용어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타인과 자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범주의 타자는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선성, 아름다움, 거룩함 등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축 사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인간은 우선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존엄성이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초월적 가치를 지니며 영원한 생명, 선과 아름다움, 거룩함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톨릭 인본주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올해 주제인 '배려와 정의'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관계적 차원과 관련된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도덕적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흔히 정의윤리는 남성 중심적이고,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며, 법규칙을 중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반면 배려윤리는 여성 중심적이고, 감성과 관계성을 중시하며, 융통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안에서 만나는 윤리적 딜레마들은 이 두 가지 관점 중의 하나로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상반되는 관점이 아니라 윤리적 삶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배려와 정의 중 어떤 윤리가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이 두 윤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더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보완되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숙고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가톨릭 인본주의에 대하여 연구하는 이 포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배려의 가치,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사랑, 희생, 용서 등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2회 버나드 원길 리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포럼에 참가하신 모든 분께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

염수정

Congratulatory Address

I wish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Rev. Father Johan Yeongsik Pahk, President of the Catholic University, for inviting me to the opening of the 2nd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I congratulate the organizers of this significant event.

This Forum aspires to create a public awareness of ideas and issues concerning Catholic Humanism as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true spirit of Catholic Humanism in Korean society today.

A Catholic University by its existence is at the service of humanity as seen from the eyes of our Catholic Faith. "Faith in Jesus Christ who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n 14,6), calls us to exert a greater effort in building a catholic culture of true catholic humanism which, inspired by the Gospel, reclaims the values and contents of the Catholic convictions. Moreover, the act of faith - by its intrinsic dynamism cries out to invest and transform the whole human person in all his dimensions, not only personal but also familial and social. For this reason, the Catholic academic needs to have a vision of faith in order to fulfill the mission to protect and to transmit to others the distinctive contributions aimed at the elevation of the human person and many aspects of the noble and valuable fruits of the spirit in all fields of human knowledge and science.

I am happy to recognize that this Forum, organized by this Catholic University, is a courageous effort to establish a culture that respects life and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in our modern society today where materialism, relativism and human egoism unfortunately seem to reign. I am sure this Forum will aid in shedding light on the direction to which Korean society should go.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theme of this year's Forum: "Catholic Humanism: Compassion and Justice." - justice, since only in this way is the dignity of others respected; and compassion and love, since respect for others is ultimately perfected when each one is loved for him or herself, as an image of God. "Faith, Hope and Charity go together" (Encyclical Deus Caritas est). "Charity is the fruit of Justice" (Compendium on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 Congratulatory Address

Pope Benedict XVI in his Message for Lent 2012, reminds us that "Today, God is calling our attention to care for one another. Today, God is asking us to be the 'keepers' (Genesis 4:9) of our brothers and sisters.."
"If we keep this perspective of being able to consider others as our own brothers and sisters, solidarity and justice will sprout naturally in us. Love will cure us from selfishness." With justice and compassion, we all unite our minds and hearts in the effort towards the formation of a just and compassionate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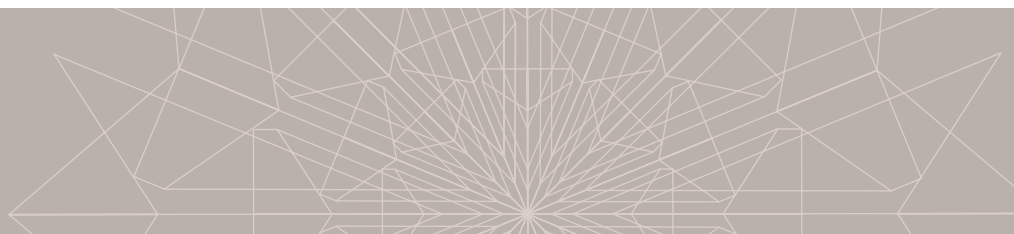
I wish you all the best success and fruitful discussions in this Forum.

While invoking upon you the intercess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Seat of Wisdom, I extend to all of you the Blessings of the Holy Father, Pope Benedict XVI. Thank you.

4th Oct. 2012

Most Rev. Osvaldo Padilla

(Archbishop, Apostolic Nuncio in Korea and Mongolia)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의 배경

포럼의 배경

2009년 9월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교포 기업가 이덕선·이덕형 형제는 본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미화 150만 불을 기부하였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이들 형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는 하느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따라 가톨릭 성가정을 이루어 간 분으로 회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마음깊이 간직한 채 삶을 매우 낙천적으로 이끌어간 존경할 인품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은 우리 가톨릭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사랑, 봉사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것은 진리와 정직, 사랑과 남에 대한 깊은 배려로 인생을 매우 뜻 깊게 살았던 고인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대학교는 이덕선·이덕형 형제의 기부금을 받아 여기서 발생하는 과실을 재원으로 Bernard Wonkil Lee Fund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 펀드에 기초하여 운영할 포럼을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이란 이름을 부여 하고, 그의 정신에 따라 가톨릭 인본주의 사상을 고취하고자 한다.

동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톨릭 정신에 따라서 영성·인성·지성을 고루 갖춘 대학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톨릭 인본주의의 실현에 기여함과 아울러 가톨릭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그에 따라 이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 및 학술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행사로 운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개최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의 주제 방향으로는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와 책임" 등으로 설정하여 이런 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가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을 깊이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가톨릭 인본주의 및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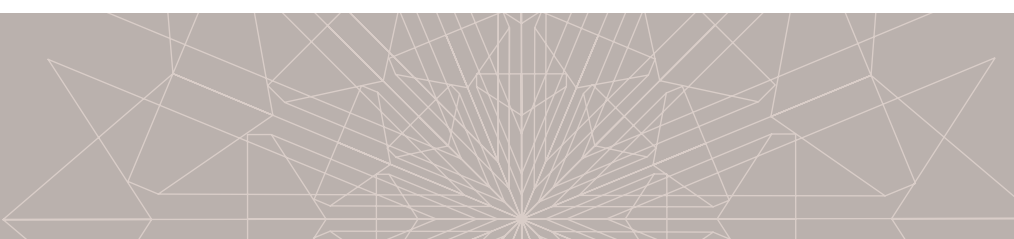
The background of the forum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Washington D.C.-based Korean-Americans, donated \$1.5 million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its development in September 2009. The Lee brothers, as successful businessmen, do not hesitate to name Bernard Wonkil Lee, their father, as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their lives. They recall their father was a man who strived to establish a holy Catholic family in the faith of God. Bernard Wonkil Lee was a respectable man who led an optimistic life with a proactive way of thinking, faith in God, trustfulness, and respect for people.

Catholic humanism upheld by Bernard Wonkil Lee is consistent with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Catholic University: honesty, love, and service. In other words, the spirits of our university are what he believed in and the way he lived. In this regar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cided to form Bernard Wonkil Lee Fund based on the donation made by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and its consequential profits. And the forum to be hosted by the support of this Fund shall be named the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hereafter referred as the BWL Forum). The forum shall become a venue for instilling the philosophy of Catholic humanism.

The purpose of the forum is to nurture college students equipped with spiritual power, personality, and intellect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It is our hope that this will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bond members of a community. In turn this will help to uphold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university and eventually realize Catholic humanism in society. This forum shall be an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inviting renowned speakers from home and abroad.

The BWL Forum will be held every year under the general theme of "Mankind and Community." For the first 10 years, the directions of the discussions sha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As the forum proceeds, the discussions will be intensified and the forums will serve as a venue to look into the philosophy of Bernard Wonkil Lee an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atholic humanism, mankind and community.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은 자기희생(self-sacrifice)과 자신을 남에게 베푸는(self-giving) 삶을 사신 분이다. 그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사셨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특히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개척자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확고부동하고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 Maryland주 Gaithersburg에서 2001년 11월 4일 84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큰 아들 이덕선 박사는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소망”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정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 라고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저의 아버님께서서는 불치의 낙천가 이셨다. 그의 삶은 낙천주의,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희망의 전형적인 본보기였다. 항상 작은 크든 간에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고 이 세상의 삶을 최대한으로 즐기며 사신 분이셨다. 그는 현재의 순간을 즐겼다. 그는 가진 것에 대해 감사 드리고 그가 소망을 표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농부, 사냥꾼, 낚시꾼, 아마추어 엔터 테이너, 그리고 준 의사였다. 그는 항상 꿈을 꾸는 개척자였으며, 무엇인가 일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착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는 그의 일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그는 우선 튼튼한 가톨릭 성가정을 만들었다. 그는 세 개의 가톨릭 교회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는 고향 동네의 문맹을 퇴치시켰다. 그는 많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해 주었다. 그는 깃발을 천수답으로 변경하여 수백 가정의 주민들에게 농토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항상 물잔의 반이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이 차있는 것이었다. 그는 항상 남과 나누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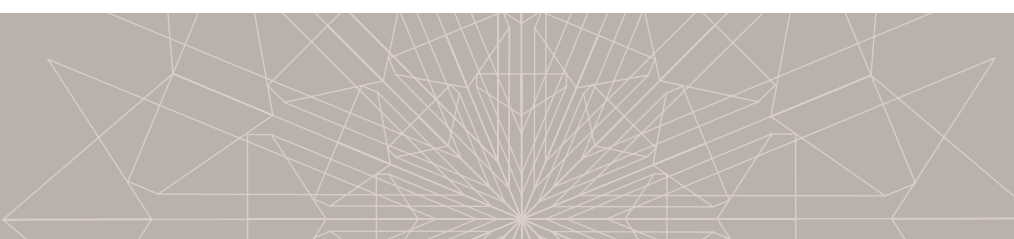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Bernard Wonkil Lee lived a life of self-sacrifice and self-giving. He lived the life of a happy man, he was a positive thinker, and he was a pioneer in spirit and deeds.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deep, unshakable Catholic faith. He died on November 4, 2001 when he was 84 years old in Gaithersburg, Maryland.

His eldest son, Dr. Matthew Duksun Lee, says whenever he thinks about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what comes to his mind first is his father. He remembers:

“My father was an incurable optimist. His life was the epitome of optimism,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He found happiness in all things, small and large. My father was indeed a happy man who enjoyed his life on this earth to the fullest. He enjoyed the present. He appreciated what he had and never complained about what he didn't have. He was a person of impeccable integrity and honesty. He was never afraid to speak the truth and express his true feelings. He was a farmer, a hunter, a very good fisherman, an amateur entertainer and a paramedic among other things. He was a dreamer, a pioneer, a builder of all things and a leader. But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faith.

My father had many accomplishments in his lifetime. He built a strong Catholic family. He built three Catholic communities. He eliminated illiteracy in our hometown. He fed the hungry. He created farmland for hundreds of people by converting tidal mud flats into rice paddies. How did he do all those things? It was possible because my father was an optimist and positive thinker, and he had faith in God. For him the cup was always half full, not half empty. His whole life was about faith. It was about sharing and giving. It was for other people not just for himself.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의 생애

이러한 것들이 제가보고 배운 아버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행복하고, 인자하고,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양육된 것을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룩한 모든 것들은 제가 받은 훌륭한 가정 교육과 특히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제 삶의 기초가 된 매우 귀중한 가치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의 아들이 된 특권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계속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남에게 잘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은 1917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황해도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8년 후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연안 반도에 있는 '갈인재'라고 불리는 조그만 어촌 마을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은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을 탈출하여 강화군 교동도에서 1954년까지 3년을 살았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과 그의 가족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의 땅이 되어버린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이사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맏아들인 마태오 이덕선, 베드로 이덕성 셋째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나머지 가족과 함께 198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미국에서 참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는 은퇴 후에는 아들과 딸들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을 돌보아 주기도 하였으며,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의 소명을 계속하였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을 추모하는 뜻으로 그의 가족은 Maryland주 Potomac의 매우 아름다운 곳에 수녀원을 지어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라는 수녀회에 기증하였다.

그는 93세인 부인 황 수산나,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19명의 손녀, 손자, 증손녀와 증손자들을 남겼다. 그의 다섯째 아들인 바오로 이덕효 신부는 현재 워싱턴 대교구의 신부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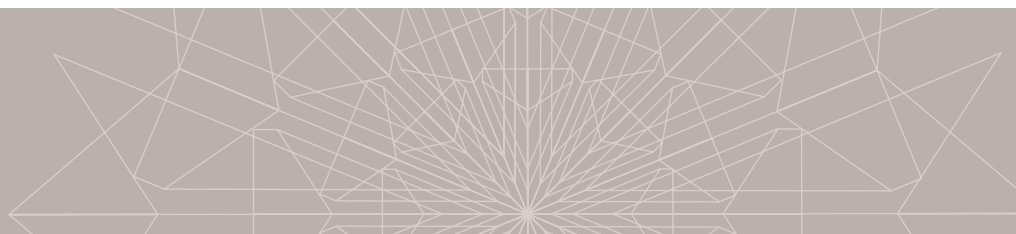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These are the things that I have witnessed and learned from my father. I am very fortunate that I was born and raised by happy, generous and loving parents. I attribute whatever I have accomplished to my upbringing, especially to my father. He has instilled in me those priceless valu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my being. I am thankful for the privilege of being my father's son. I learned everything from him. He taught me how to become a happy person and remain a happy person. He taught me how to be a positive thinker and a positive person. He told us to be always good to others.”

Bernard Wonkil Lee was born in the northern part of Hwanghae-do in 1917 but moved to a small seaside village called Karinjae in the Yeonan peninsula when he was a teenager with his mother and siblings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who had built schools and taught in various parts of Hwanghae-do. Mr. Lee and his family had to flee from his hometown during the Korean War and lived in Gyodong-do for three years until 1954.

Mr. Lee and his family moved to Seoul as he could not return to his hometown because it became a part of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He lived there until they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88 to join his sons, Matthew and Peter. He spent some of his happiest years there. Although he was retired, he helped his sons' and daughter's businesses, caring for his grand children but more importantly continuing his vocation of helping people in any way he could. In his memory, his family has built a convent for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 on a beautiful location in Potomac, Maryland.

He is survived by his wife, Susanna Hwang, 93, his five sons, one daughter, their spouses, and his nineteen grand and great grandchildren. His son, Fr. Paul Lee, is a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프로그램

2012년 10월 4일 (목)

시간	프로그램	내용
09:30-10:00	등록	인터내셔널 허브 컨퍼런스룸 (IH366)
제1세션		
10:00-11:45	사회	이창봉 (가톨릭대 교수)
	환영사	박영식 (가톨릭대 총장)
	축사	염수정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Osvaldo Padilla (대주교, 주한 교황대사) Sung Kim (주한 미국 대사)
	기조연설 Bernard Wonkil Lee 소개	이덕선 (Allied Technology Group 회장)
	연대성은 가톨릭 인본주의의 핵심	이덕호 (워싱턴 대교구 신부)
	동정심과 정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완적 존중심	Klemens Stock (교황청 성서위원회 사무총장)
11:45-13:45	점심	
제2세션 외국인학생 연설대회 / 학생토론 대회		
12:30-14:10	사회	구본만 (가톨릭대 교수)
	연설 주제 한국 사회에는 배려와 정의가 있는가?	외국인학생 연설대회
	토론 주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배려와 정의	학생토론 대회
	토론 논제 1. 대학축제문화는 학술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2. 의료 민영화 대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3. 경제 민주화는 양극화(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4.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3세션 인간학 연구소 심포지엄		
13:45-15:40	사회	이창봉 (가톨릭대 교수)
	개회사	조정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장)
	발표 윤리와 사회적 책임 -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요소	V.G. Girish (가톨릭대 교수)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안성조 (제주대 교수)
	현대시에 나타난 연민과 배려	유성호 (한양대 교수)
	토론	Lucia Lin (대만 보인대 교수) 이영중 (가톨릭대 교수) 김신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5:40-15:50	휴식	
제4세션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15:50-17:00	사회	박일영 (가톨릭대 교수)
	개회사	박건영 (가톨릭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발표 정의와 배려가 만나는 곳	이영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토론	이창우 (가톨릭대 교수), 남기호 (연세대)

Program

October 4 (Thursday), 2012

Time	Program	Detail
09:30-10:00	Registration	International Hub Conference Room (IH366)
1st Session		
10:00-11:45	M.C.	Changbong Lee (Professor, CUK)
	Welcome Address	Rev. Yeongsik Pahk (President, CUK)
	Congratulatory Remarks	Most Rev. Andrew S. Yeom (Archbishop, Archdiocese of Seoul) Most Rev. Osvaldo Padilla (Archbishop, Apostolic Nuncio in Korea and Mongolia) Sung Kim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to the Republic of Korea)
	Keynoters Introducing Bernard Wonkil Lee	Dr. Matthew Duxsun Lee (Chairman, Allied Technology Group)
	Solidarity as the Axis of Catholic Humanism	Rev. Paul Dukhyo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Compassion and Justice: Complementary Attitudes of Respect for the Dignity of Every Human Person	Rev. Klemens Stock S.J. (Secretary, Pontifical Biblical Commission, Vatican)
11:45-13:45	Luncheon	
2nd Session International Student Speech Contest / Student Debate Contest		
12:30-14:10	M.C.	Rev. Bonman Koo (Professor, CUK)
	Theme In Search of Compassion and Justice in Korean Society	International Student Speech Contest
	Theme The Nature of Compassion and Justice in Korean Society	Student Debate Contest
	Thesis 1. Rethinking College Festivals: Tipping the Balance toward Research and Scholarship 2. The Argument for Universal Healthcare over Privatization of Healthcare 3. Economic Democracy as a Cure for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4. The Case against Capital Punishment	
3rd Session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13:45-15:40	Moderator	Changbong Lee (Professor, CUK)
	Opening Address	Rev. Jeong-Hwan Cho (Dean, ELP College, CUK)
	Presenters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 Key Components for Successful Business Ventures	V.G. Girish (Professor, CUK)
	Psychopathic Offenders Magnetized: Insights from Cognitive Analysis	Seong Jo Ah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
	Pathos and Compassion in Modern Poetry	Sung Ho Yoo (Professor, Hanyang Univ.)
	Discussants	Lucia Lin (Professor, Fu Jen Catholic Univ.) Young-Jong Yi (Professor, CUK) Shin Jung Kim (Professor, Korea National Open Univ.)
15:40-15:50	Coffee Break	
4th Session Seminar hosted by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5:50-17:00	Moderator	Ilyoung Park (Professor, CUK)
	Opening Address	Kun Young Park (Director,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UK)
	Presenter The Crossroad: Where Justice and Compassion Come Across	Gloria Young A. Lee (Attorney at Law, Barun)
	Discussants	Chang Uh Lee (Professor, CUK) Kiho Nahm (Instructor, Yonsei Univ.)

Session 1

Bernard Wonkil Lee 소개 | 이덕선 회장

연대성은 가톨릭 인본주의의 핵심 | 이덕호 신부

동정심과 정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완적 존중심

| **Klemens Stock** 교황청 성서위원회 사무총장

Introducing Bernard Wonkil Lee | **Dr. Matthew Duksun Lee**

Solidarity as the Axis of Catholic Humanism | **Rev. Paul Dukhyo Lee**

Compassion and Justice: Complementary Attitudes of

Respect for the Dignity of Every Human Person | **Rev. Klemens Stock S. J.**

사 회 자	이 창 봉
-------	-------



이창봉 교수 (가톨릭대)
Prof. Changbong Lee (CUK)

〈프로필〉

이창봉은 현재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미문화 전공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그는 1996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Conditionals as a Discourse-bound Entity: Pragmatics of Korean Conditionals”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언어학 세부 전공 분야는 화용론과 담화분석 분야이다. 이제까지 주로 한국어와 영어의 조건절에 대한 화용론 분야의 논문들을 발표하여 왔다. 최근에는 은유의 화용적 현상과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 및 영어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담화분석적 시각에서 본 언어교육 분야의 연구 주제 등에 대해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Profile〉

Chang-bong Lee is Professor of English and Linguistics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i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e got his Ph.D in linguistics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n 1996. His dissertation was titled "Conditionals as a Discourse-bound Entity: Pragmatics of Korean Conditionals." His main area of research in linguistics is pragmatics and discourse analysis. He has published articles on the topics related to pragmatic aspects of conditionals in English and Korean. Recently, his research interests have been extended to the topics in applied areas, such as pragmatic studies of metaphor,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and discourse-analytic perspectives in language teaching.



이덕선 회장 (Allied Technology Group)
Chairman, Matthew Duksun Lee

〈프로필〉

- Allied Technology Group Inc. 창설자 및 회장(1989-2010), 현 명예회장
- 학력 : 동성고등학교 졸업(1955-1958),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학사(1999) 및 명예경영학박사(2004) 가톨릭대학교 명예문학박사(2009)
- 주요 경력 : Westat Inc. 부사장(1969-1989), Korean Catholic Federal Credit Union (미국에서 최초 한인교포를 위한 미연방신용조합) 창설자 및 초대 이사장(1977)
- 수상 : 2006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교회와 교황을 위한 메달’, 2008 Maryland주 최고 기업인 명예상 ‘Business Legend Award’, 2009 기업성과 및 사회기여 공로상 ‘자유의 상’, 2010 Soverin Military of Order of Jerusalem, of Rhodes and of Malta 의 Knight of Magistral Grace 작위수여

〈Profile〉

Dr. Lee is the founder and Chairman Emeritus of Allied Technology Group, Inc. (ATG) (www.AlliedTech.com) with its headquarters in Rockville, Maryland and many other offices located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overseas. He had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Allied Technology since its founding in 1988. It is a provider of a wide range of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communications and network integration services, ranging from design and development through full life-cycle support to security and operational management. From 1969 until 1989, he had been employed at Westat, Inc. (www.Westat.com) located in Rockville, Maryland, one of the largest survey research organizations in the

world. He spent 20 years at Westat, starting at a low level and rapidly making his way up to the corporate management. He served his last 13 years as a senior vice president and CIO at Westat.

Dr. Le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civic, religiou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and served on many gubernatorial, public, civic and religious commissions, councils and boards over the past 40 years

In 1977, Dr. Lee founded and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n Catholic Federal Credit Union (KCFCU) in Washington, D. C., which is the first Federally chartered credit union for a Kore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KCFCU has been serving thousand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For over 30 years, Dr. Lee has been very active in philanthropy, serving in leadership role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numerous charitable, social, civic, cultural, educational and religious organizations.

Dr. Lee has received many awards, citations and recognitions over the years including the following:

- Honorary Doctorate of Literatu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October 2009
- Honorary Doctora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2004. The first and only recipient of this honor among more than 100,000 graduates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 Pro Ecclesia et Pro Pontifice, Pope Benedict XVI, 2006
- Knight of Magistral Grace, Sovereign Military Order of Jerusalem, of Rhodes, and of Malta (<http://www.orderofmalta-federal.org/>)
- ICAS Liberty Award <**ICAS Liberty Award Recipients**> for outstanding achievements with distinction and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society and humanity, August 2009
- Most distinguished alumnus from HUFS in April, 2009 on the occasion of the 55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 Business Legend Award given to three recipients by State of Maryland, November 2008

BERNARD WONKIL LEE
1917 - 2001
BWL International Forum 2012
By
Matthew D. Lee

Mr. Bernard Wonkil Lee is my father. He was a man who believed strongly in service to mankind and to his community. He also believed whole-heartedly in his Catholic faith and that faith guided him throughout his life regardless of his circumstances or location.

My father was born in the northern part Hwanghae-do in 1917 and lived there until his family moved to Karinjae when he was a teenager after his father's death. His father had been a teacher and had built schools. Following in his father's example of service to the community he and his brothers built a small chapel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art of the village and soon the whole village converted to Catholicism. They also donated a land in front of the church to build a soccer field and recreation area for the villagers.

Our village had been taken over by the North Korean communists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until the U.N. Forces landed in Incheon advanced to the North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During that time many people of the surrounding villages collaborated with the communists and as a result most of them were killed. However, our village suffered no casualties for collaborating with the communists during their invasion because the people had been informed about the ills of communism before the war broke out through the meetings and discussions. The villagers were taught how to read and read the Catholic monthly magazine. Therefore no one in the village collaborated with the communists. When the Communists returned, our family fled to a small island off the West coast and stayed three for years as refugees. During that time our host family became converts as did most of the village residents. The Catholic faith remains alive and

strong there with a thriving Catholic community.

In 1958 he moved our family to a small town called Cheonho-dong in the outskirts of Seoul, whose people were refugees from the north. Most of them were unskilled, unemployed and very poor, living in wooden shacks in shantytowns. My father obtained support provided by Catholic Relief Services and started and operated a food station in that town providing free meals to over 1,000 people a day.

Eventually he was able to buy some land, build a small church and get a Catholic parish established. In less than two years, the church had outgrown that building and he had to build a new one. The parish is celebrating its 54th anniversary this year. From that one parish dozens of additional parishe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original area of this parish and still has over 10,000 parishioners.

Mr. Lee was truly committed to helping those around him. One of his greatest accomplishments was to conceive, design and develop a reclamation project to convert thousands of acres of tidal mud flats into rice paddies during the early 60s. This multi-year project provided employment to a lot of people. He poured his heart, mind, and many years of hard work and efforts into the project without thought of any personal rewards or benefits. The converted land provides enough rice for hundreds of families in the area.

My father and the rest of our family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88 to join his sons, Peter and me and continued his vocation of helping people anyway possible. He helped the budding community of Korean Catholic religious women in the Washington, DC metro area which later became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 In memory of my father, we, the Lee family, built a convent for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 on a beautiful location in Potomac, Maryland.

Sargent Shriver is known as the father of the Peace Corps, who died a little over a year ago. He was a fellow parishioner of ours at Our Lady of Mercy Catholic Church in

Potomac, Maryland. We used to see him and his wife whenever we went to the 7 o'clock Mass during the weekdays. His son, Mark, who is also a parishioner of Our Lady of Mercy, wrote a book about his father called "A good Man" which became an instant best seller this year. In his book, he quoted from one of his father's 1964 speeches. He said, "Compassion is the ideal that must illuminate, from the very center, all our efforts to bring better life to our world, within our own country, and in the farthest reaches of the planet. It is only with this compassion that man can look upon man and recognize his brother, through the mask of many colors, through the vestments of many religions, through the dust of poverty, or through the disfigurement of disease."

My father's life was accentuated by service to his family, to his faith and to his community. His memory lives on in the wonderful and self-less outreaches he accomplished for those around him.

He was an incurable optimist. He found happiness in all things, small and large. My father was indeed a happy man who enjoyed his life on this earth to the fullest. He enjoyed the present. He appreciated what he had and never complained about what he didn't have. He was a person of impeccable integrity and honesty. He was never afraid to speak the truth.

His life was the epitome of compassion and justice.

Prayer of St. Francis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compassion and justice.

Where there is hatred, let me sow love.

Where there is injury, pardon.

Where there is doubt, faith.

Where there is despair, hope.

Where there is darkness, light.

Where there is sadness, joy.

O Divine Master,

grant that I may not so much seek to be consoled, as to console;

to be understood, as to understand;

to be loved, as to love.

For it is in giving that we receive.

It is in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and it is in dying that we are born to Eternal Life.

Amen.

기조연설

이덕효



이덕효 신부 (워싱턴 대교구)
Rev. Paul Dukhyo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프로필〉

■ 소속

- 워싱턴 대교구. 매리랜드 주 락빌 소재 St. Jude 본당 신부(2012, 7월 부임)

■ 학력

- 서울대생(1955)
- 동성중고등학교(1968-1974)
- 가톨릭대학 신학부 학사(B.A. 1978)
- Mount Saint Mary's Seminary (Emmitsburg, Maryland) 신학석사 (M.A. & M.Div.1983)
- 미국내 한인 최초 사제서품 (워싱턴 대교구 1983)
- 안젤리쿰 대학 (Angelicum: The Pontifical University of Saint Thomas Aquinas) Licentiate (S.T.L.)와 신학박사 (S.T.D.) 수료 (summa cum laude 1994)

■ 주요경력

- 워싱턴 대교구청에서 교회일치 및 종교 간의 대화 사무소장과 사제 평생교육 사무소장을 겸임 (1994-2010)
- 사제서품25주년 은경축 (2008)
- 워싱턴 대교구 사제 인사위원회 위원 (2009-2011)
- 워싱턴 대교구 사제 위원회 위원 (2010-현재)

- 북미주 한인 가톨릭 사목 사제 연합회 대표 (1999-2005)
- 워싱턴 종교연합회 대표
-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자문위원 (2009-현재)

■ 주요저서

- Bridging(다리놓기) - 사제 서품 25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쓴 글을 모은 신학 에세이집

〈Profile〉

Fr. Paul D. Lee is a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currently serving as the Pastor of Shrine of St. Jude Catholic Church. He graduated Dong Sung Middle and High School an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Seoul (BA). After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79, he went to Mount Saint Mary's Seminary, Emmitsburg, Maryland, receiving his MA and M.Div. After his priestly ordination in 1983, Fr. Lee served as Associate Pastor, as Parochial Administrator, and as Pastor. Fr. Lee was sent to Rome in 1990 for further academic degrees. He received a Licentiate (S.T.L.) and completed a doctorate in sacred theology (S.T.D.) from the Pontifical University of Saint Thomas Aquinas (commonly known as *Angelicum*), graduating *summa cum laude*. After his return from Rome in 1994, he worked as Director of two archdiocesan offices: Office for Ecumenical and Interreligious Office and the Office for Continuing Education of the Priest. He served as member of the Clergy Personnel committee. He has been active as member and chairman of the InterFaith Conference (IFC), the interreligious organization of 11 major religions of the Metropolitan Washington. Currently he works with the bishops in the Subcommittee of Asian-Pacific Island Catholic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USCCB) as National Consultant. Father Lee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he National Korean Pastoral Center, the umbrella organization of Korean-Catholic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r.

Lee's areas of specialty and interest include ecumenism and interreligious dialogue, ecclesiology and Trinitarian theology,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His mailing address :

Shrine of St. Jude Catholic Church

12701 Viers Mill Road

Rockville, MD 20853

Phone: 301-946-8200

Fax: 301-946-4527

E-mail: sua.eleganza@gmail.com

연대성은 가톨릭 인본주의의 핵심

오늘날 우리는 분열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파고 들었습니다. 일전에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Museum of Troubles를 방문했을 당시 인상 깊었던 점은 불행했던 그 곳이 과거사를 치밀하고체계적으로보관하고전시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그곳의역사가단지북아일랜드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전세계의역사를반영하고 있다는점을절감할수있었기때문이었습니다.

현대사회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과 분노는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과 적개심 또한 사회 깊숙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존재의 근간이 단결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통해 개개인 간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삼위일체의 친교(Trinitarian communion)안에서 기원과 참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간 실존의 신학적 근거에 대한 성찰을 해보고, 가톨릭 인본주의의 핵심으로서의 연대성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의 역사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단결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살펴보고 공동선(common good)과 밝은 미래를 위해 단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분절(Brokenness)

분절의 비극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질문을 회피하는 카인의 대답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4:9)로부터 시작하여 분절의 역사는 에덴의 동산이나 북아일랜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절의 원인은 참으로 다양하고 무수히 많습니다. 냉전시대 초기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한반도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으며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영토 확장의 야욕

과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탐욕으로 인해 이웃 국가들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예측불허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동유럽 발칸 지역의 민족청소(ethnic cleansing)와 관련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동유럽 종교와 민족연구 전문가인 Paul B. Mojzes는 “ 전(前) 유고연방의 그리스 정교, 가톨릭, 이슬람 교도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상대방이 사라져 주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이나 나이지리아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 있어도 발칸 반도의 이웃 국가와 공존하는 것에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달갑지 않은 사람들과 바로 옆에서 이웃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문제로써 전세계 곳곳에 유사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뿌리깊은 불신과 증오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며 이에 따른 분노, 좌절, 보복의 유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심의 발로로 개인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국가주의 사상이 팽배하여 진정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저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그간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적 경향으로 인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개인이 자신만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에 집착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개인간의 괴리감, 외로움,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생활조차도 개인의 자기표현이나 개인의 발전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타인을 배제한 부의 추구하고 세계화의 미명하에 자행되는 착취행위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더욱 넓히는 결과도 초래하였습니다.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회의와 분노를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테러리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회현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단결이라는 모호한 구호만 외치기 보다는 인류를 억압하는 부정의(不正義)와 불평등을 묵과하거나 용인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인류를 절망과 난관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비전을 재발견하고 다시 펼쳐야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을 통해서만 항상 가능했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획 앞에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고 결국 하느님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한마음이 되어 진정한 친교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에서 추구하는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연대성의 신학적 기초

가톨릭의 연대 개념은 공리주의와 이상주의의 양극단을 함께 고려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류와의 연대 안에 계시고, 인류는 하느님과의 연대 안에 있습니다. 이 상호성이 연대를 확증해 줍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는 하느님께 열려있음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하느님께 열려있음은 우리가 형제나 자매에게 향하도록, 그리고 삶을 연대성 안에서 완성되는 즐거운 소명으로 이해하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줍니다. [...] *하느님을배제시킨인본주의는사실비인간적인인본주의입니다.*” 사실,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그의 형제와 자매에게 얼마나 열려 있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마태 25,31-46).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느님께서 몸소 인간의 약함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면서 인간을 삼위일체적 삶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거룩한 행동은 하나의 초대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Catherine Mowry LaCugna는 신성과 인성의 일치와 관련하여 다마스쿠스의 요한의 고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통찰을 활용합니다: “인류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에페 1,3-14) 거룩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 친교의 신비는 하느님과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 복음에 나오는 대사제의 기도에서 바치셨던 내용입니다(요한 17,20-21).”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해 인간은 본성상 개체적이라기 보다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상호성 안에서 실존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며 인간적인 친교를 촉진하고 실현하며 그 자체로 친교입니다. 친교로서의 교회는 이 갈라진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그리고 모든 인류와 이루는 일치의 성사이며 도구적 표지입니다”(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1항). 교회는 세상 밖이나 혹은 세상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유대로 더욱 가까이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치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1항).

연대의 덕은 교회가 친교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친교의 성사나 표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연대가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의 내적인 사회적 본성을,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함을, 더 헌신적인 일치를 향한 개인과 민족들의 공통된 길을 강조”함을 밝혀줍니다.

연대성은 “죄의 구조들”을 “연대의 구조들”로 변형시킬 것입니다. 연대는 막연한 동정이 아니라 “자신을 공동선에 헌신하겠다는 단단하고 인내로운 결심”입니다. 연대는 기꺼이 이웃의 선익에 헌신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대신 그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대신 ‘그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참조: 마태 10,40-42; 20,25; 마르 10,42-45; 루카 22,25-27).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는 하느님의 한계 없는 사랑의 살아있고 영원한 표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앞에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책임지고 구원과 실패의 역사를 공유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영감을 따르다면 어떤 인간 사회도 다양한 반대와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생명의 장소로 재발견되고 재건설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연대 곧 나눔의 훨씬 높고 깊은 형태로 초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은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사랑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사심 없는 그리스도교 사랑은 ‘성장’의 내적 원리이며 동력입니다: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1고린 8,1). 교회를 성장시키는 영적 강화는 사랑의 성령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에서 파스카 신비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호의를 가진 사람들과 경건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도록 하느님께 불림 받은 공동체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문화, 경제, 사상적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민족을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의 측은지심의 현존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표지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희망의 전조

평화와 정의, 단결과 연대성을 향한 갈망은 시공을 초월하며 존재해 왔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Alle Menschen werden Brüder*”)은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슬라브 공동체에서는 개인주의를 추종하는 세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의 신념과 기도로써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데 이 곳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생활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종파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한다면서 오히려 교회의 메시지에 혼란을 가져오는 분열의 진통을 겪은 후 현대 교회일치운동(ecumenical movement)은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신 예수님의 대사제의 기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인류 봉사에 협력하며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다양한 전통을 공유함으로써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확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날까지 정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간의 대화는 우리 모두가 한 인류라는 신념, 곧 하느님을 동일한 기원과 궁극 목적으로 믿고 있는 한 가족의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1항). 신의 이름으로 종교를 이용하여 계락을 획책하는 종교 극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비난을 받게 됩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퇴치하는 일련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비록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자본융자 프로그램은 빈곤층을 구제하고 연대성을 구현한 예가 될 것입니다. NGO에서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벌이고 있는 각종 활동 또한 높이 살만합니다. ‘희망의 씨앗(*Seeds of Hope*)’ 프로그램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통해서 무와 배추 종자를 개선해서 생산력을 3~4배 증가시켜 북한 주민의 만성적 영양 실조를 개선시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배추와 무는 한국인의 식탁에는 없어서는 안될 김치의 주 재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투자로 실로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희망의 씨앗’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한 주민들에게 노동의 결실을 맛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호 물자를 보내주는 대신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에서는 북한 농촌 전역에 온실을 지을 수 있는 자재와 개량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밀바탕에 흐르고 있는 목표는 단절된 관계, 즉 남한과 북한간의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화해와 연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국가간의 긴장 상태와 힘겨루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국경을 허물어뜨리자는 논의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관계를 넘어서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성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위태로운 상황은 우리에게 어두운 미래만을 예고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담한 상상력과 용기 있는 결단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시지만 보편적’이셔서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계를 초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강생으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어느 모로 결합시키셨습니다.”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22). 그리스도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추종자들에게 배신당했고 이단자로 내몰려 생을 마쳤으며 당대 사람들로 부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진적’인 이방인이 결국 인류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칸 반도 국가들,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는 과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들로 한자리에 모여 화해와 치유의 노력을 하려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한번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고 이는 “진실, 인내, 공감, 어긋난 관계를 복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겸허하면서도 용기 있고 주도 면밀하게 노력한 점은 칭송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삼천년기(third millennium)를 준비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회는 진실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과오와 불신, 불성실,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참회를 함으로써 자신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새천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과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화 과정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Ways Forward)

인류가 분절되어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과 서로에게 마음을 열면 희망은 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로는 불가능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대성은 영적인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연대의 정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대화와 동료애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자매를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내적, 외적 불협화음과 난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절대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고 회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단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기심과 자존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의 예는 교회일치운동의 작은 꽃이라 불리는 복녀 Maria Gabriela Sagheddu입니다.

연대를 다시 구축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관계를 끊기는 쉽지만 다시 맺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단칼에 가능할지 몰라도 다시 잇기 위해서는 수많은 바느질 땀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복원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분절은 혈관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혈액 순환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지요. 노련하고 인내심이 많은 외과의사만이 혈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적수들이 용서와 화해를 위해 들이는 노력을 통해 일종의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흉터를 아물게 하고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화해와 같은 치유 과정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재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이러한 화해의 노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방법은 친교의 교회론(ecclesiology of communion)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hyper-individualism)는 과도한 경쟁, 외

로움, 소외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중에서 교회를 친교로 보는 옛 가르침으로의 회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인간의 상호성을 통해 본 바와 같이 인간은 교류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에 의해 정의되며 고립된 방랑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상호관계형성과 상호의존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이러한 희망적인 비전을 더욱 수월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당은 단순히 독실한 신앙인만 배출해내는 곳이 아니라 친교와 연대성을 가르치는 학교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친교의 성사로서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연대가 형성되고 실현됩니다. 본당 안에 소규모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속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더 활발한 교류와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회속에서의 친교를 가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본당에서는 문화의 변화 등을 통해 복음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당 중에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화 간의 소통 능력이 더욱 절실한데 이는 연대성 형성을 통해 깨우치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연대의 실천은 안전망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활동을 넓힘을 의미합니다.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과의 예언자적 대화를 지속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주교들이 주축이 되어 타종교, 타문화, 빈곤층과의 대화를 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복음화는 거룩한 삼위의 역동적인 공동체적 삶으로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연대성은 삼위일체의 친교에 참여함으로써 시작되고, 신성과 인성의 일치에 참여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경청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두 내어’줍니다. 여기서 외로움의 여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인본주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찾는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비극적 개인주의에서 드디어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상호 역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연대와 친교의 성사인 성체성사입니다. 연대성을 행동에 옮기는 방법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전대미문의 강도로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서 유래된 성체성사는 낙담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깨진 몸과 그 사연을 담고 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며 낙담하고 절망한 어린양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가 거행될 때 교회는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기뻐하며 온 세상을 이 천상 잔치에 초대합니다.

Solidarity as the Axis of Catholic Humanism

We live in a deeply fragmented world. Ingrained mutual distrust and suspicion is found in every nook and cranny of this beautiful planet. My visit to the Museum of Troubles in Belfast, Northern Ireland, was memorable not only because it meticulously chronicled its troubled history but because also it resonated in the history of the rest of the world.

The sense of resignation and frustration over the inability to come to a breakthrough is ubiquitous. The bitterness and enmity runs deep.

How do we overcome this impasse? Promotion of the principle of solidarity as a theological foundation of our human existence and as a path to a renewed sense of interrelatedness of every single person with one another may provide a way out of the world stuck in the trenches of despair.

This presentation will explore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our human existence and goal by tracing its origin and participation in the Trinitarian communion, which gives ground to solidarity as the axis of the Catholic humanism. We will also trace some of salient endeavors in restoring solidarity in recent history. Finally, some concrete steps towards reclaiming this virtue of solidarity as a hopeful signpost for the common good and future will be suggested.

■ *Brokenness*

Tragic brokenness is ubiquitous across time and space. Beginning with the dodging reply of Cain – “Am I my brother’s keeper?” (Gen 4:9) - the history of brokenness is not limited

to Eden or Northern Ireland. The causes of divisions are variegated and numerous. For example, the initial ideological spar between the victims of the Cold War has turned into a bloody war and prolonged impasse on the soil of Korea. Persistent territorial ambition and commercial greed has further heightened the fluid and unpredictable tension among the neighboring countries.

A typical dilemma is described by Paul B. Mojzes, an expert on religion and ethnicity in Eastern Europe, after the recent Balkan mayhem involving gruesome ethnic cleansing: “I think there is a basic reluctance on the part of the people of the Orthodox, Catholic, and Muslim traditions in the former Yugoslavia to have the others in their presence. They would really wish them away. I have seen statements in print where they say they wouldn’t mind living among the Chinese or among people from Nigeria, but they do mind living among their Balkan neighbors. The problem is, they have to live right next to these people.”¹⁾ In a nutshell, this is the problem of distrust among various group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ncient mutual mistrust and even hatred among these groups of people tend to surface every once in a while causing conflicts in all forms. Anger, frustration, and the temptation of retaliation lingers.

Plus, the relentless selfishness has resulted in individualism, tribalism, ethnocentrism, and regionalism, and nationalism, which prevent meaningful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In America the exaltation of the individual has consequences, namely, the need for individual self-fulfillment tends to isolate the person and create a sense of loneliness and alienation. As a result even community becomes a means for individual self-expression and personal growth.²⁾ Today the self-contained pursuit of wealth and exploitation of globalization deepens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This is one of the root causes of the widespread terrorism that exhibits a visceral sense of injustice, suspicion and anger.

1) Quoted in William Bole, Drew Christiansen, and Robert Hennemeyer, *Forgiven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 Alternative Road to Peace* (2004,USCCB),13.

2) Cf. John J. Mackey, *Creating Communion: The Theology of the Constitutions of the Church* (New York, New City Press, 2003), 174-179.

Instead of settling with a vague affirmation of solidarity, what we need is to acquire a prophetic indignation to the tolerance and collaboration to the oppression, injustice, and inequality inflicted on the vast majority of mankind.³⁾ It is critical to rediscover and re-receive the vision that will liberate the humanity trapped in despair and impasse. What is humanly impossible has become possible through God. Humble and honest openness to God and His plan will in turn enable us to be open to one another and to reclaim the fundamental unity and communion with God and with one another, which is the goal of Christian humanism.

■ *Theological foundation of Solidarity*

The best way to navigate between the undesirable poles between utilitarianism and utopianism is the Catholic notion of solidarity. God is in solidarity with humanity and we are in solidarity with God. This reciprocity is the affirmation of solidarity.

The key to a radical change in our understanding and attitude to neighbors is the openness to God. Benedict XVI simply declares: “Openness to God makes us open towards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towards an understanding of life as a joyful task to be accomplished in a spirit of solidarity... *A humanism which excludes God is an inhuman humanism.*”⁴⁾ In turn, man’s eternal life with God is decided by his openness to his brothers and sisters in the task of this world (Matt 25:31-46).

The God revealed to us by Christ takes the initiative to come into the human brokenness.

3) “Solidarity is not a matter of altruism. Solidarity comes from the inability to tolerate the affront to our own integrity of passive or active collaboration in the oppression of others, and from the deep recognition of our most expansive self-interest. From the recognition that, like it or not, our liberation is bound up with that of every other being on the planet, and that politically, spiritually, in our heart of hearts we know anything else is unaffordable.” - Aurora Levins Morales, *Medicine Stories: History, Culture and the Politics of Integrity* (Cambridge, MA: South End Press, 1998): 125.

4) Benedict XVI, *Caritas in Veritate*,⁷⁸(Italics are his.); see also 53-67.

God conforms to human nature and assumes human destiny into the Trinitarian life, that is, God became man so that man might become divine. This divine action that is conformed to human dignity is an invitation, never coercion.

As to divine-human communion, Catherine Mowry LaCugna exploits the ancient but dynamic insights of John of Damascus: “Not through its own merit but through God’s election from all eternity (Eph 1:3-24), humanity has been made a partner in the divine dance. Everything comes from God, and everything returns to God, through Christ in the Spirit... The one *perichoresis*, the one mystery of communion includes God and humanity as beloved partners in the dance. That is what Jesus prayed for in the high-priestly prayer in John’s gospel (Jn1 7:20-21).”⁵⁾

Through the indwelling Spirit, the human person is not primarily an individual like a monad, but essentially a relational event. Hence, the human existence is actualized in its interpersonal ontology. The church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exists to promote and realize this divine-human communion and is, in fact, this communion. The church as communion has something significant to contribute to this broken world. It is no accident that the Second Vatican Council begins its Constitution on the Church with a proclamation that “the church is in Christ as a sacrament or instrumental sign of intimate union with God and of the unity of all humanity” (*Lumen Gentium* 1). The church is neither outside nor above the world, but the church is *in* and *for* the world “so that all people, more closely bound together as they are by social, technological and cultural bonds, may also attain full unity in Christ” (*LG*1).

The virtue of solidarity helps the church to realize its identity as communion and to fulfill its mission as a sacrament or sign of communion. The Catholic social doctrine elucidates that “Solidarity highlights in a particular way the intrinsic social nature of the

5) Catherine Mowry LaCugna,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San Francisco, 1991), 270; See also Paul D. Lee, *Pneumatological Ecclesiology in the Roman Catholic – Pentecostal Dialogue* (Rome 1994), 157-161.

human person, the equality of al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e common path of individuals and peoples towards an ever more committed unity.”⁶⁾

Solidarity will transform the “structures of sin” into “structures of solidarity.” Solidarity is not a vague compassion but “a *firm and persevering determination* to commit oneself to the *common good*.”⁷⁾ Solidarity is found in “a commitment to the good of one's neighbor with the readiness, in the Gospel sense, to ‘lose oneself’ for the sake of the other instead of exploiting him, and to ‘serve him’ instead of oppressing him for one's own advantage (cf. *Mt* 10:40-42, 20:25; *Mk* 10:42-45; *Lk* 22:25-27)”⁸⁾ In Jesus we have the living and permanent sign of God’s boundless love that will unite all people.

For this reason Jesus forms “a community before God, a community that belongs together, whose members are responsible for one another and have a common history of salvation and of failure.”⁹⁾ Following the inspiration of the community of Christ, any human society, despite all its contradictions and ambiguities, can be rediscovered and reestablished as a place of hope and life, because it is an invitation to solidarity, to an even higher and more involved form of sharing.¹⁰⁾

We are responsible for one another. Our neighbors must be loved even if they are enemies, because Jesus loves them and even laid down his life for them (cf. *1Jn*3:16).

Selfless, disinterested Christian love is the inner principle and motivating force of ‘edification’: “Love builds up” (1 Cor 8:1). Spiritual edification, the building up of the church, is the “progressive assimilation of the Paschal Mystery in the members of the Body

6)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atholic Bishops’ Conference, 2005), 192.

7) *Compendium*, 193.

8) *Compendium*, 195.

9) Gerhard Lohfink, *Jesus and Community: The Social Dimension of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Fortress Press, 1984), 106 (Translation of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Zur gesellschaftlichen Dimension des christlichen Glaubens* [Freiburg: Herder, 182] by John Galvin).

10) Cf. *Compendium*, 196.

of Christ”¹¹⁾ effected by the Spirit of love. The church is not a voluntary association of like-minded people or of pious individuals, but community convoked by God to be one, holy and catholic through power of the Spirit.¹²⁾

The Catholic Church embraces all people, regardless of cultural, economic, ideological backgrounds, and invites them to experience God’s compassionate presence and be transformed to become a sign of his kingdom.¹³⁾

■ *Hopeful Signs*

Yearnings for peace and justice, unity and solidarity are found across time and space. The stirring chorus of Beethoven’s ninth symphony finds an echo in every hear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The Slavophile share the sobornost vision of all Christians of all ages becoming one community living together in common conviction and prayer, as opposed to the cult of individualism. This resembles the nascent Christian community in Jerusalem, adhering to the apostles’ teaching, praying together, breaking the bread together, and sharing everything in common.¹⁴⁾

After having undergone an absurdity of disunity among Christian missionaries, each preaching the same Christ but presenting conflicting messages about the church, the modern ecumenical movement is deeply committed to Jesus’ high-priestly prayer, “that they be one” (John 17). Jointly confirming the same faith in Jesus Christ, cooperating in service to

11) Herbert Alphonso, *Building Up the Church: An Exegetical-Theological Inquiry into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Edification”* (Rome: Centrum Ignatium Spiritualitatis, 1992), 226.

12) “The goal of the ways of God is not only the pious individual, but the one, holy, catholic church, in the pregnant and radically eschatological sense of the New Testament; it is the church’s creation and preservation, its promotion and realization, that Paul describes as *oikodomein*”: Philip Vielhauser quoted in G. Lohfink, *Jesus and Community*, 102.

13) “In the lives of those who, sharing in our humanity, are however more perfectly transformed into the image of Christ (275), God vividly manifests His presence and His face to men. He speaks to us in them, and gives us a sign of His Kingdom (LG 50).”

14) Acts 2:42-27; 4:32-27; 5:12-16.

humanity, and sharing spiritual riches of various traditions, contemporary ecumenism continues with conviction and patience.

Interreligious dialogues begin with the belief in one humanity as sisters and brothers of one family sharing the same origin and goal, namely, God (*Nostra Aetate* 1). Those extremists who use religion or the name of God to exploit their misguided schemes are roundly denounced through these dialogues.

The endeavors to bridge the economic gap and reduce poverty are undertaken at various levels, manifesting a spirit of solidarity.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as well as some critic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World Bank, and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mong others have been engaged in such efforts. The micro loans program for the poor in Bangladesh is conducted in this spirit. There are also commendable NGO efforts to alleviate the dire humanitarian plight. The *Seeds of Hope* project is such an example.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support the project to improve certain species of radishes and cabbages so as to increase their productivity by three or four fold,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alleviation of chronic malnutrition of North Koreans. Cabbages and radishes are critical ingredients of kimchi, which is indispensable in the Korean diet. With minimum investment, the yield has been huge. Plus, this project requires that the people in North Korea have to plan and work hard to enjoy the fruits of their labor. Instead of just sending foodstuff, this will help them to be more self-supporting. The project aims to provide building materials for greenhouses and fertilizer to produce the improved seeds for all the counties of North Korea. The underlying aim is to develop human relationship,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nurture solidarity between estranged groups of people, that is,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 are movements and debates to eliminate all national borders so as to reduce tensions and nationalistic power struggles, moving beyond competition to mutual accommodation and cooperation. As far-fetched as this may sound, these efforts deserve our attention because the current mode of precarious existence warrants a dim future at

best. Bold imagination and courageous decisions are critical. Jesus is not singular but ‘singularly universal’, in order to transcend national and ethnic boundaries. Jesus Christ lived beyond the boundaries. “By his incarnation the Son of God united himself in some sense with every human being” (*Gaudium et Spes* 22). He was dismissed by the society he lived in. He was betrayed by his followers and died as an outcast, mocked by his fellow citizens. This “radical”, outsider became the symbol of all mankind.

We also witness to the salient and hopeful attempts to bring about reconciliation and healing among former perpetrators of injustice and their victims both on an individual and communal dimensions, e.g., in South Africa, the Balkan neighbors, Jews and Christians etc. Forgiveness is not one action but a decision and a process, which includes “truth, forbearance, empathy, and the desire to repair the fractured relationship.”¹⁵⁾

Pope John Paul II’s efforts in this regard are remarkable in terms of humility, courage, and thoroughness. In preparing for the third millennium, he invited all Catholics to undertake a process of purification of memory: “Because of her responsibility to Truth, the Church “cannot cross the threshold of the new millennium without encouraging her children to purify themselves, through repentance, of past errors and instances of infidelity, inconsistency and slowness to act. Acknowledging the weaknesses of the past is an act of honesty and courage...”¹⁶⁾ This purification opens a new tomorrow for everyone in the world.

■ *Ways Forward*

However bleak the future of humanity may be due to its brokenness, there is hope when there is openness to God and one another. Openness is not passive, rather it involves a

15) William Bole, Drew Christiansen, Robert Hennemeyer, *Forgiven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 Alternative Road to Peace* (Washington: USCCB, 2004), 18.

16) *Tertio Millennio Adveniente*, 33. See also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ission, *Memory and Reconciliation: [?] The Church and Faults of the Past* (December 1999).

willing disposition and spiritual attentiveness.

Solidarity is a spiritual awakening. Restoring a spirit and virtue of solidarity involves spiritual awakening through personal and communal prayer as well as regular interaction for dialogue and fellowship. Anger and hatred will keep a person from seeing the reality, i.e., seeing a brother or sister as a foe. In the end, it is the Spirit who enables us to transcend our self-centeredness so that we may become willing co-workers of God in overcoming interior and exterior disunity and impasse. This also assures that we never lose hope and become skeptical because it is primaril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we are his instruments. After all,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work for unity is personal conversion from selfishness and pride, which are the roots of division. This is eminently exemplified by Blessed Maria Gabriela Sagheddu, the Little Flower of Ecumenism.¹⁷⁾

Restoring solidarity is a healing process. It is easy to burn the bridge but very hard to build one. Severing relationship may take one snip but reconnecting may take many stitches. Yet it is worth it. Brokenness is like blood clogged in veins. Without blood flow, there is no life. It takes skillful and patient surgery to remove the clots. All the efforts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between strangers,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mong enemies have a therapeutic function. They heal the scars and restore health. Healing like forgiveness is not a one-time event but a process and rehabilitation. So is human relationship. There are many commendable efforts for reconciliation around the world that deserve attention and support.¹⁸⁾

17) Blessed Maria Gabriela Sagheddu (1914-1939), the “patron saint” of ecumenism, a humble nun from a Trappist monastery in Grottaferrata, Italy. Her offering was for unity; her attention was on Christ, on his desire for unity. For her, the unity of all people in Christ was the same as salvation for all. Her “little way” of ecumenism was to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work for unity is personal conversion from the selfishness and pride which are the roots of division*. In a time of disappointments, delays and setbacks on the ecumenical journey, Sr. Maria Gabriella’s silent sacrifice is perhaps a call to patience, perseverance, conviction and hope. She had no human expectations as to when and how the desired unity was to be achieved. She was free from discouragement, free from worries, free from the temptation of despair. She simply did what she felt that the Lord asked of her, thankful to have been given a small part in his suffering, an incomprehensible sign of his love.

The most hopeful way to overcome the ideology of individualism is by fostering the ecclesiology of communion. The exaltation of the individual (hyper-individualism) has caused competition, loneliness and alienation.¹⁹⁾ A promising sign is the rediscovery of the ancient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s communion. This will help the contemporaries to move from the mode of competition to that of communion and companionship. As seen in the interpersonal ontology above, the human person is a relational event, not an isolated monad. Contemporary attention to interrelatedness and interdependence of all things and peoples may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hopeful vision.

The parish is not just about fostering pious individuals but it is a school of communion and solidarity, celebrating and cultivating a concrete embodiment of the church as Body of Christ, the sacrament of communion, where the virtue of solidarity is nurtured and implemented. Creating and supporting small Christian communities within a parish has resulted in meeting the needs of belonging and inclusion, fostering better communication and deeper friendship. As a tangible realization of communion in society, the parish can better fulfill its mission to evangelize, including the transformation of culture. Some parishes are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competency is much needed, through which solidarity is awakened and realized.

Practicing solidarity involves an outreach beyond the comfortable confines and trenches. Evangelization resumes the dialogue of salvation initiated by God,²⁰⁾ and the church continues a prophetic dialogue with the world.²¹⁾ In Asia, bishops decided to engage in dialogues with other religions, with cultures, and with the poor.²²⁾ Evangelization is about

18) Some organizational resources are listed in *Forgiven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187-201.

19) Cf. John J. Mackey, *Creating Communion: The Theology of the Constitutions of the Church* (New York, New City Press, 2003), 174-179.

20) Paul VI, *Ecclesiam suam*(1964).

21) Stephen B. Bevans and Roger P. Schroeder, *Constants in Context: A Theology of Mission for Today* (New York: Orbis Books, 2004), 348-395.

22) John Paul II, *Ecclesia In Asia*[?] (1999). [?]

inviting everyone to the dynamic mutual indwelling of the three divine persons, whose life is eternally one of shared regard, joy, fellowship and feasting. Solidarity begins with the outreaching of the Trinitarian communion and ends with our joining in the divine-human communion. It is a matter of God's love finding an attentive heart who then responds in a grateful 'receiving all and giving all away.'²³⁾ Here, we have a Christian humanism that overcomes a journey of the alone to the alone— the tragic individualism rejecting God's hand in the name of "finding self" – and finally proclaims the Good News of eternal joy of being dance-partners of God along with others.

The most vivid actualization of the mutual indwelling of the Holy Trinity and us is the Eucharist, the sacrament of solidarity and communion. And the love is the verb of solidarity, a love so great and unparalleled in human history. "Rooted in the broken body and the spilt blood of Jesus himself, the Eucharist has always been the story of a broken body for a broken people."²⁴⁾ Jesus is present to the failing and broken disciples of all places and all times. As the Eucharist makes the church, she humbly enjoys the divine-human dancing as if for the first and last time and invites the whole world to this heavenly banquet.

23) David Bentley Hart states coherently in his *The Beauty of the Infinite: The Aesthetics of Christian Truth* (Grand Rapids 2003), 249: "By the analogy, each thing comes to be as pure event, owing no substance, made free from nothingness by the unmerited grace of being other than God, participating in the mystery of God's power to receive all in giving all away—the mystery, that is, of the truth that God is love."

24) Francis J. Moloney, *A Body Broken for a Broken People: Eucharist in the New Testament* (Burwood, Victoria: Harper Collins, 1997), 2.



Klemens Stock

Rev. Klemens Stock S.J. (Secretary, Pontifical Biblical Commission, Vatican)

<Profile>

- Doctorate in biblical sciences 1974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Rome
- Pastoral activities 1959-1961; 1965-1967; 1969-1970
- Professor for New Testament exegesis (synoptic gospels) 1974-2010 PBI Rome
- Professor for New Testament exegesis 1978-1987 Theological Faculty University of Innsbruck/Austria
- Dean of the Biblical Faculty of th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88-1990
- Rector of th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Rome 1990-1996
- Acting Dean of the Oriental Faculty of the PBI Rome 1998-2006
- Member and Secretary of the Pontifical Biblical Commission 2002-

동정심과 정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보완적 존중심

저는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이곳 가톨릭대학교에 왔습니다. 버나드 원길 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도록 저를 초대하여 주신 가톨릭대학교 총장이시며, 개인적으로는 교황청 성서위원회 동료이신 박요한 영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한국의 학생들 및 동료들과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만, 제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로마 교황청 성서대학교에서 4년 간 교수 생활을 마치고, 1978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학교 신학부에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두 젊은이가 박사학위 지도교수로 저를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의 지도를 받은 첫 번째 학생들이었고, 독일어로 학위논문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인스부르크로 유학 온 이 옛 학생들 가운데 몇몇은 저의 저서와 연구논문들을 한국어로 옮기기도 했지요. 영어나 이탈리아어의 경우,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 있겠습니까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번역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독일어나 이탈리아어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제가 한국어로 공부해야 했다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곳 서울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영어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동정심과 정의’에 관해 발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정심과 정의’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며 삶의 태도인지 숙고한 바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심

‘동정심’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받다’는 뜻의 라틴어 동사 ‘pati’에서 유래합니다. 이 동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참된 동정심의 좋은 예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말씀 가운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강도들을 만나 약탈당하고 매를 맞아 초주검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상처투성이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기 전에 한 사제와 레위인이 그를 이미 보았지요. 사제와 레위인은 자신들이 정결하게 보호받고 싶었기에, 마땅히 도움 받아야 하는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과 달리,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사람과 그의 고통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지요.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살로 된 마음”(에제 36,26)이었고, 초주검이 된 사람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은 것으로만 끝이 났을까요?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맨 다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참된 동정심에는 ‘눈을 열어’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행동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함께 살고 있거나 내가 가는 길에 만나는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일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고통과 요구에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고통에 기꺼이 참여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일입니다. 셋째는, 내게 있는 수단과 가능성을 모두 동원하여, 참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실제로 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은 마음, 곧 내적인 정신 태도입니다. 마음이 차갑고 메말라 자신만을 향해 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들을 향한 눈이 뜨임으로써 손으로는 이미 그들을 위한 행동, 곧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동정심은 곤궁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에게 제한됩니다. 공동체라면 모름지기 닫힌 마음과 눈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눈으로, 서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활짝 편 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야말로 바로 동정심의 특성이자 본질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이지요. 상호 존중과 친절, 돌봄, 적절한 배려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사는 삶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정의

정의의 개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는 개개인의 포괄적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정의는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이면 누구나 법과 계명, 관

습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야 하는 실천적 태도를 나타낸다 하겠습니까.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1요한 3,7). 이렇게 볼 때, 비유에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보여 준 동정심이야말로 바로 의로운 일(정의)입니다.

더 좁은 의미에서 정의는 법정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는 저마다 상이한 법과 입법 체계를 갖고 있지요. 법이 편견이나 선입견, 훼손됨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모두 자기네 공동체의 법과 규정, 관습법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실현하는 정의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 이러한 정의를 실천한다면, 법정에서 법이 집행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고, 개인이나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일은 입법 기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더 넓은 의미에서나 법 제도 차원에서의 정의를 다루기보다는 공동체의 법과 관습법을 지키고 따르는 정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법

공동체의 법을 충실히 지키고 따르는 차원에서의 정의는 공동체의 성문법이나 불문법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자체의 법이 있습니다. 성서 첫 부분에 해당하는 구약 성서 첫 다섯 권의 책들을 일컬어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에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규정하던 많은 법과 법규집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개별 백성의 전통에 속합니다.

오늘날 국가는 국민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본권 및 근본 질서를 설명하는 헌법과 국민의 삶과 행위를 규정하는 많은 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상황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약 분야에서의 개발과 발전, 통교 수단, 원자 에너지 등은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처럼 정의란 인간 개개인이나 산업체와 같은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법의 준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가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법의 존재, 법을 입안하고 변경하는 권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는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누구나 분명히 한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 속합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요. 가족과 마을, 지역 공동체에 속합니다. 종교를 갖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특정 본당에 속하겠지요. 학생이나 교수로서, 또는 교직원으로서 이 대학에 몸담고 있기도 합니다. 체육 클럽에 가입하여 축구나 테니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 생애에 걸쳐 특정 공동체에 속하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정의를 실천하며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지켜야 할 태도로서 정의가 공동체 삶에 얼마나 중요하며 필요한 덕목인지 알려 줍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떠나 고독과 절제, 운둔의 삶을 사는 수행자의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행자도 처음에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성장했습니다.

정의와 자유

법과 규정, 관습법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일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안녕과 평화, 행복과 성공을 위해 본질적입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인격을 수양하거나 자유를 맘껏 누리려는 이들에게는 법과 관습법은 장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생각과 감정에 따라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행사하려는 국민, 곧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가능성이라도 이용할 심산인 국민은 법이 자신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와 염원, 감정,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선이 깔려 있고,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는, 한편에는 정의와 공동체 법이, 다른 한편에는 자유를 맘껏 누리려는 개인의 욕망이 서로 갈등하고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 발생한 것이지요.

오늘날 자유는 근본적 선이며 본질적 권리로 여겨집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거나 행동하려는 열망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계획과 염원을 좇아 자유를 만끽하려는 시도는, 때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에 피해를 주거나 해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서로 이웃한 공동 장소에 있거나, 아니면 얇은 벽 하나로 주거 공간이 나뉘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열차의

동일한 객실에 앉아 여행하거나, 해변에서 많은 이들이 일광욕을 한다고 칩시다. 더러는 찌렁 찌렁하게 울릴 정도로 라디오 소리를 높여 음악을 듣고 싶을 테지만, 더러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으며 조용하게 앉아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담배를 피우고 싶지만, 담배 연기조차 맡고 싶지 않은 이들도 있지요. 그 사람이 제 기호만 좇아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분명 다른 이들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멋진 자동차를 갖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주 건장한 B라는 사람이 A의 자동차나 집을 갖고 싶어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가 제 염원을 만족시키고자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그로 인해 A는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아주 심각한 상해까지 입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대한 불의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행위와 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습법과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습법과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일은 지상명령이자 과제입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관습법과 법, 정의가 없는 공동체는 무질서와 혼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되겠고, 권력자의 오만방자한 지배가 판을 치겠지요. 그러기에 다른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잠재우며 법 준수를 강제하고 불법 행위자들을 벌하는, 법정과 같은 기관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법과 관습법, 올바른 준수는 권력자들의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자유를 통제하고 공동체 구성원에게 동일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처럼 정의는 자유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에게 동일한 자유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정의, 평등, 존엄

법은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준수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평등과 존엄을 지켜주는 일보다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일은 없으니까요. 사람마다 나이와 사회적 지위, 능력, 과업, 재산 등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천부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모두 동일합니다. 이를테면, 교황 성하는 가톨릭교회에서 특수한 역할과 지위를 갖고 계시지요. 하지만 교황이 받은 세례성사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과과의 기

본 관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세례성사와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보다 낮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관습법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고, 법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공포됩니다. 법은 평등과 존엄을 나타내고 보호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정의는 인간의 존엄을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은 존재 자체만으로 존엄합니다. 존엄은 다른 누군가, 또는 단체나 공동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에서 유래하며 법과 연결되어 있는 권리 또한 누군가, 또는 단체가 제공하거나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다른 이들의 선의나 호의, 또는 관대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에 의존하는 일은 인간 삶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족과 동료, 사회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자율성과 주권을 드러내는 일은 존엄밖에는 없다 하겠습니까.

정의와 법이 자유를 저해하거나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 모두 동등한 존엄과 자율, 주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정의(어떻게 표현되든)를 실천하는 일임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동등한 존엄과 정의를 위한 참된 토대

그리스도교 인본주의에 따르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있는 존엄과 자율은 개개인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실존은 하느님의 의지와 사랑에 달려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각자의 실존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개개인의 존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그분의 특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서 첫 장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서는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 1,27)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 존재의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육화하심으로써 인간 본성은 영원히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사실

은 인간 본성에 새롭고 숭고한 존엄을 수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화하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강렬함과 유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납니다(요한 3,16; 로마 8,32 참조). 하느님의 아드님이 걸어가신 인간적 삶은, 하느님의 눈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중요하며 무한한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르면, 인간 삶의 목표는 영원한 신적 생명에 참여하고 하느님과 영원히 인격적으로 통교하는 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네 삶은 유한하고 한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실은 영원에 속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영원에 속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인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정의로 존중되는 동등한 존엄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복합적이고 심원하며 강렬한 관계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 곧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일은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 인간의 구원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 왜 그토록 밀접하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으며(마태 22,37-40 참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되는지(마태 22,39)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이른바 총체적 자유를 갈망하는 이기주의적 욕망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동정심과 정의

지금까지 동정심과 정의의 뜻,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동정심은 공동체의 가련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연민과 그에 맞는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동정심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에게 열린 마음, 돌봄과 관심, 섬세함, 친절을 베푸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공동체의 법과 관습법을 개인적으로 준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정심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숙고하고자 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정의가 모든 상황에 참되고 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라고 이해한다면, 동정심은 정의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동정심이란 고통 받는 사람과 곤궁한 사람을 향한 참되고 적절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법을 준수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동정심은 별개의 특수한 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과 정의의 중심에는 공통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인간의 동등한 존엄과 무한한 가치가 자리합니다. 정의의 중심에는 공동체의 법과 관습법에 표현된 동등한 존엄을 지닌 인간이, 동정심의 중심에는 삶의 구체적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정의가 객관적 성격을 띤다면, 동정심은 주관적 성격을 띤다 하겠습니다.

정의는 견고하고 인간 본성이 지닌 존엄을 표현하지만,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이 법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존엄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의는 법의 지배를 받지만, 냉혹해서는 안 됩니다. 동정심은 마음에 의해 움직여지기에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주관적이거나 인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태도는 공동체 생활에 모두 필요하며, 동정심과 정의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정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법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평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법으로만 말할 수도 없고, 사소한 분쟁마저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발휘되는 게 바로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관계를 유연하고 인간적으로 만들며,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작은 분쟁을 해결하며, 공동선을 위해 구성된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협력함으로써 조화로운 삶으로 드러나게 해줍니다.

개인 체험

지금까지 동정심과 정의가 지닌 몇몇 중요한 면모와 그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 공동체에서 체험하고 성찰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동정심과 정의에 관한 몇 가지 관찰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껏 여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마을, 본당, 가톨릭교회, 국가, 예수회 수도 공동체뿐 아니라 제가 한 인간으로 자라기 위해 배움과 활동의 터전이 된 여러 학교와 대학 공동체에서 숱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로마 교황청 성서대학에서 체험하고 성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대학 공동체에서 45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신분으로 그곳에서 생활했지만, 이어 강사와 교수, 학과장, 학장, 여러 위원회의 위원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성서대학은 3~400명의 학생과 40명 정도의 교수와 강사로 이루어진 작은 고등교육 공동체입니다. 1909년 교황 비오 10세께서 전체 가톨릭교회를 위하여 성서학 분야를 양성하고 연구를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하셨습니다.

성서대학에는 일종의 헌법과 같은 ‘정관’과 실천적 지침을 신고 있는 『규정집』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성서학 전공의 학과장과 학장으로서 이들 본문에 대단히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관’과 『규정집』이 성서대학을 무난히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정관’과 『규정집』은 평등과 개인 존엄, 성서대학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질서 있는 태도와 상호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명료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 공동체 구성원은 학생이든 교수든 자기 의견과 이론, 제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매우 생산적이며 창의적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연구와 양성을 위해 무엇이 더 나올지 수많은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의적 제안은 확실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득권과 감정에서 비롯되어, 분쟁을 일으키고 모순이 되는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관’과 『규정집』을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모두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이에게 알려지고 해당되는 사항은 결정적으로 참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 주제를 예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들은 대학 공동체가 건강하게 기능하게 하는 데 동정심과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세 주제는 ‘개혁’, ‘권한’, ‘평가’입니다. 마음의 개방성, 이기적이지 않음, 존중과 적절성이라는 뜻에서의 동정심은 언제 어디에서나 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꼭 필요합니다. 동정심은 자동차 윤활유와 같습니다. 자동차에 윤활유가 없으면 엔진이 빠르게 가열되어 못 쓰게 되지요. 동정심 없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또는 적대적으로 되게 마련입니다. 서로 협력하기란 어렵고, 아마도 성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겠지요. 덧없는 적개심에 소중한 에너지가 헛되이 쓰이기도 할 테고요. 친절과 존중, 박애는 꽃을 피우는 태양과 비와 같습니다.

대학 공동체에서 항상 원하고 논의되는 게 개혁입니다. 예리하고 생생한 정신은 가르침과 연구, 협력과 평가를 증진하기 위한 가능성을 내다보고 추구합니다. 동시에 더 나은 미래에 대

한 부당한 염원은 현재 이용 가능한 가능성을 사용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공식 논의에서 개혁을 준비할 수 있지만, 개혁은 정관에서 규정한 자격 있는 위원회가 도맡아 결정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때론 자기네 제안이 오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자기네가 제시한 의견 가운데 더러는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법적 절차를 거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개혁에 관심 있는 이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고등교육 기관의 권한은 법이 규정하고, 모든 사람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누가, 곧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어느 분야에 책임이 있는지, 누가 합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이한 기관들 사이에 엄청난 혼란과 끝없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각 기관은 자신이 맡은 특별한 과제에만 집중하고, 다른 기관의 과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통제하고 올바르게 법을 준수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며, 동시에 어느 것도 친절하고 열려 있는 인간의 마음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 줍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향하는 일차적 목표는, 힘과 세력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복지와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안녕과 번영이어야 합니다.

평가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 게 보통입니다. 대학 역시 학생들의 실력과 수준을 높여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정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로마 교황청 성서대학이 되겠습니다만, 고등교육 기관은 설립 목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서대학의 설립 목표는 최고 수준의 성서학 연구와 양성을 증진시키고, 가톨릭교회의 교육기관을 위하여 우수한 교수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는 대단히 매력적 사명이며,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의 면학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의가 지닌 또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모든 학생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조건과 요구사항은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공부는 아주 열심히 했으나, 달란트는 다소 약합니다. 그 학생의 성과는 지성적 기준에 근거해서만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존중받고 그가 공들인 노력의 시간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제 발표를 마치면서, 동정심과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예로 성서대학의 입문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서대학에 입학하려면 학생은 세 개의 입학시험에 통과해야 합니

다. 하나는 성서에 관한 전반적 지식이고, 다른 둘은 성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입학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서대학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준비를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데, 강의는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이루어집니다.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동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배우는 데만 온전히 매달려야 합니다. 많은 학생은 이 한 해가 성서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들 말합니다.

학생들은 70여 나라에서 옵니다. 그들은 성서를 더 잘 알고자 유학 옵니다. 첫 해에는 어휘와 명사 변화, 동사 활용 등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만 배워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많은 학생에게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 고대 언어를 모국어가 아닌 영어나 이탈리아어로 배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대다수 학생이 처음 외국에 머무는 터라, 이탈리아 문화와 언어에도 익숙해져야 하므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시험은 정의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준비는 동정심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 특히 성적이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아 힘들어 하고 마음 약한 학생들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존중하는 태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하고요.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에, 동정심과 친절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대학 공동체에서 수행하시는 사명이 동정심과 정의로 충만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COMPASSION AND JUSTICE

Complementary Attitudes of Respect for the Dignity of Every Human Person

It is with great pleasure I am here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Professor Johan Yeong-Sik Pakh who is my colleague in the Pontifical Biblical Commission for inviting me to Bernard Wonkil Lee Forum to give this talk. Though I have been in contact with students and colleagues from Korea for many years, this is for the first time I am visiting your country. In 1978, after four years of teaching at th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in Rome, I was called to teach at the Theological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Innsbruck in Austria where we had many young Koreans who were studying theology. Two of them chose me as their guide for their doctoral work. In fact, they were the first ones who trusted in my guidance, and they wrote their thesis in German. Later in Rome I was honoured to guide many more students from Korea. Some of these old Innsbruck students from Korea have translated one of my books and some articles to Korean language. I may be able to judge the fidelity of a translation in English or in Italian, but in the case of Korean, as you know, my only option is to have a complete confidence in the translators. In this context let me say that I always admired the Korean students who did their studies in German or in Italian; you can imagine how difficult it would have been if I had to do my studies in Korean! However, I am glad to be here at Seoul now and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to you in English.

‘Compassion and Justice’ is the topic I have received for this talk. I am asked to give some reflections on the significance of these attitudes for the formation of social

communities in the spirit of Catholic Humanism. I attempt to present below a description of these attitudes and their significance in our context.

■ *Compassion*

The word 'compassion' derives from the Latin verb 'pati' which means 'suffer' and indicates one's participation in the sufferings of other persons. A good example for true compassion is the good Samaritan in the famous parable of Jesus (Luke 10,30-37). I presume that all of us know this parable. Before the Samaritan two persons, a priest and a levite, had already seen the wounded man who was stripped and beaten by robbers and laid at the roadside half dead. But they had no compassion for him.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ir own safety and security and avoided any contact with the wounded man who was in tremendous need. The Samaritan however, seeing the wounded and his sufferings, was moved with pity. His was a heart of flesh (Eze 36,26) and it was touched by the sufferings and needs of this half dead man. But it was not an expression of feelings alone; he bandaged his wounds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Essential for real compassion are open eyes, a feeling heart and operating hands. The first step is to be interested in the persons whom I am living with or whom I meet on my ways. The second step is to have a heart for these persons, to notice their life situations, to let myself be touched by their needs and sufferings, to participate in their miseries and to be moved with pity. The third step is the real rendering of effective help which must correspond to the nature of their needs making full use of the means and possibilities I have. Decisive is the heart, the inner mental attitude. If the heart is not cold and hard and not closed with an egoistic focus on oneself, if it is sensitive to others and interested in their well-being, it will keep the eyes wide open and hands operative.

Compassion in a strict sense is related and restricted to indigent and suffering people; they need and deserve special attention, sympathy and effective help of their fellow human beings. But openness of heart, eyes and hands, which is characteristic of and essential for compassion, is an important and necessary attitude that should be developed in every human community. It is the core element of any relationship. Mutual respect, kindness, care, and tactfulness make living together smooth and joyful for all the members of a community.

■ *Justice*

The concept of justice has different meanings. In a large sense justice regards the whole behaviour of a person. Justice in this sense is the attitude of a person who does what is due and appropriate with all partners and in all situations according to the laws, commandments, customs and with equity: "The person who does justice is just (righteous)" (1 John 3,7). Taken this way, compassion shown to the wounded man in the parable is justice.

In a narrower sense justice means the administration of law by a single person, a judge, or by a court which consists of several judges. Different communities have different laws and different legislative system. The administration of law can be called just, if it is impartial and objective, without favouritism, prejudice or corruption.

All members of a community are required and obliged to observe the laws, rules and customs of their community. This observation is justice on the individual level. If all members of a community follow this justice, administration of law by courts and judges may not be required. It is the task of the legislative structures to protect the communities

against the transgressors, and settle the conflicts which may arise among single members or between a member and the community.

In this presentation we don't elaborate justice in the larger sense or justic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a legal system. Rather we shall focus on justice as the observation of the laws and customs of one's community.

■ *Justice and law*

Justice as loyal and responsible observation of the laws of one's community has a fundamental relation to the written or unwritten laws of this community. Each community has its laws. In the first part of the Christian Bible, in the Old Testament, the first five books are called "the Law". We find in these books many laws and collections of laws which regulated the life of the people of Israel in various historical situations. In this way laws belong to the tradition of each people. Normally the modern states have a constitution which illustrates the fundamental order of the life of its citizens, and they have many laws which regulate the life and behaviour of the people who live there. In these states the parliament has the authority for legislation, has the task of making new laws or changing law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situation.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in the areas of medicine, means of communication, atomic energy and so on necessitate the formulation of new laws. Justice can be understood as the observation of these laws by single persons or by groups of persons, like industrial companies. What we have described very briefly for a modern state – the existence of laws, the authority to make and change laws, the obligation to observe and fulfil laws - is valid also for all communities.

It is obvious that each one of us belongs not only to one but to many and different communities. We are citizens of our country, we belong to our family, town and region,

we are members of a religion or a church, we belong probably to a certain parish, we are here in the university as students or professors or employees, we may play soccer or tennis in a sporting club and so on. We belong to certain communities for our whole life, to others only for a limited time span. Always and everywhere we are called to be just, to respect the order, and to observe the laws and rules of the community. We can see that justice as a personal attitude is fundamental and necessary for life in communities –and we live and must live in communities. We may exempt the case of a hermit who has a solitary and isolated kind of life, staying away from all communities; but he too cannot avoid his early growing up in a family and in other communities.

■ *Justice and freedom*

Laws, rules, customs and fidelity in their observation are essential for the well-being, peace, happiness, success of all the members of a community. But the cases are not rare in which the laws are neglected or violated. There are many who consider laws and customs as obstacles for the full development of one's own personality, for the full realization of personal freedom. People who wish to act in absolute and unlimited freedom according to their ideas and sentiments, and who seek to use every possibility for their advantage, see laws as a hindrance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desires. So they try to avoid and elude the laws as much as possible. The criteria of their actions are not the laws but merely their total freedom, their desires, feelings, and eye on advantages. We notice here a tension between justice and the laws of the community on one side and total personal freedom on the other side.

In our time freedom is seen as a fundamental good and an essential right. Desire to live in freedom or to act freely is deep-rooted in human persons. But one person's attempts of

relishing his freedom by realising his plans and desires alone can sometimes become an attack on or hindrance to others' freedom. They may damage or frustrate the well-being of others. Some simple examples: normally we live in a common area, near to one another, in dwellings with thin walls, or travel in the same wagon of a train, or go for a sunbath on the same beach. One person may like to hear very loud music, others may want to have a calm and undisturbed conversation. Or one person may like to smoke and other persons cannot support smoking. If the first one acts freely according to his preferences alone it would certainly affect the freedom of others and it may even hurt and annoy them. Or in a much more serious situation: suppose a man has a nice car or a beautiful house and another man likes to have this car or this house and he is physically stronger than the first one. If the second one acts freely to satisfy his desires the first one will lose his property and will probably be injured seriously. It is, no doubt, an act of great injustice.

We can see that we have a tremendous need of customs and laws for regulating our actions and our behaviour. It is imperative that these customs and laws are to be respected and followed. In other words, each one should practise justice. Life in a community without customs, laws and justice, may end up in disorder, anarchy and violence, may be dominated by the arrogance and insolence of the stronger ones. Here we can also see the importance of such institutions as courts which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from the threats of others, settle the conflicts, enforce the observation of the laws and punish the wrongdoers.

The laws and customs and their just observation control the irrational and unjust freedom of the stronger ones and guarantee equal freedom to each member of a community. Justice is not against freedom, rather it guarantees equal freedom for all.

■ *Justice, equality, dignity*

The very existence of laws which are same for all the members of a community and which must be observed by all is a fundamental and important expression of equality and dignity of each member of the community. Age, social position, capacities, tasks, property etc. may differ from person to person but human dignity with which are connected fundamental rights, is equal for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For example: the Pope, the Holy Father, has a special task and position in the Catholic Church, but his baptism and his basic relation to God as our Father is not superior to or different from the baptism and relationship of other Christians.

The customs are developed within a community and the laws are formulated and given by a legal authority. The laws manifest and protect equality and dignity; justice, the observation of the laws, is the actual and effective recognition of this dignity. Every member, by his very existence, is endowed with this dignity; it is not given to him by any other human person or any group or community. In the same way the rights, derived basically from dignity, and are connected with the laws, are not given or granted by any person or group but are inherent in the very existence of every human person. This dignity and these rights do not depend on the good-will or sympathy or generosity of others but belong to the human person as such. Dependency – personal, social, economical, political, cultural and so on - is part of human life. One may have to depend on his family, his colleagues, his society, his country etc. as he goes forward in his life. But dignity accentuates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of the person.

Justice and laws may appear to some people as a burden or a limit to individual freedom. Bu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realise that justice, in all its expressions, is the true recognition of equal dignity,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of every member of a

given community. This fact may explain the fundamental significance of justice for the well-being and flourishing of every community.

■ ***The real base for equal dignity and justice***

According to Christian humanism the basis for this equal dignity and independence of all human beings is the immediate relationship each human person has with God. Fundamentally the existence of every human person depends on the will and love of God. All of us have received our existence and life from God. The dignity of each human person is founded on his quality as "image of God". In the first chapter of the Bible God says: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Genesis 1,26); and it is reported: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Genesis 1,27). God is the Creator and Lord of every human being.

Through the incarnation of the Son of God human nature is connected with God definitively and eternally. This fact confers a new and sublime dignity on human nature and consequently on every human being. In Jesus Christ his incarnate Son God loves every human being with infinite love. The intensity and efficacy of this love is manifested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cf. John 3,16; Romans 8,32). The human life of the Son of God shows and underlines the importance and infinite value of each human being in the eyes of God.

Another point is that God has destined every human being to eternal life. According to the plans of God the goal of human life is the participation in the everlasting divine life, the eternal personal communion with God. Our life on this earth is limited and transient,

but we in actual fact belong to eternity; this again underscores the value and importance of every human being.

We can see that equal dignity which is protected by laws and respected by justice has its ultimate foundation in this multiple, profound and intense relationship of every human person with God. In this sense justice, the respect for the inalienable dignity of every human person, is respect for God himself and his creation and redemption of human persons. Here we may also understand why the two fundamental commandments of Jesus, the commandments of love of God and love of neighbour are so intimately and strictly connected (cf. Matthew 22,37-40) and why my love for neighbour is equated with love for myself (22,39). Not my egoistic desire for so-called total freedom, but our common and shared relationship with God must guide and determine my behaviour towards my neighbour.

■ *Compassion and Justice*

We have tried to show the meaning of compassion and justice and their significance for community-life. Compassion in a strict sense means attention, sympathy, and effective help for the indigent and suffering members of a community. In a larger sense we can conceive it as openness of heart, care and concern, sensitivity, kindness to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Regarding justice we focused on the personal observation of the laws and customs of one's community.

We shall now make a brief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ssion and justice. If we understand justice in a wider sense as the attitude which is just and appropriate to all situations, compassion appears as a part of justice, for compassion is the just and

appropriate attitude to the suffering and the needy. But if we conceive justice as the personal observation of the laws, compassion is a separate and special attitude.

At the centre of both the attitudes, of compassion and of justice, is the equal dignity and the infinite value of human person which are founded on his/her relationship with God. At the centre of justice is the human person in his equal dignity insofar as this dignity is expressed and made objective in the laws and customs of a community. At the centre of compassion is the human person in the concrete situation of his life, directly and immediately. Justice has more an objective and compassion a subjective character. Justice is solid and it expresses well the independence of dignity which is intrinsic to human nature, and is not given by any person or group. But since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cannot be made objective in laws, dignity must be respected in all possible situations. Justice is directed by law, and compassion is guided by heart. But justice must not be heartless and compassion must not be merely subjective or arbitrary. Both the attitudes are necessary for the life of a community and they complement each other. Justice is fundamental; we need laws and we need to respect the laws to guarantee equality and order in a community. But we cannot always talk about the laws and try to resolve even small conflicts in a court. Compassion must be the attitude of every day life, to make all relationships kind and human, to avoid the intensification of tensions, to resolve small conflicts of interest, to realize an effective, fruitful and joyful cooperation of all members for the good of the whole community.

■ *Some personal experiences*

I have tried above to describe some important aspects of the character of compassion and justice and their mutual relationship. Now I would like to add some observations regarding

justice and compassion referring to my personal experience in living in an academic community.

During my life I have been a member of many different communities: my family, my village, my parish, the Catholic Church, my nation, my religious order (the Society of Jesus), different schools and academic communities of my formation and my activities etc.. I shall restrict here my reflection on my experience at th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PBI) in Rome.

I have 45 years of experience in this academic community. I began my life there as a student, then lecturer, professor, dean, rector, member of different academic councils – and now "professor emeritus". The PBI is a small academic community of about 300 to 400 students and about 40 professors and lecturers. It was founded in 1909, by Pope Pius X for the promotion of formation and research in biblical sciences for the whole Catholic Church. The Institute has its Statutes which are a kind of Constitution and its "Ordinationes" which give more practical directives. I must confess, especially as the Dean of the Biblical Faculty and the Rector of the Institute I was very content with and grateful to these texts for the help they provided for the smooth running of the Institute. They give clear guidelines to maintain equality, personal dignity, orderly behaviour and successful cooperation which help the realisation of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e Institute. As we know, the members of an academic community, students as well as professors, are always very productive and creative in giving opinions, theories, and propositions. There would be numerous suggestions on what to do, what to change, what would be better for research and formation. These creative suggestions certainly are of great value. But sometimes there may be proposals which are conflicting and contradictory, motivated by vested interests and emotions. In such situations it is useful and helpful for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to

have these laws as definite points of reference which can be known by all and are valid for all.

I would like to mention three topics as examples which would show the necessity of compassion and justice for the functioning and well-being of an academic community; they are reforms, competence and marks. Compassion in the sense of openness of heart, unselfishness, respect and tactfulness, is necessary always and everywhere and in all circumstances of relationships. It is like motor-oil without which a motor gets rapidly heated up and ruined. Without compassion the relationships in a community would be formal or hostile, the cooperation difficult and success limited. A lot of precious energy is wasted on futile hostilities. Kindness, esteem, benevolence are like sun and rain which make the flowers blossom.

Reforms are always desired and discussed in academic communities. The acute and vivid minds see and seek possibilities for improving teaching, research, cooperation, evaluation and so on. At the same time an undue desire for a better future may turn out to be an obstacle for the good use of the possibilities available in the present. Reforms are necessary but they must be done in the way determined by the academic laws. They can be prepared in informal discussions but should be decided and introduced only by the competent councils which the Statutes destined for this task. Sometimes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reforms may be disappointed and frustrated if their proposals have to go through such a legal process which may be long and which may modify or even reject some of their ideas.

The competence of the different academic organs must be stipulated well by the laws and must be loyally respected by everybody. It must be clearly determined who, what person or what group, is responsible for what field and who is authorized to make what decisions. Otherwise, it can cause utter confusion and unending conflicts between different

authorities. It is necessary that each authority is concentrated on its specific tasks and doesn't interfere with the tasks of others. Regulatory laws and their just observation are always important, at the same time nothing can substitute human kindness and openness of heart. Not power and prestige but the welfare of the whole community and the well-being and flourishing of all its members must be the primary aim of all efforts of all persons who are involved in this process.

Marks have a great significance for students. Normally everybody wants to get good marks. The universities too are interested in keeping up a good image through the high quality of their students. In this context too justice plays an important role. The academic institution, in my case the PBI, must respect the aim of its foundation, that is to promote research and formation in biblical sciences on a high level and to train high-quality professors for the centres of formation in the Catholic Church. This is a quite challenging mission and it would demand rather a high level of performance for awarding good marks. Another point of justice is the following: all students must be valued according to the same standards.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acquiring good marks must be the same for all of them. For example: a student may have worked very hard but his talents are rather weak. His achievements can be valued based only on intellectual norms. On the other hand he must be highly respected as a person and the value of his efforts should not be overlooked.

Concluding my talk I want to mention our propaedeutic year programme as an example for practising justice and compassion. To get an admission at PBI a student must pass three entrance examinations: one on general knowledge of the Bible, and the other two on basic knowledge of biblical Hebrew and Greek. They may get ready for these examinations as they like. The PBI offers courses for the preparation of Hebrew and Greek, which are

taught in English and Italian. Normally at least one year, completely dedicated to learn Hebrew and Greek, is necessary for a sufficient preparation. Many consider this year as the most difficult year of study at the Institute. Our students come from about 70 nations. They come to study and know the Bible and now, in the first year, they must learn only Hebrew and Greek – vocabulary, declination of nouns, conjugation of verbs etc. This is certainly a difficult time for many because these ancient languages are not taught in their mother tongue but in English or in Italian. Moreover many of them are in a foreign country for the first time and they must get used to its culture and language also. In this situation we may say: the examinations must be done according to justice, but the preparation must be guided by the spirit of compassion. All students, especially the weak students must be instructed and accompanied in a kind and respectful manner and must be continuously encouraged. They are in a difficult task and they must be helped with compassion and kindness.

Once again heartfelt thanks for the kind invitation and I wish you all the best for your mission in this academic community, let it be a mission filled with compassion and justice.

Session 2

외국인학생 연설대회 / 학생토론 대회
International Student Speech Contest / Student Debate Contest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배려와 정의

대학축제문화는 학술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대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경제 민주화는 양극화(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The Nature of Compassion and Justice in Korean Society

Rethinking College Festivals: Tipping the Balance toward Research and Scholarship
The Argument for Universal Healthcare over Privatization of Healthcare
Economic Democracy as a Cure for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The Case against Capital Punishment

Session 3

인간학 연구소 심포지엄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윤리와 사회적 책임 –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요소 | **V.G. Girish** 교수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 **안성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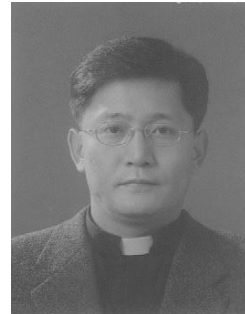
현대시에 나타난 연민과 배려 | **유성호** 교수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 Key Components for Successful Business Ventures | **Prof. V.G. Girish**

Psychopathic Offenders Magnetized: Insights from Cognitive Analysis | **Prof. Seong Jo Ahn**

Pathos and Compassion in Modern Poetry | **Prof. Sung Ho Yoo**

개 회 사 조 정 환



조정환 교수 (가톨릭대)

Rev. Jeonghwan Cho (Dean, ELP College, CUK)

〈프로필〉

- 1969년 서울 출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ELP 학부대학장
- 02-2164-4928
- 010-8593-8722
- croffaelle@catholic.ac.kr

■ 학력 및 경력

- 1992. 2. 가톨릭대학교 신학 학사
- 1994. 11. 가톨릭대학교 신학 석사
- 1995. 7. 사제 서품
- 1995. 11. 서울대교구 대치동 본당 보좌신부
- 1999. 11. 서울대교구 화곡본동 보좌신부
- 2003. 11. 로마 교황청립 테레시아눔대학 그리스도교 인간학 석사(S.T.L)
- 2005. 11. 로마 교황청립 테레시아눔대학 그리스도교 인간학 박사(S.T.D)
- 2007. 3. 가톨릭대학교 교수
- 2007. 9.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학부장
- 2010. 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장
- 2012. 3. 가톨릭대학교 ELP 학부대학장
- 2012. 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소장

■ 연구물

- 신학 안에 ‘인간학적 전환’(la svolta antropologica)과 ‘신학적 인간학’(antropologiateologica)의 태동
-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Gaudium et spes)”에 나타난 인간학적 이해
- 인간의 그리스도적인 차원에 관한 연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22항을 중심으로-
- 인간의 공동체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
- 현대 가톨릭교회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
-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 -인간 존엄성을 중심으로-
- 김수환 추기경의 사상에 나타난 인간 관계성에 대한 연구

사 회 자 이 창 봉



이창봉 교수 (가톨릭대)
Prof. Changbong Lee (CUK)

〈프로필〉

이창봉은 현재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미문화 전공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그는 1996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Conditionals as a Discourse-bound Entity: Pragmatics of Korean Conditionals”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언어학 세부 전공 분야는 화용론과 담화분석 분야이다. 이제까지 주로 한국어와 영어의 조건절에 대한 화용론 분야의 논문들을 발표하여 왔다. 최근에는 은유의 화용적 현상과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 및 영어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담화분석적 시각에서 본 언어교육 분야의 연구 주제 등에 대해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Profile〉

Chang-bong Lee is Professor of English and Linguistics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i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e got his Ph.D in linguistics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n 1996. His dissertation was titled "Conditionals as a Discourse-bound Entity: Pragmatics of Korean Conditionals." His main area of research in linguistics is pragmatics and discourse analysis. He has published articles on the topics related to pragmatic aspects of conditionals in English and Korean. Recently, his research interests have been extended to the topics in applied areas, such as pragmatic studies of metaphor,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and discourse-analytic perspectives in language teaching.

발 표 자 V.G Girish



V.G Girish 교수 (가톨릭대)
Prof. V.G. Girish (CUK)

〈Profile〉

Dr. Girish has done his Masters and Ph.D. from Visva-Bharati University, Santiniketan, India, is a Central University founded by Nobel Laureate Gurudev Rabindranath Tagore. With the prestigious Taiwan Govt. Scholarship, he has done his MBA from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nan, Taiwan. From September 2009, he is working as Full time Faculty in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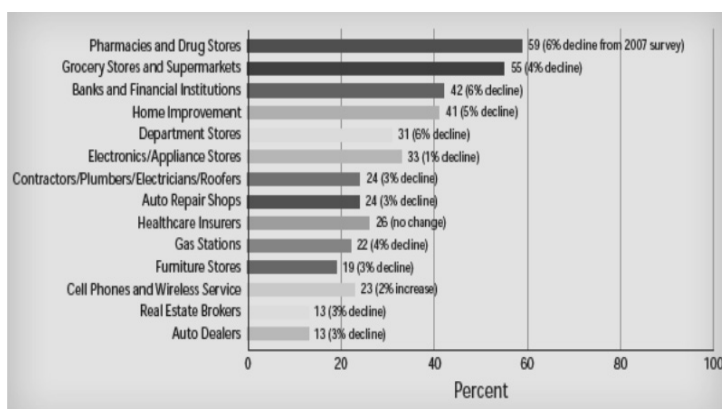
Girish, worked as Project Personnel in a Govt. of West Bengal, India sponsored project from 2000-2006. There after, for a year, he was working as Post Doctoral Fellow and Adjunct Faculty in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nan, Taiwan. He has published few research paper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Journals. His area of research is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Leadership and Cross Cultural Management. His recent research interest is on ethical issues related to multi national organizations. Running, Hiking and Photography occupies his free time and to his credit, he ran few ultra-marathon races and around fifty marathons races in the last two years.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 KEY COMPONENTS IN SUCCESSFUL BUSINESS VENTURES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business is debated very much in academic, social and business circle, these days. Past decade has seen the demise of many corporations and some industries that failed to incorporate ethics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first few years of the twenty first century, we saw the failure of Enron, WorldCom and many other firms that engaged in deception, fraud and misconduct (Fraedrich et. al.2011). Satyam Computer Services, one of the blue chip software companies of India, disclosed that \$ 1.04 billion in cash and assets did not exist and that earnings and assets were inflated for years (Heather & Bettina 2009). These days, society and stake holders watch very carefully, how the organizations are caring about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Whether it is manufacturing sector or service sector, the trust of people has decreased drastically. A Survey by Harris Interactive shows that corporate reputation is at its lowest

point in the past decade of their annual “Reputation Quotient” polls. Eighty eight percent rated the reputation of corporate America today is not good or terrible. The figure here under reflects the trust of Americans in business. This clearly indicates the substantial decline of trust

Table 1: American’s trust in Business (% of respondents)



Source: Better Business Bureau/Gallup trust in business index April 2008, <http://bbb.org/us>

among the respondents compared to that of the previous years.

The above table clearly shows that the trust of people regardless in any business is declining day by day and it is not at all healthy in business perspective. Until and unless, the ethical issues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seriously, it will definitely be a drawback for any businesses.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concern were different in different era. The table here under highlights the major issues associated with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different decades.

If the critical issues associated with ethics are not addressed carefully by the organization, in long run, the business ventures may not be successful.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organization should also be addressed carefully. No business can thrive, until and unless, they take care of the stake holders very well. To have a sustainable business paradigm, it is an organization’s obligation to maximize its positive impact on stake holders as well as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 whether they hold the primary or secondary position. A classical example, the researcher would like to explain is about Nike’s

Table2: Time line of major ethical dilemma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Environmental Issues	Employee militancy	Bribes and illegal contracting practices	Unsafe work practices in third world countries	Cyber crime
Increased Employer-Employee tension	Human rights issues	Influence peddling	Increased corporate liability for personal damage	Privacy issues (data mining)
Civil Rights issues		Deceptive Advertising	Financial mismanagement and fraud	Financial mismanagement
Changing work ethics		Financial fraud		International Corruption
Rising Drug use		Transparency Issues		Loss of privacy
				Intellectual property theft

Source: <http://www.ethics.org/resource/business-ethics-timeline> (Accessed September 15, 2012)

condition in the mid 1990s. Nike faced lots of criticism from labor rights activists, the mainstream media and others for human and labor rights violation, in its factories. In Indonesia where Korean suppliers owned a majority of Nike factories, reports by labor activists and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vealed several cases of human rights abuses and labor violations. Through the use of mass media, these conditions came to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one of the prominent instances being that of Robert Baskin's CBS report on the conditions in Nike's manufacturing facilities in Indonesia in 1993 (Fraedrich et.al 2011). Other than this, Nike also faced problems related to ethical issues in their factories in Pakistan and Vietnam too. During this period, Nike's sale affected very much and its corporate image was also tarnished very much. The author tries to pinpoint the ethical issues as well as the social responsibility aspects that may be helpful for successful business ventures.

References

Heather Timmons & Bettina Wassener, "Satyam Chief admits huge Fraud" Retrieved September 16, 2012 http://www.nytimes.com/2009/01/08/business/worldbusiness/08satyam.html?_r=1

Fraedrich, J., Ferrel, O. C, & Ferrel, L "Ethical Decision making for Business" 8th edition, Published South Western Cengage Learning

발 표 자 안 성 조



안성조 조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rof. Seongjo Ahn (Jeju National Univ.)

<프로필>

- 전문대법대 조교수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현직위)

- 연세대 법학사, 고려대 법학석사(형사법), 서울대 법학박사(형사법)

- 저서
 1.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경인문화사 2008)
 2. 기초법연구 제1권 (경인문화사, 2009)
 3. 사이코패스 I (경인문화사, 2009)
 4. 현대형법학 제1권 (경인문화사, 2011)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I.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형법적 배려?

최근 발생한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 찬반논의가 마스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중의 공분은 한 어린 아이의 일생을 파괴한 흉악 성범죄자를 어떻게 사형에 처하지 않고서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서 살 수 있게 두겠느냐는 뜻으로 보인다. 이처럼 흉악범에 대한 대중의 공분은 엄벌주의로 기울게 마련이며, 그 자체로 정당해 보인다. 동기와 관계없이 고의적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 사적인 피의보복을 인정해 왔음을 입증해 주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문헌적 증거들은 수천 년에 걸쳐 우리의 삶의 형식으로 공고히 다져진, 인간의 원초적 복수감정의 발로인 동해보복의 형벌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뿌리깊고,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며, 따라서 강력범죄에 대한 공동체의 예민한 반응은 우리 사회에 지극히 정상적인 규범의식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응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

그런데 필자는 한 논문에서 연쇄살인이나 엽기적인 강간 등을 일삼는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게도 선천적인 생물학적 결함으로 인해 도덕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들이므로 이들을 형법상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정상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고 일종의 심신장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즉,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범죄충동을 억제할 만한 계기가 적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롤즈가 말한 최소수혜자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을 정상인과 다르게 취급해 일정한 형법적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공정(fairness)으로서의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²⁾ 형벌의 역사는 복수감정을

-
- 1) 고대사회의 동해보복의 형벌관행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논의로는 안성조, 현대형법학(경인문화사, 2011), 5면 이하 참조.
 - 2) 안성조,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2008 참조. 필자의 주장에 공감하는 글로는, 김동현,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 형사책임의 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51권 제4호, 2010 참조.

억제해 온 역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오랜 동해보복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복수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응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응보’는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해 진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책임 무능력자나 한정책임능력자를 심신장애자로 분류해 이들에게는 책임의 감면이라는 일정한 형법적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형법 제10조). 그렇다면 사실 사이코패스 범죄자에게 일정한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주장은 특별히 이색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들기보다는 분노에 휩싸인 대중의 격한 복수감정에 비추어 납득하기가 아직 어려운 명제일 뿐이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에게 형법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 인지과학적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인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소위 기업사이코패스(corporate psychopath)라고 일컬어지는 법인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검토해 보고, 이들에게도 역시 자연인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형벌 역시 단순히 벌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치료적 성격의 제재가 가해져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것이 곧 ‘배려’에 의한 ‘형사정의’를 구현하는 길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II.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본 사이코패스

1. 인지과학과 마음

흔히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로 일컬어지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주로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그 주체가 되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최근 ‘융합’을 지향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개념정의를 먼저 하자면, 인지과학이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그 학문적 본질을 잘 드러내 주는 정의인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의 총체”로 규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마음”은 “의식”은 물론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겠다. 알바 노에의 인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의식이란 “느끼고 생각하며, 세계가 지각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노에의 통찰에 의하면 의식은 뇌가 홀로 만들어 내는 신경과학적 현상이 아니다. 즉, 뇌라는 신경세포들의 연합체와 그 상호작용만으로는 의식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화폐의 금전적 가치가 종잇조각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과 제도의 존재에 의존하고, 춤을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런 맥락에서 의식은 “뇌가 우리의 몸은 물론 세계와 더불어 상호작용할 때 출현하는 그 무엇”이라고 알바 노에는 설명한다. 대략적으로 “의식”과 “마음”을 동일시하는 그는 “뇌에는 마음이 없지만, 인간과 동물과 같이 생명을 지닌 유기체에는 마음이 있다.”고 주장한다.³⁾ 한 마디로 말해 마음과 뇌를 동일시하는 주류 신경과학계의 입장은 틀렸으며, 마음을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 너머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노에의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노에와 달리, 의식과 마음을 동일시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적인 것도 분명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의식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뇌”이다.

2. 마음과 뇌

우리의 일상적인 일과를 더듬어 보면, 대부분의 과정이 “무의식”적인 것들이다. 아침에 눈을 떠 욕실에 가서 무의식적으로 샤워를 하며,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식사를 한다. 그리고 집을 나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교통신호를 따르며 장애물과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걷는 등의 수없이 많은 판단과 신체적인 움직임은 놀랍게도 대부분 무의식에 의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처럼 의식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의식이 개입할 수 없는 활동을 저는 “무의식적 활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러한 무의식적 활동은 대부분 뇌의 통제를 받아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뇌는 일종의 우리 몸의 “자동조종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뇌는 비단 이러한 단순한 신체적 활동의 자동조종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희망, 꿈, 두려움, 갈망, 충동, 생각” 등의 대부분의 의식적 활동 역시 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오늘날 널리 잘 알려진 신경과학적 사실이다. 즉, 뇌조직의 일부가 손상되면 그와 관련된 의식적 활동에 수십 혹은 수백 가지의 장애가 초래되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작동방식을 보다 적절히 이해하려면 의식과 함께 무의식의 기능, 다시 말해 뇌의 작동방식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바노에/김미선 역, 뇌과학의 함정(Out of Our Heads) (깎리온, 2009), 27면 이하.

1966년 8월 1일, 찌는 듯 무더운 여름에 찰스 휘트먼이라는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텍사스 대학의 타워 꼭대기로 향하고 있었다. 총과 탄약으로 가득한 트렁크를 끌고 전망대에 오른 그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관광객들은 물론, 전망대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임신부였고, 연이은 희생자들을 구하러 달려 온 응급차 운전사도 참변을 당했다. 휘트먼은 몇 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지만, 이 사건으로 총 13명이 사망했고, 33명이 부상을 당했다. 더욱 끔찍한 일은 그가 총격을 벌이기 전 새벽에 어머니를 살해했고, 잠자던 아내까지 칼로 찔러 죽였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과연 무엇이 이토록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조사결과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최연소 보이즈카우트 단원이었고 해병대 출신에 지능검사에서 138을 받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는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요즘 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터무니없이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캐시(아내)를 오늘 밤 살해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다.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내였다. 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꼭 집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의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폭력적인 충동에 휘말릴 것 같은 두려움을 털어놓으려 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대신 나 혼자 정신적인 격동과 투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죽인 후에 다음과 같은 글도 남겼다. “사랑하는 사람 두 명을 잔인하게 죽인 것 같다. 나는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을 뿐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정신건강협회에 익명으로 기부해 주기 바란다. 이러한 유형의 비극을 막아줄 연구에 힘쓰도록 말이다.” 기술된 내용을 보면 그는 자기 내부로부터의 알 수 없는 충동과 싸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휘트먼에게 그러한 충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일까? 검시소로 옮겨져 휘트먼의 뇌를 해부한 결과 그의 뇌에는 작은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 바로 이 종양이 시상하부까지 침입해 편도체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편도체는 두려움과 공격적인 감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뇌과학자들은 이미 1800년대 후반, 편도체의 손상이 정서적,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특히 1930년대 생물학자인 하인리히 클뤼버는 폴 부시라는 원숭이를 통해, 편도체가 손상되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감정폭발 또는 과잉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이 점을 통해 보건대, 휘트먼이 가졌던 직관, 즉 뇌 안의 무엇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예측은 정확했던 것으로 보이며,

휘트먼의 충격사례는 뇌의 이상이 인간의 생각과 충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⁴⁾

신경과학과 법학의 접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휘트먼 사례와 유사한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안와전두엽에서 거대한 뇌종양이 자라자 알렉스라는 마흔살의 기혼 남자가 성적 취향에 변화를 일으켜 소아성애자가 된 예도 있고, 전두엽과 측두엽이 퇴화하는 질병인 전두측두치매라는 병을 앓는 환자들의 57%가 범법자가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강한 의지만 있다면 범죄충동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선택할 때, 모두가 “동등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합법적 행동으로의 의지가 자유롭게 발현되지 못하고, 그러한 의지의 발현이 “덜 자유로운” 사람이 존재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3. 마음 - 뇌 동일론

“영혼은 하나의 사건이다. 영혼의 장소는 뇌가 아니며, 다른 어떤 신체기관도 아니다. 영혼은 성찰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삶이 있는 곳에 있다.” - 루드비히 뷔히너, 영혼의 장소에 관하여(1916) 영혼의 장소에 관하여 일견 우리의 직관에 잘 부합되는 이러한 관점은 사실 우리의 의식이나 마음의 장소에 관해서도 대체로 동일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의식 등의 정신적인 요소들은 뇌나 신체 등의 물질적인 요소와는 구분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실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지과학의 주류적인 견해에 의하면 뇌가 자아의 거의 모든 측면을 형성한다고 본다. 이를 잘 드러내주는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냅스다.” 또는 “마음은 곧 뇌이다.”

뉴욕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조셉 루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퍼스널리티에 대한 나의 생각은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 즉 ‘당신임’의 본질은 당신의 뇌 안에 들어 있는 뉴런들 사이의 상호연결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냅스라 부르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접합부는 뇌에서 정보의 흐름과 저장이 일어나는 주 통로다. 뇌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뉴런들 사이의 시냅스전달과, 과거에 시냅스들을 거쳐 간 암호화된 정보의 소환을 통해 수행된다. 뇌

4) 휘트먼 사례는 데이비드 이글먼/김소희 역, 인코그니토(INCOGNITO) (썸앤파커스, 2011), 187-191면에 소개된 것을 재편집한 것이다.

기능에서 시냅스전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자아는 곧 시냅스다’라는 말은 사실상 자명한 이치다.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쉽게 말해 뇌세포들 사이의 통신채널 역할을 하는 시냅스가 뇌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을 담당하며, 이것이 곧 우리의 자아와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틀림없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아란 본성상 신경현상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윤리적, 심미적이며 또한 영적인 것이라며 반박할 것이다. 나의 ‘시냅스 자아(Synaptic Self)’ 이론은 이런 관점들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윤리적, 심미적이며 또한 영적인 자아가 실현되는 방식을 기술하려는 시도다.” 요컨대 르두에 의하면 자아의 본성을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현방식은 신경현상에 의해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자아가 시냅스적이라는 것은 저주일 수도 있다. 그리 어렵지 않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지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시냅스들이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성이다.”라고 결론짓는다.⁵⁾

마음은 곧 뇌라는 논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의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 스티븐 핑커는 뇌의 작동방식에 대해 “뇌의 신경세포들은 다양한 패턴으로 발화한다.”고 인상적인 설명을 남긴 바 있다. 여기서 발화란 일종의 전기방전을 말한다. 발화하는 신경세포, 즉 뉴런은 다른 뉴런으로 단순한 전기자극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경전달물질의 형태로 화학신호를 보낸다. 발화하는 뉴런에서 방출된 신경전달물질은 시냅스를 건너 연결된 다른 뉴런으로 흘러간다. 뉴런은 이 신호를 이용해 연결된 뉴런을 흥분시켜 전기활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연결된 뉴런의 활동을 억제할 수도 있다. 뉴런의 시냅스 연결 덕분에 뇌는 잘 훈련된 연주자들이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처럼 연주를 할 수 있다. 즉, 오케스트라 연주가 연주자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활동의 패턴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상호 연결된 뉴런들이 협동해서 발화하는 활동의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생각만이 아니다. 우리의 지각, 학습, 기억, 추론, 언어, 의식, 정신의 질병, 감정 등이 모두 뇌의 신경과정, 다시 말해 신경세포들 간 혹은 신경세포집단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본다. 심지어 개념마저도 신경활동의 패턴이라고 이해한다. 이들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현상으로 체험되는 것들 중에서 뇌에 의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까지 보는 듯싶다. 이를 일컬어 “마음-뇌 동일론”이라고 말한다. 폴

5) 조지프 르두/강봉균 역, 시냅스와 자아(Synaptic Self) (소소, 2005) 참조.

새가드는 “마음-뇌 동일론”이 과학의 진보에 자취를 남긴 수많은 동일성 증명이론들, 예컨대 “소리는 파동이고”, “연소는 산소와의 화학적 결합이며”, “물은 H₂O이고”, “열은 분자운동이며”, “번개는 전기방전으로”, 그리고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다른 동일성 이론들의 뒤를 잇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시냅스 자아 이론이든, 마음-뇌 동일론이든 현대 인지신경과학의 주류적 입장을 살펴보면 뉴런(집단)의 활동패턴이 곧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4. ‘마음-뇌 동일론’과 사이코패스

필자는 한 저서를 통해 PCL-R을 충족시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소위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치료감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이코패스의 뇌는 신경생물학적으로 자신의 범죄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⁶⁾ 이처럼 선천적으로 생물학적 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에게는 여타의 정신장애자와 마찬가지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성격장애는 정신장애와 동등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처럼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강한 성격장애는 분명 뇌의 신경기능이상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시냅스 자아이론이나 마음-뇌 동일론은 이러한 주장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도 분명 뇌기능의 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자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상식적이며,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사이코패스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공감능력 결여라는 병리적 특성이 거울뉴런(mirror neurons)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⁷⁾ 왜냐하면 거울뉴런은 타인이 해를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이해하여 타인을 해치지 않을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감능력의 결여라는 성격적 특성도 순전히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의 실패나 부도덕한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장애일 수 있다는 것이다.

6) 안성조·서상문, 사이코패스 I - 범죄충동·원인론·책임능력 - (경인문화사, 2009) 참조.

7) 폴 새가드/김미선 역, 뇌와 삶의 의미 (필로소픽, 2011), 304면 참조.

Ⅲ. 법인의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1. 마음의 사회

마음에 관한 인지과학적 접근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인공지능의 권위자 마빈 민스키는 ‘마음의 사회(The Society of Mind)’란 책에서 인간의 마음을 “서브에이전트(subagent)들이 기계처럼 연결된 거대한 총합”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여기에서 서브에이전트란 어떤 문제를 나누어 맡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무수히 많은 하위 주체들이 모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마음이란 사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하위주체 혼자서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는 “각각의 하위 주체는 지극히 단순한 일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들을 모아 특별한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면 이는 특정한 지능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이를 자동차 생산공정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 각각의 조립라인은 궁극적으로 완성된 자동차 생산을 위해 특화된 것이다. 이 때 각각의 조립라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일꾼은 없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분업화, 조직화된 생산라인은 하나의 완제품을 훌륭하게 생산해 낸다. 민스키에 의하면, 마음 곧 뇌의 작동방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방어하는 데 개입된 과정들은 수천, 수백만 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지극히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평범한 상식’으로 여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다니, 다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즉 뇌가 이렇게 서브에이전트들의 총합으로 작동한다면, 우리의 뇌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전부 인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개구리에게는 동작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시스템은 개구리가 파리처럼 날아가는 작은 물체를 보면 혀로 잡아채게 만든다. 둘째 시스템은 어렵פות이 나타나는 커다란 물체를 보면 힘껏 점프하도록 주문한다. 두 시스템은 그 어떤 것도 의식적이지 않고 단지 개구리의 뇌에 새겨진 자동화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동화 된 서브에이전트들이 모여 개구리의 마음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일종의 행동특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 협력과 경쟁하는 마음들로 이루어진 뇌

다만 민스키의 마음의 사회라는 설명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각각의 서브에이전트들이 자동화된 생산공정처럼 반드시 협력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 서브에이전트들은 상호 경쟁을 한다. 예컨대 우리는 스타벅스에서 맛있는 화이트초콜릿 모카를 보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뇌의 일부는 초콜릿에 담긴 풍부한 열량을 갈망하도록 진화되었지만, 반대로 뇌의 일부는 배가 나오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할 것이다. 즉 우리 마음의 일부는 초콜릿을 갈망하고, 다른 일부는 이를 외면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서브에이전트들의 경쟁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갈등을 한다는 것은 단일한 프로그램만을 가진 주체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말이다. 휴일 오전에 운전대를 잡고, 어디로 갈 지 갈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결코 우리의 자동차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두 개 이상의 마음을 먹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각각의 서브에이전트들은 공통된 목표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유기체의 번영과 생존이다. 즉,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뇌의 각 서브에이전트들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경쟁을 하게 된다. 예컨대 앞의 개구리 사례에서 어떤 물체의 크기가 개구리에게는 작다고도 크다고도 보기 모호한 경우에 있어서 개구리의 서브에이전트들은 상호 경쟁을 할 것이다.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달아날 것인지! 그리고 그 경쟁의 균형점은 시행착오에 의해 자연선택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마음의 서브에이전트들은 협력과 경쟁만 하는 것도 아니다. 협상도 한다. 스타벅스 초콜릿 사례에서 만일 당장의 유혹에 못 이겨 초콜릿을 먹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바로 다음 날 헬스장에 가기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도달하게 되는 일종의 협상결과인 셈이다. 한 마디로 우리의 뇌란 라이벌 팀들로 이루어진 경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⁸⁾

3. 뇌에서 의식의 역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다양한 서브에이전트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면, 굳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8) “뇌는 라이벌들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명제는 데이비드 이글먼/김소희 역, 앞의 책, 184면을 참조한 것이다.

의식은 한 회사의 CEO와 같다. 업무분담에 의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관리·감독하면서 보다 고차원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를 할당하며,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듯이 바로 의식도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조정이 필요할 때만 출현한다는 것이다. 서브에이전트들에 의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자동적으로 잘 돌아갈 경우 의식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의식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평상시에는 의식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자신이 갑작스럽게 발표할 논문이나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결정해야 한다든지, 투표를 해야 한다든지,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이직을 해야 한다든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극히 의식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처하게 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의식의 존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서브에이전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동물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는 사용하지만, 인지적으로는 유연하지 못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단순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려는 목표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무에서 열매를 능숙하게 잘 따고, 사냥감을 잘 잡는 동물은 많아도 보다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 나무를 심거나 가축을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지적 유연성을 갖춘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은 의식이 전체 신경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가장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⁹⁾

4. 인지과학적으로 재구성된 마음의 관점에서 본 법인의 범죄능력

필자는 한 저서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할 수 있고 긍정해야 한다고 입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법인의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주류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비일관적이고 부자연스런 논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주된 논지는 법인에게는 자연인과 같은 의사와 육체를 관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논지를 고수할 경우, 유럽의 중세시기부터 18세기까지의 소송기록에 도시나 행정구역(Gemeinde) 및 조합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또한 종종 소나 말과 같은 가축도 법정에 설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

9) 뇌에서 의식의 역할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이글먼/김소희 역, 앞의 책, 173면 이하 참조.

도 웃음거리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위 저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즉 범죄능력 유무는 우리와 “인격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와 ‘삶의 형식(Lebensform)’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삶에서 죄와 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삶의 형식’이란 본래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한 개념이나, 그보다 ‘확장된 의미의 용어’로서 “인간이라는 종에 특수한 규범적 제약조건으로, 인간에 대한 형사처벌이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사회문화적·생물학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우리 종에 특수한 공통된 배경”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로봇과 동물, 그리고 (영화 속) 외계고등생명체 등은 우리와 인격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고, 복제인간이나 쌍둥이 지구인(twin earthling)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마찬가지로 범인도 우리와 삶의 형식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형식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이상, 죄와 형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범죄능력을 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이론구성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범인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단일한 인격체로서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다른 마음의 문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식의 해결처럼,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⁰⁾ 인식론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동일한 통일된 인격체로서의 마음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단지 우리의 삶에 깔리는 전제로서, 우리의 삶과 맞물려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울부짖은 사람을 보며, 그의 고통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아프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의심할 수는 없다. “그를 향한 나의 태도는 한 영혼에 대한 태도이다. 나는 그가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갈래의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와 삶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범인의 활동을 보면, 범인에게도 그 어떤 마음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지과학과 심리철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다니엘 데닛은 이러한 태도를 ‘지향적 자세(intentional stance)’라 부른 바 있다. 데닛에 의하면 지향적 자세란 “어떤 대상(사람이나 동물 또는 인공물 등)의 행위를 그 대상이 스스로의 믿음과 욕구를 고려하여 행위를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 아래 이해하는 전략”이다.¹¹⁾ 이것은 일종의 의인화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수

10) 이 점에 대해서는 안성조, 앞의 책(현대 형법학), 471면 이하 참조.

11) 다니엘 데닛/이희재 역, 마음의 진화 (사이언스 북스, 2006) 참조.

수끼끼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데넷은 예측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법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마음을 가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심하기 힘들 정도로 분명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확실성이 있다. 인지과학은 마음의 물질적 토대로서 뇌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마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뇌의 조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런(집단)과 시냅스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에게도 이러한 뇌의 조건과 유사한 대응물이 존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 간 혹은 내부 하위 부서 간 위계적 혹은 수평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의 고도로 조직화된 구조는 우리의 뇌의 구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우선 개개의 직원들과 전문화된 부서는 뉴런(집단)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은 다양한 연결망, 즉 시냅스 연결처럼 예컨대 인트라넷이나 내부 소통시스템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각각의 하위부서는 상호 협력, 경쟁, 협상하며 뇌의 서브에이전트들처럼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러한 개별 기능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법인의 통일된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법인이 어떠한 문제에 당면하면 CEO나 이사회에 결단이 요구되듯이 뇌 또한 의식이 출현하여 서브에이전트들을 조율한다는 점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처럼 뇌조직과 법인의 인적·물적 구성요소 간의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하면 법인에게 통일된 인격체로서의 마음을 전제하는 것이 단순한 의인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의심하기 힘든 사실이란 점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인지과학적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러한 철학적 통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그와 같은 통찰을 가능케 해 주는 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거울뉴런의 정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바로 거울뉴런 때문임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냉대지방의 원주민 조상들이 따뜻한 털을 가진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으로 만들어 입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거울뉴런 덕분이다. 이는 우리의 심오한 철학적 통찰의 일부도 분명 신경과학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5. 기업사이코패시

기업가들 혹은 일부 학자들은 대부분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 기업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는 결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

은 해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결코 법인에게 형사법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자연인 사이코패스에게 형법적으로 책임감면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면, 법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법적 효과를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여러 이론들에 의하면 기업 내부에서 유책한 자연인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기업자체를 형사소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회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는 법인에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생각이다. 기업범죄가 발생했을 때 유책한 행위자를 찾아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받으며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게 되는 사례를 고려하면, 차라리 형사소추는 쉽게 하되 형사소송에서 기업의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자신에게 오히려 득이 된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형법적 장치의 하나가 바로 법인의 책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영리추구를 기업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기업들의 행태가 사이코패스의 행동패턴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최근 널리 제기되고 있다. “기업사이코패시(corporate psychopathy)”란 개념을 입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위에 무책임하며, 타인을 조종하는데 능하고, 과장이 심하며, 공감능력이 결여된 데다가, 후회나 죄책감이 없다.¹²⁾ 이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타당한 사회규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황금률, 즉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는 자연법적 명령조차도 아무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는 행위준칙이 더 근본적으로 기능한다.¹³⁾ 이러한 행동특성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특성과도 일치하는데,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헤어(Robert D. Hare)에 의하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만 몰두할 뿐 타인에게 어떤 위험이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무책임하고’, 여론 등을 ‘조종하는데 능하고’ 언제나 자신들의 상품이 최고이며 넘버원이라고 ‘과장이 심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더라도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그들의 고통에 피상적으로만 반응하고, ‘죄책감이 없어’ 법을 어긴 경우 벌금을 내고 난 후에는 또 예전처럼 행동한다. 심지어 종종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기업의 공익적 활동마저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기업이익을 극대화시키

12) Robert D. Hare, *Without Consc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9), 33-56면; 안성조·서상문 공저, *사이코패스 I - 범죄충동·원인론·책임능력* - (경인문화사, 2009), 133-136면.

13) 이러한 지적으로는 Montague Ullman, *Corporate Psychopathy*, 2004를 참조할 것. 관련 사이트로는 http://siivola.org/monte/papers_grouped/uncopyrighted/Misc/corporate_psychopathy.htm.

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타인을 매료시키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위협스러운 성격을 교묘하게 감추는데 능한 사이코패스의 악명높은 특성과 일치한다고 지적한다.¹⁴⁾ 이러한 특성은 기업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기업 경영진 등의 특성일 수도 있다.¹⁵⁾ 단, 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조직 내에서는 사이코패스적으로 행동하게 되지만, 조직 밖에서는 분명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헤어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나, 그들이 회사의 운영자(operatives)로서 행동할 때에 나타나는 행동특성들 중 많은 부분이 사이코패스적일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업 경영자들은 조직 내부의 생활에 필요한 도덕률과 조직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률을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compartmentalize)” 능력으로 인해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포드 핀토 사건이 있다. 잘 알려진 기업가 리 아이아코카(Lee Iacocca)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으로서는 포드의 중역들과 함께 차량 한 대당 11달러만 들이면 차의 가스탱크를 교체하여 추돌 사고가 났을 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많은 인명사고와 부상사고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다. 사실 이 기계적 결함은 1970년 포드사의 자체 사전 생산테스트에서 드러났지만, 포드 중역들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가 추정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제학적 비용을 근거로 비용편익분석을 했고, 그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망자 한 명당 20만 725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포드의 중역들은 '충돌에 의한 연료누출 및 화재와 관련된 사망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14) Joel Bakan, *The Corporation: The Pathological Pursuit of Profit and Power* (London: Constable, 2004), 57면.

15) 1996년 옥스퍼드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국의 회사 경영자 6명 중 1명이 사이코패스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리타 카터(Rita Carter)/양영철·이양희 역, 뇌: 맵핑마인드(Mapping the mind) (말글빛냄, 2007), 184면.

16) Joel Bakan, 앞의 책, 56면 참조. 여기서 바칸은 헤어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세계적인 친환경 천연화장품업체인 바디샵(Bodyshop)의 창설자인 아니타 로딕(Anita Roddick)은 경영자들의 이러한 특성을 일종의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동지의 Chester I. Barnard,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263면. 미국의 탁월한 조직이론가이자 기업가였던 체스터 바나드는 이 책에서 사람들은 몇 개의 양립불가능한 도덕률을 지닐 수 있는데, 가족과 종교 등의 사생활에서의 도덕률과 사업상의 도덕률은 상당히 다르며, 따라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사람에게 일요일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이 평일에 회사에서는 매우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 연료탱크를 고치지 않았을 때 폭발할 2,100대의 자동차에서 예상되는 180명의 사망자와 180명의 심각한 화상환자들에 대한 추정 보상비용보다 연료탱크를 고치는 비용이 거의 세 배가 높다고 산정했다. 이에 따라서 결국 포드는 차량의 결함을 바로잡지 않는 쪽을 택했다. 문제의 핀토(Pinto) 자동차는 8년 동안 생산, 판매되었다.

1978년 길레스피 부인(Mrs. Gillespie)은 포드사의 핀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 고 있었다. 카브레이터의 이상으로 엔진이 정지되었으며, 후방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 하였다. 연료탱크로부터 연료가 새어나와 승용차 실내로 유입되었고 전기배선의 스파크로 인해 차량이 폭발하였다.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화상으로 사망하였다. 동승했던 13세의 로비 칼튼(Robbie Carlton)은 전신에 80도 화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부인의 남편 길레스피는 포드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포드의 경영진은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의 소형차 시장을 위협했던 폭스바겐과 경쟁하기 위해 핀토 자동차를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후방 충돌 시 연료탱크가 터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기존의 연료 탱크보다 더 안전한 연료 탱크로 교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비용이 높다는 이유와 개발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사실을 묵인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포드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포드 핀토 차량의 연료 탱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경영진에게 알려졌으며, 한 대당 리콜 비용을 11 달러, 리콜 차량 대수를 1250만대, 인명피해 비용을 일인당 20만 달러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하였다고 한다.¹⁷⁾ 그 결과 결함을 감추는 것이 이익으로 판단되어 리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 포드는 피해자에게 2,500,000 달러의 배상금과 리콜을 고의로

17) “Fatalities Associated with Crash-Induced Fuel Leakage and Fires”란 제목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다.

Cost/Benefit Analysis	
BENEFITS	
Savings: 180 burn deaths, 180 serious burn injuries, 2,100 burned vehicles.	
Unit Cost: \$200,000 per death, \$67,000 per injury, \$700 per vehicle.	
Total Benefit: $180 \times (\$200,000) + 180 \times (\$67,000) + 2,100 \times (\$700) = \$49.5$ million.	
COSTS	
Sales: 11 million cars, 1.5 million light trucks.	
Unit Cost: \$11 per car, \$11 per truck.	
Total Cost: $11,000,000 \times (\$11) + 1,500,000 \times (\$11) = \$137$ million.	
Costs	\$137.5 million
Benefits	\$49.5 million
Difference	\$ 88.0 million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500,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금을 지불하게 되었다(Gillespie v. Ford Motor Corp., 1978).

위 사례는 정상적인 사람도 기업조직 내에서는 개인으로서의 합리적 판단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사이코패스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개인적인 합리성과 기업의 합리성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개인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지만¹⁸⁾ 기업의 조직적 합리성(organizational rationality)이 구성원들과 리더들의 합리성을 단순히 합한 것(simple sum)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¹⁹⁾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무엇이 포드의 중역들을 사이코패스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것인지 추론할 수 있다. 경영자 개개인은 조직 밖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그들을 조직 내에서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것은 바로 기업조직 자체 혹은 기업의 구조적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관점을 달리하면, 어떤 면에서는 경영자들이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적 기업이 경영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과 사이코패스 사이에는 중요한 유사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범죄적 성향의 치료가 힘들다는 점이다. 사이코패스의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관련 연구문헌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범죄의 경우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이상 처벌받은 전문경영인들이 석방 후 원상복귀하거나 유, 무형의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직 내 비난은 물론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벌이 위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범죄를 통해 획득하는 이익이 그 구성원 개인의 처벌을 보상해 주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클 경우에는 범법행위를 억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꺼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한다.²⁰⁾ 이처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범법행위가 묵인되거나 조장되는 조직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기업의 병리적일 만큼 맹목적인 영리추구 경향은 사이코패스처럼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전 사회적인 경계의 시각에서 기업범죄를 예방, 엄단하기 위한 강력한 형사법적 규제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

18) J. Tomkins, B. Victor, & R. Adler, Psycholegal Aspects of Organizational Behaviour: Assessing and Controlling Risk, in: D.K. Kagehiro & W.S. Lauf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Law (New York: Springer-Verlag, 1992), 526면 참조.

19) Elizabeth Wolgast, Ethics on an Artificial Person: Lost Responsibility in Professions and Organizatio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87면 참조.

20) J. Tomkins, B. Victor, & R. Adler, 앞의 논문, 527면;

한 것은 만일 기업사이코패시가 자연인 사이코패스처럼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조직구조적, 혹은 사회환경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형법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기업이라고 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여론의 포화가 거세다고 하여 책임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형법이론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형사법적인 차원에서 법인 사이코패스 범죄의 경우에도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며, 그것이 또한 형사정의에 부합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V. 자연인과 법인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 치료와 전사회적 관심

1. 자연인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

자연인 사이코패스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법적 규제방식은 이들에게 심신장애를 인정하고 책임무능력이나 한정책임능력을 긍정해 형벌을 감경해 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들을 치료감호에 처해(치료감호법 제2조 1항) 또 다른 재범을 방지하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다.²¹⁾ 물론 사이코패스의 치료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회의적인 견해에 의하면 사이코패스의 치료는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사회로부터의 엄격한 격리와 사형 등의 엄벌주의적 대응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이코패스의 치료가능성을 긍정하는 연구결과도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life-long)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시가 주로 ‘뇌의 문제’라는 ‘뇌-마음 동일론’을 - 비록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간의 신경과 지각에는 ‘가소성(plasticity)’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평생동안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²²⁾ 이들에 대한 치료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형사적으로 치료적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²³⁾ 이러한 결론은 만일 법인 사이코패스의 치료가능성도 긍정할 수 있다면 법인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이하에서는 법인 사이

21) 사이코패스에 대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공감하는 글로는, 이상돈, 형법강의(법문사, 2010), 404면 이하 참조.

22) 뇌가소성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이글먼/김소희 역, 앞의 책, 224면 참조.

23) 안성조, 앞의 책, 552면 이하 참조.

코패시의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이를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자연인 사이코패시의 원인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법인 사이코패스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대책을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기업사이코패시의 치료가능성

자, 그러면 만일 어느 기업조직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에 대한 윤리적 회복능력을 복구하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강도 높은 윤리규정과 윤리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자정적 노력을 기울이면 기업의 사이코패시적 성향이 개선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경영학과 조직(행동)학, 그리고 조직심리학에서는 (기업)조직의 변화가능성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즉, (기업)조직은 외부적, 내부적 환경의 요청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든지 다각도로 체질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다만 조직은 대체로 권력구조나 문화 등에 있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개인적, 집단적, 조직적 저항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지적할 뿐이다. 이러한 견해는 어느 한 기업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차원에서는 분명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기업의 윤리적 체질개선도 표준적인 조직변화모델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인 사이코패스의 경우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들도 있을 정도로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듯이, 기업사이코패시의 치료도 표준적인 조직변화이론만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²⁵⁾

치료를 위해서는 병변(病變)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병인(病因)을 구명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사이코패시의 원인과 관련하여 법심리학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법심리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조직적 맥락에서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 in organizational contexts)은 개인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과

24) 대표적으로 폴 뮤친스키(Paul M. Muchinsky)/유태용 역, 「산업 및 조직심리학(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시그마프레스, 2007), 376면 이하; 박영배, 「현대조직행동관리-조직행동과 다문화 관리-」(청람, 2010), 476면 이하; 이필상 외 2인 공저, 앞의 책, 172-174면; 조동성, 앞의 책, 656면 이하 참조.

25) 이는 자연인 사이코패스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표준적인 범죄원인론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다.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연구문헌으로는 안성조, 사이코패스의 범죄충동과 통제 이론, 「경찰법연구」 제6권 제1호, 2008 참조.

는 차이가 있다. 쉬운 예로서 기업 경영자들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른 관점을 보인다. 즉 이들은 사생활에서는 결코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강하다.²⁶⁾ 경영자들은 수익의 가능성(likelihood of gain)에만 특별한 관심이 있고, 위험은 단지 손실의 위협(threat of a loss)으로만 인식한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위험이 일차적으로 가능성 개념(probability)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험은 단지 부정적 결과의 정도(extent)를 반영할 뿐이며, 바로 그 정도에 의해 가중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조직적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긍정적인 의사결정으로 평가되며, 반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에 기초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더라도 손실을 가져오면 이것은 부정적인 의사결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²⁷⁾ 이는 전술한 포드의 핀토자동차 사건에서 경영진이 사이코패스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집단심리학적 메커니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조직 내 경영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병리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설명이 제시될 수 있다.²⁸⁾

일반적으로 기업은 개인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에서 기업차원의 결정이 인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부도덕하게 내려진 것은 기업의 조직적인 합리성(organizational rationality)은 구성원들 또는 리더들의 합리성을 단순히 합산한 것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³⁰⁾ 다시 말해 위 포드사 중역들의 결정은 개인적으로는 부도덕한 것일지 몰라도, 기업조직의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적 차원의 합리성이 개인의 합리성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간 극심한 경쟁과 이윤추구를 부추기는 경영환경

26) J. Tomkins, B. Victor, & R. Adler, 앞의 논문, 532-533면 참조.

27) J. Tomkins, B. Victor, & R. Adler, 앞의 논문, 533면.

28) 일반적으로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경영자 개인의 의사결정도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즉, 경영자는 시간제약 및 판단해야 할 정보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며, 그러므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철저히 검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찾으면 최적의 대안을 찾는 작업을 멈추고 이를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안의 선택에 만족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동성, 앞의 책, 365-366면.

29) J. Tomkins, B. Victor, & R. Adler, 앞의 논문, 526면 참조.

30) Elizabeth Wolgast, Ethics on an Artificial Person: Lost Responsibility in Professions and Organizatio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87면 참조.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이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³¹⁾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노동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자본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³²⁾도 커지게 되고, 자본재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하거나 해외에 진출해 생산설비를 확충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³³⁾ 이와 같은 경영환경 속에서는 기업은 더욱 극심한 생존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개인적 의사결정과는 달리 기업의 조직차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두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집단사고(groupthink)’의 결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집단사고란 일종의 병리적인 의사결정 현상으로서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집단 내 의사의 만장일치 추구경향이 강력할 때, 달리 행동할 수 있는 대안들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실패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개별 구성원들의 판단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결정을 집단이 선택하는 현상이다. 즉, 집단적 의사결정의 본래 취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의견일치를 추구한 결과 역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³⁴⁾ 같은 맥락에서 집단

-
- 31)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자동화된 기계, 로봇, 컴퓨터로 조작되는 정밀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전체 자동차 생산비용에서 노동자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자동차, 항공기, 전기, 전자, 철강, 화학산업이 모두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장세진, 「글로벌경영」(박영사, 2010), 14-15면 참조.
- 32) 규모의 경제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투입량의 증가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증가하고 따라서 시장점유율도 높일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은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이다. 규모의 경제는 대량생산에 의해 1단위당 일반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예컨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여 동일한 자동차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제품의 경우, 여러 기업이 생산하면 평균비용이 매우 높아지므로 한 개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규모의 경제에 의해 독점이 되는 경우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벤 버냉키·로버트 프랭크(Ben S. Bernanke & Robert H. Frank)/곽노선·왕규호 역,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McGraw-Hill Korea, 2006), 310면 참조.
- 33) 규모의 경제와 M&A 및 기업 글로벌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화진·송옥렬, 기업인수합병(박영사, 2007), 11면과 장세진, 앞의 책, 14-15면 참조.
- 34) 집단사고에 대해서는 폴 스펙터(Paul E. Spector)/박동건 역, 「산업 및 조직심리학(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학지사, 2009), 471면 이하; 홍대식 편저, 「사회심리학」(박영사, 1994), 607면 이하; 한덕웅 외 7인 공저, 「사회심리학」(학지사, 2005), 266면 이하 참조. 집단사고 개념을 발전시킨 문헌으로는 Irving L. Janis, Victims of groupthink(Boston, MA: Houghton Mifflin, 1972) 참조.

사고는 집단 내부의 동조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능력, 현실감증, 도덕판단 등의 감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³⁵⁾ 집단사고의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 케네디 정부의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쿠바 피그스만 침공 결정, 역사상 최악의 우주선 폭발사고를 가져온 미항공우주국(NASA)의 챌린저호 발사결정³⁶⁾,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전의 백화점 간부회의³⁷⁾ 등이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포드의 중역들이 사이코패스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은 집단사고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⁸⁾

기업조직의 사이코패스적 의사결정과 관련해 덧붙여 지적해 둘 필요가 있는 개념으로서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단적 의사결정은 개인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집단은 개인보다 더 모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과 집단의 의견을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집단의 의견이 개인의 의견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더 컸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모험이행(risky shift)이라고 한다. 반면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집단의 의사결정이 개인보다 반드시 더 모험적인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주의 깊고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를 보수이행(conservative shift)이라고 한다. 이처럼 집단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모험 쪽이든 보수 쪽이든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바로 집단극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모험이행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보수이행을 하게 되는가?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그 변화의 방향이 최초의 지배적인 의견이 어느 쪽에 있었느냐에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즉 집단적 토의를 거친 후 집단 반응의 평균은 집단이 되기 이전 개인반응의 평균과 같은 방향이지만,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집단의 의사결정이

35) 다넬슨 R. 포시즈(Donelson R. Forsyth)/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실 역, 「집단심리(An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성원사, 1991), 438면 참조.

36) 추운 날씨가 심각한 기계적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영하의 온도에서 챌린저호를 발사하기로 결정했다.

37) 삼풍백화점 간부들은 주로 회장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었고, 당시의 상황이 매우 긴박했으며, 회장의 걱정을 우려해 영업중지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건의하지 못했고, 붕괴가능성 등 여러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백화점 보수시기와 방법만을 논의하다가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덕웅 외 7인 공저, 앞의 책, 268-269면 참조.

38) 여기서 과연 포드사 중역들의 결정이 어느 방식의 설명에 더 부합되는지 는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도덕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볼 때, 집단적으로 사이코패스적 행동특성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앞의 두 가지 설명방식은 기업사이코패스란 개념을 지지해 주는 이론적으로 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 이 문제는 포드사 중역들의 개인적인 혹은 공동의 형사책임을 논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험이행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책임확산이론, 지도력이론, 친숙화이론, 가치이론 등이 제시되어 있다. 책임확산이론은 집단성원들이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 책임감을 덜 지각하게 되고, 모험적인 결정을 해도 덜 불안해 하기 때문이라는 이론이고, 지도력이론은 더 모험적인 사람이 더 큰 설득력과 자신감을 가지며,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 주장과 개입을 하게 되어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친숙화이론은 타인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 문제에 더 친숙해지고, 더 친숙해지면 불확실성이 감소되어 더 모험적인 대안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가치이론은 많은 문화권에서 모험을 추구하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므로 참여자들 스스로가 모험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모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이에 동조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집단극화도 집단사고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³⁹⁾

한편 기업이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 경영자들의 병리적 의사결정 성향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를 독립적 개별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조직의 기능을 분권화 시키고 있는 현대 기업에서는 전문화된 각 부서의 책임자도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이들의 의사결정도 병리적 이윤추구 성향을 벗어나기 힘든 조건 하에 놓여 있다면 기업사 이코패스의 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 대한 분석으로서 현대 기업조직의 분권화, 전문화로 인해 기업 내 업무가 기능적으로 분화돼 역할이 전문화되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유책한 책임자를 찾아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 구성원들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조장된다는 설명이 있다. 즉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기업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귀속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분업과 전문화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 각자는 전체업무의 작은 일부만 수행한다. 실제로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누구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거나 떠맡을 수 없다. 죄인 없는 죄, 범인 없는 범죄, 범인 없는 책임이 발생한다(guilt without culprit)!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은 떠다니게(floating) 되고,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⁴⁰⁾ 예

39) 이상 집단극화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넬슨 R. 포시즈(Donelson R. Forsyth)/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실 역, 앞의 책, 455-467면; 한덕웅 외 7인 공저, 앞의 책, 261-266면 참조.

40) Zygmunt Bauman, Postmodern Ethics(Cambridge, Mass.: Blackwell Publishers, 1994), 18-19면. 바우만은 영국 리즈대학 사회학 교수를 역임했고, 근대성과 홀로코스트, 탈근대성과 소비주의, 윤리학 등에 탁

를 들어 천문학적 손해배상으로 유명한 미국의 달콘실드 사건⁴¹⁾에서 법원은 달콘실드의 제조업체인 A.H. 로빈스 내에서 정확히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달콘실드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피임기구의 안전성 문제가 의료부서 책임이라고 설명했던 반면 의료부서의 대표자는 품질관리부서가 맡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고, 또 품질관리부서 대표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각 부서 담당자들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법적 책임유무를 명확히 판단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현대의 관료제적 기업조직은 기능적 라인에 따라 정보를 분여한다(bureaucratic organizations parcel out information along functional lines).⁴²⁾ 따라서 책임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역할이 전문화되고 정보가 분여돼 있는 기업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회사의 이름하에(in the name of corporations) 업무를 수행한 것이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⁴³⁾ 한 마디로 조직적 무책임(organisierte Unverantwortlichkeit)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구성원들은 회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구실로 죄책감 없이 사이코패스적 행동을 자행하기 쉬워진다.

이상 기업이 사이코패스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헤어의 진단처럼 경영자 개개인은 조직 밖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로 하여금 병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만드는 원인은 첫째, 맹목적 이윤추구와 적자생존적 생존경쟁을 부추기는 경영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동도 기업차원의 결정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합리화 될 수 있다. 둘째, 집단사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집단사고의 원인으로는 강한 응집력으로 조금하게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려는 집단 내부의 동조압력, 외부 전문가들로부터의 격리, 강력한 리더의 지시 등

월한 업적을 남겼다.

41) 자궁 내 피임기구로 이 기구를 사용한 여성들 중에서 수천 명이 불임, 유산 및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및 소송결과와 이에 대한 기업 윤리적 분석과 평가로는 로버트 F. 하틀리(Robert F. Hartley)/e매니지먼트(주) 역, 앞의 책, 326-342면 참조.

42) Palmer v. A.H. Robins Co., 684 P.2d 187(Colo. 1984). 이 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로 David Luban, *Lawyers and Justice*(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123-124면.

43) Herbert C. Kelman & V. Lee Hamilton, *Crimes of Obedience: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195-210면 참조.

이 있다.⁴⁴⁾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집단사고는 강력한 리더가 있는 매우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그 리더가 좋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 순응과 조화를 유지하려는 내부적 압력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압도할 때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가능성은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 외부의 비판적 의견과 영향력에서 고립될 때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다.⁴⁵⁾ 이처럼 이윤극대화를 부추기는 기업의 외부적 환경과 기업 내부의 결함 있는 의사결정 구조는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을 사이코패스처럼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현대 기업조직의 전문화, 분권화도 역시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인해 조직적 무책임을 야기함으로써 기업 구성원들의 병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쉽다는 점에서 기업사이코패시의 한 원인으로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기업사이코패시의 원인은 기업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요구하는 외부적 경영환경과 집단사고를 유발하는 기업 내부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적 무책임을 발생시키는 분권화된 조직구조, 이상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앞서 살펴본 기업사이코패시의 원인을 보면 기업에 윤리적 회복력이 있고, 조직변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치료하는 데에는 분명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기업사이코패시의 세 가지 원인 중에서 비교적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비합리적 의사결정구조뿐이다. 집단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널리 연구,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조금만 만장일치를 억제하고, 리더가 특정한 의견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도록 고무시키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만들고, 집단 내에 복수의 하위집단을 두어 전체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토의를 유도하며, 매 회의 때마다 어느 한 사람을 지명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트집을 잡고 비판만 하는 역할(devil's advocate)을 맡기는 방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⁴⁶⁾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원인 즉, 외부적 환경과 분권화된 조직구조는 손쉽게 제거, 또는 치료할 수 없는 원인들이다. 전자는 어느 개별 기업에 대한 치료라는 미시적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

44) 집단사고의 제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넬슨 R. 포시즈(Donelson R. Forsyth)/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실 역, 앞의 책, 445-460면 참조.

45) 폴 스펙터(Paul E. Spector)/박동건 역, 앞의 책, 472면 참조.

46) 집단사고의 예방법에 대해서는 다넬슨 R. 포시즈(Donelson R. Forsyth)/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실 역, 앞의 책, 460-466면; 홍대식 편저, 앞의 책, 610면; 한덕웅 외 7인 공저, 앞의 책, 271-272면; 조동성, 앞의 책, 383면; 이필상 외 2인 공저, 앞의 책, 260면 참조.

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대상이고, 후자는 현대기업에 필수불가결한 조직구조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자연인의 사이코패시가 사회·환경적 원인과 유전적·생물학적 원인이라는 두 가지 원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⁴⁷⁾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업사이코패시의 치료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공식적인 시스템의 개혁과 더불어 최고경영자들의 윤리적 리더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병리적 의사결정을 조장할 수 있게 생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기업의 내부적 체질을 개선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외부적 환경은 조직변화와 리더의 윤리경영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사이코패시를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감사다! 오늘날 우리가 기업을 우리사회의 새로운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 모두가 사회감사(social audit)⁴⁸⁾의 주체가 되어 윤리적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우리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법적 보호와 권리를 향유하는 것만큼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⁴⁹⁾ 사회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⁵⁰⁾ 우리 사회가 이러한 환경을

47) 사이코패시의 원인론에 대해서는 안성조·서상문, 앞의 책, 71면 이하 참조.

48) 사회감사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별이는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등을 완수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활동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필상 외 2인 공저, 앞의 책, 76면 참조. 간단히 말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빌 니클스·짐 맥휴지·수잔 맥휴지(William G. Nickels, James M. McHuge & Susan M. McHuge)/권구혁 외 5인 공역, 「경영학의 이해(Understanding Business)」(생능출판사·McGraw-Hill Irwin, 2010), 126면 참조. 동 문헌에 의하면 기업 스스로 행하는 사회적 감사 이외에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네 개의 단체는 ①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투자자들(socially conscious investors):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념에 부합되는 기업들의 주식에만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ing; SRI) ② 환경주의자들(Environmentalists) ③ 조합원들(Union Officials) ④ 고객들(Customers) 등이 있다.

49) 최근 다국적기업은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 기업으로서 그 국가에 충실한 기업시민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선진국은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이 대단히 강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기준도 높지만,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규제의 정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과거 다국적기업은 공해산업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국적기업이 단순히 현지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 세계에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기준을 설정해 환경오염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장세진, 앞의 책, 475면 참조.

50) 사회감사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Homer H. Johnson, Corporate Social Audits—this time around, 44 Business Horizons 29(2001), 29-36면 참조.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업사이코패시의 치료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

만일 전술한 것처럼 기업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면, 기업사이코패스에서 비롯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은 자연인의 경우와 동일할 것이다. 즉 법인의 책임능력을 감면시킬 수 있고, 따라서 벌금 등 형벌의 감경이 가능하다. 또한 자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도 치료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재범방지를 위해 서라도 반드시 치료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 기업사이코패시에 대한 치료적 처분의 방법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불충분하여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필자의 주장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조금이라도 긍정적 반향을 얻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연구가 난망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발 표 자 유 성 호



유성호 교수 (한양대)
Prof. Sungho Yoo (Hanyang Univ.)

<프로필>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역임.
- 현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지은 책으로 {한국 현대시의 형상과 논리}(1997),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1999), {침묵의 파문}(2002) 등이 있음.

현대시에 나타난 연민과 배려

1. 현대시와 연민의 시선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온갖 폭력과 욕망에 대해 적극 경계하고 비판해왔다. 그 경계와 비판의 구체적 형식이 학문과 종교의 길이었고, 그것의 상상적 구현 형식이 바로 예술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확산하는 방향보다는 그것을 유린하고 그 유린된 상황을 견디게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그동안의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상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세상을 정초하려는 많은 이들은 이러한 세계에 대해 한없는 절망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그러한 폭력에 짓눌려 신음하는 많은 생명들에 대한 가없는 연민을 가지게 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연민의 형식은 위대한 영혼들이 한결같이 견지하고 있는, 이 불모의 세계에 대한 가장 적절한 태도일 것이다. 물론 불모의 세계에 대응하는 인간의 정서는 여러 층위에서 발원할 수 있다. 가령 걱정적 분노도 가능할 것이고 체념이나 자학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대상을 향한 짙은 연민의 정서는 존재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유한 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일층 근원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현대시의 유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서정 시편들은 이러한 연민의 정서에 깊이 들려 있는 경우가 많다.

두루 알려져 있듯이, 백석은 ‘가난’의 시적 기표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시인이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는 가난한 가족사가 스크린처럼 흘러가는 순간을 통해 존재자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팔원(八院)」에서는 가난한 여자아이에 대한 지극한 연민을 보여주었다. 또한 「모닥불」에서는 보잘것없고 하찮기 이를 데 없는 사물들을 모두 모아 태우는 제의적(祭儀的) 장면을 보임으로써, 소소한 존재자들의 동참으로 ‘빈/부’ ‘사물/사람’ ‘주체/객체’의 경계를 모두 지워내는 아름다운 장면을 구현한 바 있다. 이러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일관된 연민의 시선은 백석 시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며, 후대 시인들에게 가장 강렬한 감염력을 가지며 전달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을 직접적 배경으로 하여 씌어진 시편들에는 백석 특유의 ‘사회적 연민’이

잘 드러난다.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관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들무덤으로 갔다

산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전문

이 시편에서 화자는 여인을 두 번 만난다. 처음에는 금점관에서 옥수수 행상을 하는 여인을, 그 다음에는 여승으로 변화된 여인을 만난다. 여인의 생애는 “섣별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찾아 어린 딸을 데리고 행상을 하다가 딸마저 죽고 결국 여승이 된 이력으로 점철된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생애가 당대 식민지 현실과 유비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금점관 옥수수 행상을 거쳐 가지취 냄새가 나는 여승이 되는 생애의 과정은, 비록 그녀가 사적 개인의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그녀로 하여금 당대 현실의 불모성을 실감 있게 드러내는 일종의 전형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백석이 가졌던 식민지 현실에 대한 지속적 관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여승에 대한 묘사에 화자의 연민이 깊이 배어 있다는 점은 강조되어 마땅한데, 말하자면 객관적 묘사가 아니라 화자가 심미적으로 개입하는 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쓸쓸한 낮’이나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슬픈 날’, ‘눈물방울과 같이’ 등의 표현들은 모두 화자의 자기 표현의 실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에서 우리는

화자의 여인을 향한 태도에 깊은 동정과 연민의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야말로 주체와 대상 사이에 깊은 ‘정서적 연루(emotional involvement)’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연민’의 시학은 후대 시인들에게 두루 이어져 리얼리즘의 굵은 광맥을 형성하게 된다.

이슬비 오는 날.
종로 5가 서시오관 옆에서
낮선 少年이 나를 붙들고 東大門을 물었다.

밤 열한 시 반,
통금에 쫓기는 群像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 신은 운동화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허리선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 하던 勞動者 하나이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半島의 하늘 높이서 太陽이 쏟아지고,
짜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銀行國의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

이슬비 오는 날,
 낮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東大門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 신동엽, 「종로오가(鐘路五街)」 중에서

서사시 『금강』의 후화(後話)로 씌어진 이 시편은 “세상에 항거함이 없이/오히려 세상이/너의 위엄 앞에 항거하려 하도록” 하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신하늬가 “종로오가”의 가난한 소년 노동자로 변모되어 있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소년은 지금 노동의 피로에 젖어 있다. 그리고 이 소년을 바라보는 시인의 가슴은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소년은 신하늬가 봉건 사회의 학정에 시달렸듯이 개발 독재의 속도와 폭력 속에서 신음하고 있기에, 두 사람은 일정한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한 시적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늦은 밤 서울의 한 복판에서 노동자인 화자가 시골 출신의 한 소년을 만나면서 시는 시작된다. ‘나’에게 길을 묻고 군중 속으로 사라져간 어린 소년의 맑은 눈을 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얻어맞아 한쪽 눈이 부어 있던 ‘창녀’를 떠올리기도 하고 고층 건물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 누워 있던 중년의 ‘노동자’를 생각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산업화라는 거대한 조류에 밀려 표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시대의 식솔들이다. 화자의 연민과 상상 속에서 이들은 누이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이때 ‘나’는 길을 묻는 어린 소년을 통하여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다. 또한 1960년대 사회에 대한 인식은 화자로 하여금 이 시대를 또 다른 형태의 외국 자본의 식민지로 규정하게끔 하기도 한다. 서울을 “은행국” 수도로 설정한 것도 그러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무력에 의한 지배 대신 자본에 의한 지배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밑에서 노동자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금융 자본이 저임금과 착취의 중심부인 서울로 들어와 고층 빌딩 공사를 하게 된다는 비극성을 반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형상은 한 시대의 구성원 가운데 가난과 소외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한 지극한 연민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분노나 격정 혹은 체념이나 자학보다 연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사유를 가능케 하는 서정의 원리임을 깊이 증언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연민’과는 달리, 사적 대상에 대한 연민이 서정의 원리로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관계론적 연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가장 소소한 순

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솟아오르는 서정의 원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호승은 슬픔과 연민이 한 몸으로 결속하는 순간에 의해 시세계가 펼쳐지는 대표적 경우이다. 그의 시에 착색되어 있는 슬픔은 격정적 비극성이나 감정 과잉의 감상성을 동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차분하고 관조적인 자기 성찰적 성격이나 타자들을 향한 연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그 슬픔은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 정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존재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연민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혹은 주체와 대상 사이에 개재하는 친화적 정서나 행위를 총체적으로 표상한다. 그 점에서 정호승 시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슬픔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고, 연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물론 그들이 경험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단 그의 시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가장 일반적이고 존재론적인 보편 인간으로 서서히 모습을 바꾼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노래할 때조차 정호승의 시는 보편적 관조와 초월의 성향을 띠게 된다. 응시와 성찰의 과정에서 시인의 시선은 대상에 대한 깊은 연민의 순간과 조우한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 정호승, 「바닥에 대하여」 전문

그는 우리 주위에 버려져 있는 하찮은 것들의 순간성 속에서 미의 근원을 찾고 나아가 시의 가능성을 찾는다. 가령 “신은 세목 속에 깃들인다.”는 말이 있거니와, 정호승 시세계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재들은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의 세목들이 시인의 시선 속에서 얼마나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례들로 가득하다. 그가 노래하는 연민이 합리적 인과율보다는 낭만적 운명론의 색채가 강한 것이나, 그가 애정과 집중성을 가지고 관찰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의 거소(居所)가 모두 ‘바닥’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시인은 어둡고 쓸쓸한 ‘바닥’이야말로 근원적 존재들의 거처임을 적극 암시한다. 또한 ‘바닥’은 그의 시가 태어나는 생성적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인은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만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바닥은 보이지 않지만/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바닥까지 걸어가야만/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바닥’의 불가시성과 ‘바닥’까지 걸어야만 하는 불가항력은 ‘시’와 ‘시인’의 운명적 속성을 그대로 은유하고 있다. 그러니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돌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존재의 근원과 궁극을 노래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처럼 정호승 시인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타자들의 형상을 복원하고 위무하고 치유함으로써, 자신의 슬픔과 연민의 형식으로서의 시를 완성하고 있다.

취해서 귀가하는 어느 밤이 온다면
 집에 당도하기 전에 꼭 한 번
 하늘을 보아라 별이 있느냐?
 별이 한두 개밖에 없는
 도회지의 하늘이건
 별이 지천으로 돌아난
 여행지의 하늘이건
 뼈아픈 별 몇이서

너를 찾고 있을 테니
그 별에게 눈 맞춘 다음에야
별을 눌러야 한다
잠이 들어야 한다 아들이
천상의 별을 찾는다고 네 발 밑에서
지렁이나 개미가 죽게 하지 말기를
통증을 느끼는 것들을 가엾어하지 않는다면
네 목숨의 값어치는 그 미물과 같지
아들이 네 등 뒤로 떨어지며 무수히 죽어간
별똥별의 이름은 없어 뼈아픈 별이기에
영원히 반짝이지 않는단다.

— 이승하, 「뼈아픈 별을 찾아서 - 아들에게」 전문

이승하의 이 작품 역시 모든 목숨 있는 존재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심미적 인식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이 별에 부여한 ‘뼈아픔’은,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시인의 연민이 대상의 속성으로 전이된 것이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 “뼈아픈 별 몇”을 바라보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들을 가엾어”해야 한다는 권면은, 그 자체로 윤리적 잠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네 목숨의 값어치는 그 미물과” 같지 않겠냐는 단호한 결구가 이 시를 지상적 윤리를 넘어서 ‘우주적 연민’(cosmic pity)으로 팽창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시인은 ‘별’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통해 생의 순간적 경험과 모든 사물들을 향한 우주적 연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목숨 있는 모든 존재자들을 향한 이러한 연민의 파장은 가장 깊은 시적 원천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물줄기 마르는 날까지
폭포여, 나를 내리쳐라
너의 매를 종일 맞겠다
일어설 여유도 없이
아프다 말할 겨를도 없이
내려쫓혀라, 거기에 짓눌리는
울음으로 울음으로만 대답하겠다

이 바위틈에 뿌리내려
 너를 본 것이
 나를 영영 눈 뜰 수 없게 하여도,
 그대로 푸른 멍이 되어도 좋다

네 몸은 얼마나 또 아플 것이냐

— 나희덕, 「폴포기의 노래」 전문

이 시편은 연민과 사랑이야말로 서정시의 가장 근본적 충동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근본적으로 삶이 비극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예지는 시인에게 연민과 사랑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대상마저 동류화함으로써 그것을 견디는 과정으로 나아가게끔 한다. 따라서 화자는 스스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주는 대상도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마음을 가진다. 이러한 고통의 수락만이 시를 통한 상처 치유에 이르는 길임을 그녀 시편은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은 상처 속에서 빛난다. 이 시편의 내용과 형식은 폭포의 물줄기를 맞는 ‘폴포기’가 부르는 노래로 짜여 있다. 물줄기 마르는 날까지 내리치라는 폴포기의 말은, 폭포와 폴포기가 ‘내리침-맞음’의 관계로 생애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종일 매를 맞으면서 아프다고 말할 겨를도 없이 새어나오는 울음소리가 말하자면 폴포기의 노래다. 폴포기의 푸른 빛깔은 이 과정에서 생겨난 ‘멍’의 빛깔을 암시하면서, 화자를 사랑에 눈멀게 한 것이다. 마지막 행에서 화자가 “네 몸은 얼마나 또 아플 것이냐”고 노래한 것은 가학-피학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역설적 사랑의 존재론을 암시해준다. 상처를 통해 아니 상처를 자양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이 시편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나희덕 시편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존재 전환을 꿈꾸는 상상적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그녀의 언어가 비현실적 몽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녀의 언어는, 일상적 현실을 벗어나 전혀 다른 상상적 거처를 만들어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지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들의 존재 형식을 증언하는 쪽으로 귀환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생겨나는 감각은, 우리의 삶이 가지는 관성에 일종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충격을 순간적으로 가함으로써 성찰적 시선을 마련해주는데, 이것이 서정시의 보편적이고 절실한 존재 의의일 것이다. 나희덕 시편의 세목들은 이러한 충격과 성찰에 충실하게 바쳐지면서, 어떤 정신적 고처(高處)를 상상하는 지경을 펼쳐낸다. 그것이

바로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연민의 힘에서 가능한 것일 터이다.

일찍이 소월은 그의 유일한 시론인 「시혼(詩魂)」에서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울고 있는 벌레 한 마리, 빈 들에 말라가며 별바람에 여위는 갈대 하나, 아득한 바다에 뛰노는 물결 속에 지순한 정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시의 혼은 늘 그러한 것들에 가까이 있다고 말하였다. 시의 근본 정신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시혼’은, 오늘날의 생태 의식과 긴밀하게 상통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외롭고 초라하고 쓸쓸한 것들에 대한 연민과 일체감에서 우리나 온 것이다. 또한 그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산유화(山有花)」의 구절 속에 들어 있는, 홀로 외롭게 피어 있는 들꽃에 대한 애뜻한 마음 즉 우주적 연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민과 동일성의 감각에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신성이 한결같이 매개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속성이 연민의 시학으로 하여금 ‘존재’ 그 자체로 한없이 번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현대시가 경성(硬性)과 장광설 추구로 나아가려 할 때, ‘연민’을 깊이 내포하는 목소리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가 닿게 된다. 그것이 서정의 가장 깊은 차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2. 다문화 사회, 소통과 배려의 시선들

한국 근대사에서 민족 관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 근대적 제도와 인식이 채 자리 잡기 전에 닥쳐온 식민지 근대가 우리로 하여금 민족을 탈환하고 재구성하려는 열정을 가지게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로도 우리는 단일민족 신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순혈주의적 민족 관념을 공고하게 형성해갔다. 최근 일정하게 탈(脫)민족 담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민족의 동일성을 상상하고 실천하려는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소진될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사람들은 자신을 근대 민족국가(nation state)의 배타적 일원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지와 열망을 양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키워드가 ‘내셔널’에서 ‘인터내셔널’로 또 ‘트랜스내셔널’로 옮겨갔을지라도, 민족은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 범주이다. 앤더슨(B. Anderson)은 그의 유명한 『상상의 공동체』에서 ‘언어’가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는데, 그만큼 ‘언어’는 민족국가의 통합과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혈통과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국가는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한 균

열 과정에 놓여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글로벌 시대가 가시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우리 안의 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요인들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섞여들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타자(他者)란, 주류화된 존재들과 달리 동일성에 편입되지 못하고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체의 요소를 지칭한다. 우리 시대의 소수자(minority)를 포함한 타자는 외국인 노동자, 성적 소수자, 장애인, 극빈자 등을 구체적으로 함의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른바 ‘코시안(Kosian)’이라고 불리는 범주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의 합성어로서 국제결혼 2세나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대두된 개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단일민족 안의 혼혈집단이라는 용어로 변질되어, 이제는 차별과 차이를 생산해내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들에 대해 ‘결혼 이민자’로 명명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 이들 결혼 이민자 및 그들이 낳은 2세들은, 단일민족 신화가 견고하게 편재(遍在)해 있는 한국 사회의 감각과 무의식을 흔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해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는 도정에 놓여 있으며, 교육 과정에서도 ‘국어’라는 민족 관념의 개념보다는 ‘한국어’라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를 선호하게 되었다. 실제로 학교의 풍경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고, 결혼 이민자 자녀들이 재학하는 일도 점증(漸增)해가고 있다. 여성 이민자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현재 국내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결혼 이민자 2세대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교육의 양극화가 주로 계층 간의 차이에서 빚어진 문제였다면, 이제는 ‘혈통’이나 ‘인종’ 문제까지 매개되는 우리 역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농촌 총각들과 결혼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제3국의 여성들이다. 이들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게 된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국제결혼 비율은 15%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기혼 남성의 40% 이상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있다. 배우자 국적도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출신이 많았는데 최근 베트남이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그 범위가 번져갔다. 그런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부부의 광범위한 이혼 급증이 일어나고 있다. 주로 경제적 문제가 많고, 가족 갈등,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고통, 우리 사회의 가학적 시선, 정부 지원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이 가운데 ‘언어’ 문제는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심각한 차원에 와 있다. 시댁 식구들과 겪는 갈등도 절반 가까이 언어 소통 문제에

서 빚어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여성이 낳은 2세들도 언어 습득과 활용에 적지 않은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데 있다. 일종의 대물림 현상이다. 사정은 이러하다. 대개의 농촌 남성들은 자기 배우자에게 출신국의 언어를 못 쓰게 하고 하루 빨리 한국어를 배울 것을 종용한다.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점점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 여성은 아이에게 집착하게 된다. 엄마와 언어 소통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학령이 되어도 한국어에 미숙하게 된다. 기층 언어일수록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배운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 진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국어(母國語)를 ‘부국어(父國語)/조국어(祖國語)’라고 하지 않고 ‘모국어(母國語)/모어(母語)’라고 부른다. 이제 엄마들은 물론 이들 자녀들의 언어 교육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는, 이미 찾아온 국가적 의제 (agenda)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은,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큰 전제일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경제생활의 활력을 얻고 있고, 결혼 이민 여성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다. 그만큼 그들과는 호혜적 입장에서 있다. 그렇다면 이들과 이들의 자녀를 치지도외하며 현실적으로는 이용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범죄이다. 그 다음으로 강조될 것은, 한쪽 가치를 강요하는 일방적 동화(同化)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를 만들어 소통과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많은 경우는 자신들을 ‘코시안’이니 ‘혼혈인’이니 부르지 말아달라고 한다. 그 어휘 안에 이미 차별의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도 아시아인인데 왜 ‘코시안’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치 아시아인이 아닌 것처럼, 아시아에서 자신을 슬쩍 배제하고 특권화하는 의사(擬似) 제국주의적 발상을 하게 되었을까? 국제결혼 자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시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토종 한국인과 그들 사이의 차별을 가져오는 용어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대체 용어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일민족 신화의 재생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융화하고 순혈주의의 관념에서 벗어나 ‘다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방적 동화주의의 발상에서 전환하여, 동화주의가 결혼 이민자에게 얼마나 힘겨운 문화 흡수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런 후에 다른 문화가 서로 존중받는 쪽으로 정책이나 인식이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하듯이, 한국인들도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다문화 가족’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데서 장기적인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소양 교육도 필요하지만, ‘토종’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장치도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때 ‘언어’야말로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던 앤더슨의 통찰은, ‘다민족 국가’로 정체성을 전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활성을 위해서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역상(逆像)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한국 현대시가 처음으로 다문화 양상을 광범위하게 경험한 것은, 최근의 결혼 이민자 현상 보다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같은 장기전에서 비롯된 혼혈 현상이었다. 한국전쟁이 남긴 혼혈아 문제는 해방 후 우리 문학에 광범위한 상처로 진입한 제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 언론이나 대중 매체가 영웅화하려 했던 베트남전 역시 혼혈의 흔적을 우리 역사 안에 남겼다. 자유주의나 실존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창작을 한 일군의 시인들에게도 이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매우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흔적으로 읽히게 되었다. 김명인은 그 비극적 형상을 한국전쟁과 그 후의 잔상(殘像)에서 일구어낸 대표적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우리 사회의 어둡한 구석을 사실적 필치로 기록하고 낭만적 비가로 노래한 그의 시편들은 우리 다문화 시편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그 아이 혼혈아인
 엄마를 닮아 얼굴만 희었던
 그 아이는 지금 대전 어디서
 다방 레지를 하고 있는지 몰라 연애를 하고
 퇴학을 맞아 고아원을 뛰쳐나가더니
 지금도 기억할까 그때 교내 웅변대회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울게 하던 그 한 마디 말
 하늘 아래 나를 버린 엄마보다는
 나는 돈 많은 나라 아메리카로 가야 된대요

일곱 살 때 원장의 姓을 받아 비로소李家든가 金가든가
 차가면 어떻고 브라운이면 또 어떻고 그 말이
 아직도 늦은 밤 내 귀가 길을 때린다

기교도 없이 새소리도 없이 가라고
내 詩를 때린다 우리 모두 태어나 욕된 세상을

이 強辯의 세상 헛된 강변만이
오로지 진실이고 너의 진실은
우리들이 매길 수도 없는 어느 채점표 밖에서
얼마만큼의 거짓으로나 매겨지는지
몸을 던져 세상 끝끝까지 웅크리고 가며
외롭기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그래서 더욱 괴로운 너의 모습 너의 말

그래 너는 아메리카로 갔어야 했다
국어로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 네 모습이 주눅들 리 없는 合衆國이고
우리들은 제 상처에도 아플 줄 모르는 단일 민족
이 피가름 역센 단군의 한 핏줄 바보같이
가시같이 어째서 너는 남아 우리들의 상처를
함부로 쏘시느냐 몸을 팔면서
침을 뱉느냐 더러운 그리움으로
배고픔 많았던 동두천 그린 돌레나 아직도 맴도느냐
혼혈아야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아이야

— 김명인, 「동두천 4」 전문

원래 ‘혼혈’에 대한 한국인의 보편적 인상은 전쟁의 폭력성과 인간 욕망이 남긴 덧없는 상흔의 이미지로 집약된다. 흔히 ‘동두천’으로 상징되는 미군 부대와 그들의 욕망이 한국 여성들과 뒤엎히는 장면은, 혼혈이라는 비극적 씨앗은 물론, 미군 범죄로 상징되는 폭력의 거대한 성채로 우리에게 각인되기에 이른다. 시인의 눈에 ‘동두천’은 그러한 비극의 진원지이자 상처의 이미지로 가득차 있는 폭력적 공간이다.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한 혼혈 여자아이는 “지금 대전 어디서/다방 레지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화자는 적는다. 그 아이는 “연애를 하고/퇴학을 맞아 고아원을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 아이는 한때 웅변대회에서 모두를 울게 하던 “하늘 아래 나를 버린 엄마보다는/나는 돈 많은 나라 아메리카로 가야 된대요//일곱 살 때 원장의 姓

을 받아 비로소 누가든가 金가든가/朴가면 어떻고 브라운이면 또 어떻고” 하는 말을 박아놓고는 지금도 그 목소리로 시인의 “귀가 길”과 “詩”를 때린다. 그 아이의 앞으로의 생 역시 험난한 세상에서 예측 가능한 하강 곡선을 긋지 않을까 하고 화자는 느낀다. 그렇게 그 아이의 진실은 선생인 화자도 매길 수 없는 어느 채점표 밖에 있다. 따라서 “몸을 던져 세상 끝까지 웅크리고 가며/외롭기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라는 동료감이 화자에게 생겨나는 것은, 그 아이의 비극이 꼭 그 아이만의 것은 아닐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전쟁과 미군 주둔이 남긴 거대한 상처인 ‘혼혈’과 그들의 사회적 하강, 화자는 이 같은 폭력성의 분위기를 차분하고 쓸쓸하게 직조함으로써, “국어로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 네 모습이 주눅들 리 없는 合衆國이고/우리들은 제 상처에도 아플 줄 모르는 단일 민족/이 피가름 억센 단군의 한 핏줄 바보같이/가시같이 어째서 너는 남아 우리들의 상처를/함부로 찌시느냐 몸을 팔면서/침을 뱉느냐 더러운 그리움으로/배고픔 많았던 동두천 그런 둘레나 아직도 땀도느냐/혼혈아야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아이야”라고 전쟁과 혼혈이 남긴 거대한 구멍을 묻고 있다. 여기서 그 아이가 동경했던 “合衆國”과 시인이 가르쳤던 “국어”는 날카로운 긴장과 갈등을 형성하면서, 우리의 왜곡된 현대사를 우화적으로 증언한다. 시인은 그들에 대한 지극한 연민과 배려의 마음을 시로 담았다. 이처럼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시에 나타난 혼혈 양상은 제국주의적 폭력과 함께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다문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를 침예한 동시대로 건너온 이들에게 확연한 기억으로 자리하는 시인이 하종오일 것이다. 특별히 그의 시편들이 보여준 밀도 있는 경험적 실감과 강인한 민중적 생명력 그리고 우리 입말의 리듬에 맞추려는 철저한 운문 정신은 오래도록 그의 시를 민중적 서정의 한 정상으로 각인하게끔 하는 원천적 힘이 되었다. 그런 그가 최근 펴낸 『아시아계 한국인들』과 『국경 없는 공장』은, 전자가 한국에 정착한 아시아계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었다면, 후자는 한국에 체류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설 부문에서 김재영, 공선옥, 전성태, 방현석, 손홍규 등이 이미 이들의 삶에 대한 세세한 형상화를 이루었지만, 시에서는 하종오의 시적 성취가 단연 돋보인다 할 것이다. 그는 결국 같이 살아야 할 우리 안의 타자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예들려 호소하고 있다.

남자가 카트를 밀고

여자가 야채를 골라 실은 그들 동남아인 부부는
역시 내가 카트를 밀고
아내가 야채 골라 실은 우리 부부를 앞섰다
그들 동남아인 부부가 생활용품 코너에 멈춰 서서
면봉 이쑤시개 나무젓가락을 들고
라벨을 살펴보다가 심드렁하게 내려놓고 간 뒤
우리 부부가 뒤따라가 그걸 카트에 실었다
그들 동남아인 부부와는
이따금 동네에서 스쳐지나 다닐 때
골목 안 이웃집 지하 봉제공장에서
미싱일 하겠지 짐작만 했을 뿐
통성명할 일이 없어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 부부가 앞서서 음료수를 카트에 실으니
뒤이어 그들 동남아인 부부가 음료수를 카트에 싣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으로 보고 할인마트에서 나왔다
나는 집에 돌아와 쇼핑백에서 물건을 꺼내 찬장에 넣다가
면봉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라벨을 읽어보고는 고개 끄덕였다
제조국가가 베트남이었다

— 하종오, 「베트남산(産)」 전문

이 시편에서 베트남산(産)은 이중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하나는 베트남 출신인지 모를 이들 부부가 자신의 출신지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한국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환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동남아 전체를 그들도 지우려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그 점에서 베트남은 이중의 타자의 위치에 있다. 이 동남아인 부부는 “생활용품 코너에 멈춰 서서/면봉 이쑤시개 나무젓가락을 들고/라벨을 살펴보다가” 그것이 베트남산임을 알고는 그대로 내려놓는다. 하지만 “골목 안 이웃집 지하 봉제공장에서/미싱일”을 하지 않을까 짐작만 되는 이 타자들을 안아들이느라 화자는 그들이 내려놓은 물품들을 구입하고 그것의 “제조국가가 베트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처럼 국가간 노동시장 유연화로 말미암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량 유입에 따라, 우리 사

회 곳곳에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안의 타자들이 눈에 곧잘 띈다. 자본이 매개되어 다시 차별의 논리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 화자는 혹시 ‘우리 안의 제국주의’가 있지 않은가를 성찰적으로 묻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구사했던 폭력의 양상을 재현해내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제국주의 속성의 개연성 때문이다. 이러한 하종오의 시는 이주 노동자들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인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어 호모 사케르가 되어가는 현실을 깊은 차원에서 실증하고 있다.

구로동 가리봉오거리
 불야성을 이룬 늦여름 밤
 탱글탱글 여문 은행이 새끼들처럼 줄줄이 매달렸다
 은행나무 밑 까만 봉고차에서
 탱탱한 알들을 쭉쭉 낚는다
 동그란 알에서 미끈하고 예쁜 여자들이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는 훨훨 날갯짓하며 날았다

30여 년 전 산업화의 발과 손이었던
 여공은 노동운동사의 유물로 사라지고
 사각 콘크리트 건물들이 자본의 기둥처럼
 위풍당당하게 우뚝 솟은 이곳엔
 여공의 제복을 벗고 발가벗겨진 여성이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도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이
 돈 벌러 홀린 듯이 모여드는데
 노래방에서 식당 모텔 대화방 술집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싼 값에
 노동을 팔아 삶을 사고,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어머니는 여공을 낳고 나비를 낳고
 여자아이를 조선족 여자를 다시 어머니를 낳고

밥벌이에 충실하며 무던히도 살았건만
여전히 월세방 면치 못한 징그러운 밀바닥
안간힘 써서 희망의 끝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월 새 없이 움직이는 날갯짓에
찢어지는 나비의 몸뚱이
30년 후에도 나는 내 딸들은
대물림으로 이어받은 몸뚱이 팔고 있겠지

— 김사이, 「달의 여자들」 전문

이 작품은 불법 체류자인 아시아 여성과 한국인 여공 모두 자본과 성(性) 양 측면에서 소수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시공을 넘어 재생산되고 파생되는 다문화 양상을 현실주의적 상상력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래된 주체와 타자의 구획을 넘어 여성들의 소수자로서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로동 가리봉오거리의 밤에 여성들은 허물을 벗고 훤히 날갯짓하며 날고 있다. 한 세대 전에는 산업 사회의 역군을 키웠던 공간이 노동 운동사의 유물로 사라지고, 그 대신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힌 아시아 여성들이 돈을 벌러 모여든다. 노동을 팔아 삶을 사지만, 여전히 월세방도 면치 못하는 밀바닥을 뒹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은 가난과 함께 대물림되고 있다. 이 시편은 이러한 여성으로서의 타자성에 대해 깊이 착목하고 있다. 더 깊은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대상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하종오, 김사이 등의 현실주의 시인들에 의해 다문화 양상은 소수자 문제를 넘어 자본의 국제적 운동 그리고 전면적 사회 장악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3. 연민과 배려의 상호 통합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비극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극에서 주인공이 부딪치는 기구한 운명은 우리에게 공포의 감정을 갖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파멸로 끝맺는 그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연민의 감정을 자아내게 한다. 이 공포와 연민

은 감정을 순화시키고 정화(淨化)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생활에 도움을 준다.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catharsis)이다.

비극의 주인공이 파멸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하는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이 공포라면, 주인공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더 참혹하다는 것을 알 때 다가오는 감정이 연민일 것이다. 하지만 대상에 대한 연민은 어쩌면 인간의 인간됨의 최상위의 윤리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연민을 구체화하는 행위 개념이 배려일 것이다. 이러한 연민과 배려의 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혹은 잊혀지고 버려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의 첫 출발일 것이다.

토 론 자

- Lucia Lin 교수, 대만 보인대
- 이영종 교수, 가톨릭대
- 김신정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Session 4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Seminar hosted by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정의와 배려가 만나는 곳 | 이영애 변호사

The Crossroad: Where Justice and Compassion Come Across | **Gloria Young A. Lee**



박건영 교수 (가톨릭대)
Prof. Kunyoung Park(CUK)

<프로필>

■ 경력

- 한국국제정치학회부회장 (역임)
- 미국브루킹스연구소, 코리아펠로우 (역임)
- 국가안보회의자문위원 (역임)
- 가톨릭대 국제학부 학부장 (현)
-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현)

■ 수상 경력

- 한국국제정치학회학술상, 『한반도의국제정치』

■ 최근 저서 및 논문

- 박건영, 2010, 『오바마와북한』 (서울, 사회평론).
- Kun Young Park, 2012,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 Strategic-Pragmatic-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Its Policy Alternatives,” *Journal of Global Area Studies*,* Vol. 30, No. 2.
- 박건영외, 2011, “신고전적현실주의비판,” 『국제정치논총』, 제51권, 3호.
- 박건영외, 2011, “월츠의환영(幻影),” 『한국과국제정치』, 제27권, 3호.
- Kun Young Park, 2011, “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Journal*, Vol. 51, No. 2, Summer.

- 박건영, 2011, “핵무기와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미래,” 『한국과국제정치』,* 제 27권, 1호.
- Kun Young Park, 2009, “Preparing for a Peace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Asian Perspective*, Nol. 33, No. 3.
- Kun Young Park, 2009, “Predicting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 Neo-Perry Process in the Offing?” *East Asian Studies*, No. 57.
- Kun Young Park, 2009, “Nuclear Politicking on the Korean Peninsula: A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Coming Out of the Pandora’s Box,” *Korea Journal*, Vol. 49, No. 2, Summer.
- 박건영외, 2009, “김대중-부시정부시기한미관계: 대북정책을중심으로”, 『역사비평』, 86호.

사 회 자 박 일 영



박일영 교수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장)
Prof. Ilyoung Park (CUK)

〈프로필〉

1952년 부산 출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Tel: 02-2164-4553; 010-8101-3008

Fax: 02-2164-4781

E-mail: onezero@catholic.ac.kr

■ 학력

- 1978. 2. 한국/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 학사
- 1982. 6. 스위스, 프리부르(Fribourg)대학교 신학/종교학 석사
- 1988. 7. 스위스, 프리부르(Fribourg)대학교 신학/종교학 박사

■ 경력

- 1985. 7. - 1986. 6. 스위스, 연방정부 학술기금(Fonds National Suisse) 연구원
- 1988. 3. - 1990. 2. 독일, 미시오 학술기금(MWI/Missio) 박사후연수(Post-Doctorate)
- 1988. 3. - 1992. 8. 가톨릭대학교·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 1989. 4. - 현재.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토착화연구위원회 연구기획위원
- 1991. 5. - 2008. 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
- 1992. 3. - 1997. 2. 효성여자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1993.11. - 현재. 한국종교학회 이사 겸 무교(巫敎)분과 위원장
- 1996.12. - 1997. 2. 독일, 학술교류처(DAAD) 초빙교수
- 1997. 3. - 현재.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1997. 3. - 현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종교간 대화위원
- 2002.11. - 2006. 8. 가톨릭대학교 문화여성대학원장
- 2002. 9. - 2005. 8. 근현대한국가톨릭연구단[한국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 단장

2003.11. - 2007.12. 한국종교간대화학회 공동대표
2005.12. - 2006. 2. 중국, 사회과학원(CASS, 北京) 초빙교수
2006. 9. - 2007. 8. 미국, 가톨릭대학교(CUA, Washington D.C.) 방문교수
2007. 2. - 2007. 2. 교황청, 라테란대학교 초빙교수
2009.01. - 2010.12. 한국무속학회 회장
2010.03. -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장

- 저서 :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총서 9, 분도출판사, 1999;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아시아신학총서 10, 분도출판사, 2003;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 가톨릭출판사, 2008 외 다수.
- 역서 : <현대의 선교>, R. 프리드리히 저, 성바오로출판사, 1989; <인간학>, 전 3권, W. 파넬베르크 저, 분도출판사, 1996;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N. 베버 저, 분도출판사, 2012[근간] 외 다수.
- 논문 :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종교의 역할」 외 140여 편.
- 기타 : <백과사전> 표제어 90여 편; 그 외 논평, 서평, 논설 등 다수.

<Profile>

Prof. Dr. John Il-young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t. of Religious Studies

43-1 Yeokkok 2-dong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420-743 KOREA

onezero@catholic.ac.kr

☎ +82-2-10-8101-3008

■ QUALIFICATIONS SUMMARY

- 30 years of research and teaching for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 25 year-experiences in the area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 EDUCATION

- Mar. 1988~Feb. 1990 Post-Doctorate,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upported by Missiology Institute/Missio, Germany
- Oct. 1982~Jul. 1988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Fribourg, Fribourg, Switzerland
- Doctor Degree[Dr. Theol.] in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 Apr. 1979~Jun. 1982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Fribourg, Fribourg, Switzerland
- Master Degree[Lic. Theol.] in Missiology &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Mar. 1971~Feb. 1978 School of The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Bacchalaureat[B.A.] in Theology , Ethics & English Language

■ **WORK EXPERIENCES**

Mar. 2010~Present Director,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Catholic Univ. of Korea Bucheon, Korea

Dec. 2008~ Dec. 2010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Shamanism, Seoul, Korea

Feb. 2007~Feb. 2007 Invited Professor, John Paul II Institute, Lateran University Holy See, Vatican

Sep. 2006~Aug. 2007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Theology & Religious Studies, Catholic Univ. of America Washington D.C., USA

Dec. 2005~Feb. 2006 Exchange Scholar,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 Supported b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CASS), Beijing, China

Oct. 2002~Aug. 2006 Dean, Graduate School of Culture & Spirituality, Cath. Univ. of Korea Bucheon, Korea

Sep. 2002~Aug. 2005 Director, Research Corps of the Catholic Church in Modern History of Korea, Seoul, Korea
-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KRF)

May 1997~Present Committee Member, Korean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KCRP), Seoul, Korea

Mar. 1997~Present Professor, Dept of Religious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Dec. 1996~Feb. 1997 Exchange Scholar, Institute of Sociology, University of Munich
- Supported by Deutsche Akademische Austausch Diens (DAAD) Munich, Germany

Nov. 1993~Nov. 1997 Vice-President,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Seoul, Korea

Mar. 1992~Feb. 1997 Professor, Dept of Religious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Korea Daegu, Korea

Mar. 1991~Mar. 2008 Committee Member of Evangelizatio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May 1989~ Present Committee Member of Inculturatio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Mar. 1988~Aug. 1992 Lecturer, Dept of Religious Studie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Jul. 1985~Jun. 1986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Science of Religion, University of Fribourg/Swiss
- Supported by Fonds Nationale Suisse, Japan & Korea

■ REPRESENTATIVE PUBLICATIONS

- *Korean Religions and Modern Mission*, Seoul: Catholic Press, 2008.
- *The Catholic Church in 100 Years of Korean Modern History*, 3 vols, Seoul: Catholic Press, 2006.
- *Catholic Church and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in Korea*, 3 vols, Seoul: Catholic Press, 2005.
- *Religion in Korea*[English],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3.
- *Pilgrims in Dialogue. A New Configuration of Religions for Millennium Community* [English], Bangalore/India, 2000.
- *Understanding of Korean Shamanism*, Waeguan/Korea: Benedict Press, 1999.

■ REPRESENTATIVE TRANSLATIONS

- *Im Lande der Morgenstille* (N. Weber) [German], Waeguan: Benedict Press, 2012[forthcoming].
- *Anthropologie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W. Pannenberg) [German], Waeguan: Benedict Press, 1996.
- *Mission oder Demission* (R. Friedli) [German], Seoul: St. Paul Press, 1989.

■ RESEARCH ARTICLES

- “Comparative Study of the Attitudes by Foreign Missionaries on Korean Shamanism” (Korean), in: *Korean Shamanism 21* (Association for Korean Shamanistic Studies, 2010), pp. 151-177.
- “Life and Family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Understanding of Life viewed by the Folk Belief in *Samshin*-Maternity Goddess” (English), in: *Anthropotes 23/1* (Pontificio Istituto Giovanni Paolo II per Studi su Matrimonio e Famiglia, 2007), pp. 49-61.
- “Dynamic Religiosity. Insights from Korean Folk-Religion” (English), in: *Pilgrims in Dialogue*, Bangalore/India: Journal of Dharma Press, 2000, pp. 381-399.
- “Communion Feast in Korean Shamanism” (English), in: *Korea Journal 31* (UNESCO Korea, 1990), pp. 73-86.

* Approximately 150 research articles more.

■ LANGUAGE SKILLS

Korean, German, English, French and Chinese.

(And plus: able to read Italian, Latin and Japanese)

(Seoul, 20th Sep. 2011)

발 표 자 이 영 애



이영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Gloria Young A Lee (Attorney at Law, Barun Law.)

〈프로필〉

■ 학력 및 경력

1967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제55회)
197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제25회)
1977	미국 Harvard Law School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학위 (LL.M.) 취득
1971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1971~1973	사법연수원 연수생
1973~197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8~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0~198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2~1983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3~1984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4~1986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6~1988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8~1991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199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1992~1993	사법연수원 교수
1993~1995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5~199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1998~1999	특허법원 부장판사
1999~200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2~2004.8	춘천지방법원장
2004.10~2006.3	이영애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3~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2008.4~2012.5.	국회의원

■ 수상

1995	올해의 여성상
------	---------

■ 대외활동

1993.12~1995.9	언론중재위원회 제 1 중재부 부장
2005.1~2008.12	Harvard Law Club Korea 회장
2005.1~ 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
2005.1~ 현재	가톨릭서울법조회 부회장
2005.10~ 현재	가톨릭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법조위원회 위원장
2006.5~2008.4	국제존타 서울 I 클럽 회장
2007.11~ 현재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겸임교수
2008.6~ 현재	국제존타 32 지구 부총재

〈Profile〉

■ Education:

1967 Kyung-Gi Girl s' High School

1971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LL.B.), graduated as the top student out of 180 graduates

1977 Harvard Law School (LL.M.)

1999 Attended the 3 rd International Judges 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Washington , D.C.

- Recent Achievements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Raised a series of questions on life issues, consciously rejected research into embryo stem-cell, requested the government to establish policies against abortion, and objected against euthanasia.
- Proposed amendment bills to the “Life Ethics and Safety Act” (December 17, 2009) and the “Mother-Child Health Act” (October 29, 2010).

- Contributions to Life and Human Rights Forum

Since December 2, 2008, launched a group of Professors, medical experts and lawyers to develop legislative proposals and to hold monthly conferences on various subjects related to life.

- Conferences on the revision of the Act concerning Life Ethics and Safety: regular monthly meetings since December 30, 2008.
- Conferences on the revision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since January 27, 2010.
- Conferences on GMO related Acts since August 3, 2010.

- Series of Seminars organized by Young Ae Lee

- On Euthanasia (December 22, 2008)
- Invited Lord David Alton to the National Assembly to discuss human rights issues in the North Korea (February 11, 2009)
- Public hearing on regulation method of clinical demonstration (January 28, 2010)
- Expert meeting on abortion and women health (May 7, 2010)
- Socio-economic Problems of Abortion (June 18, 2010)
- Fetus is life (August 13, 2010)
- Life Ethics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ctober 27, 2010)

■ Series of Lectures

- “Medical Ethics and Legislation”
 - Lecture at Ehwa Women's Graduate Law School (May 28, 2009)
- Green Growth and Respect for Life
 - Lecture at Workshop, International Zonta Area 32, District Annual Meeting (September 5, 2008)
- Life Ethical Problems related to Early Human Life: Key Note Speech at the Spring Academic Event of Life Ethics Association (June 5, 2010)
- “Fetus is Life”
 - Special lecture given at the 5 th Prolife Seminars for the students of Theological School (December 20, 2010)

정의와 배려가 만나는 곳

1.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우선 사법정의, 그 중에서도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저 같이 법조계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사회정의, 분배정의, 정의로운 전쟁 등 많은 분야에서 정의가 주제로 등장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아리스토텔레스, 성 아우구스티노,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 수없이 많은 철학자, 신학자의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오랜 사색과 논쟁을 거쳐 정리된 근대의 정의개념은 대체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져야 할 정당한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 기한 정의는 “윤리적인 덕으로서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가톨릭 교회 교리서 1807항)입니다.

2. 정당한 몫이란 어떤 것인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우선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과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생명, 구원, 축복, 영혼, 정신, 육체, 재능 등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마땅히 드릴 것을 다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순명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

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정의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이란 엄밀히 말해서 정의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나. 사회와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져야 할, 또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는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론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권리인가,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에 이르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다는 이유로 낙태를 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빼앗거나 연구의 자유를 주장하며 인간배아를 실험용 재료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자의 정당한 몫이 무엇인지, 권리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3.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으로나 소명으로나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인간은 오직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 자유로이 살아갈 때에만 그 삶이 충만해집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4항)

4.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인간 이외의 존재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 등)는 존엄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다른 그룹에 속한 인간을 박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가해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희생자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밀어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던 시절에 노예는 인간이 아닌 재물로 취급되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과 장애인을 학살하면서 그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식민지의 원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지배자들의 하위에 있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인간의 범주에서 추방하려는 시도는 출생 전 인간생명을 대함에 있어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출생전의 인간을 마치 인간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려는 의도로 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남자와 여자의 생식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인간생명을 배아라고 부르며 실험용, 치료용 재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5.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기본이자 핵심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은 인간 실존의 통합된 과정 전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고 출발점이며 핵심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실재(Sacred Reality)입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생명을 보존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그리고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어 줌으로써 완성시켜야 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6.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위협

인류 역사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살인, 집단 학살, 납치, 고문, 노예의 소유, 인신매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하고 있고 내전 중인 국가에서 어린이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전쟁에 내보내고 노예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납치와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장기를 팔게 하거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대리모 계약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7. 과학의 발달과 새로운 위협

의과학기술, 특히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으며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는 이러한 침해행위는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자기결정권, 심지어는 죽을 권리 등등 권리의 형태를 주장하며 국가의 제도적 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 정자, 난자의 매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공수정을 위하여, 또는 불치병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실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 난자의 매매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정자, 난자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는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생식자 판매에 나서고 있는데, 좋은 학교 학생인지, 미모와 지성이 뛰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자, 난자 매매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임부부나 불치병 환자를 돕는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인간의 생식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물건을 제조하듯이 아이를 만들어 내거나 배아를 만들어 죽이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나. 대리모

불임부부, 독신자, 동성부부 등이 대리모를 고용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전 세계에 걸쳐

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2002년 상업적 대리모 제도를 합법화하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여 인도의 대도시 곳곳에 상업적 대리모 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모를 자원하는 여자들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공동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음식부터 생활습관까지 모든 것을 통제당하며 오로지 의뢰인이 원하는 아이를 낳는 일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히 ‘아이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리모 계약은 궁핍한 여성의 처지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기능을 상품화하여 사고 파는 것으로서 노예계약, 인신매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수의 배아를 만들고 폐기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다. 낙태

낙태는 수천년 전부터 있어온 가장 원시적이고 잔인한 인간 생명 침해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 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0항)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였습니다.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도 증거가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1항, 2272항).

현재 낙태는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 형태의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자기 몸 안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 낙태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 포장을 한다 해도 낙태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방법도 없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생명권은 권리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고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권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소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는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 착상전 진단과 산전진단

인공수정기법을 이용하여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다음 유전자 검사를 하여 유전병의 유무, 성별을 진단하는 착상전 진단은 주로 장애가 있거나 원치 않는 성별을 가진 배아를 가려내어 폐기하는데 쓰여 집니다.

임신된 상태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건강과 성별을 진단하는 산전진단술도 원치 않는 태아를 낙태시키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배아와 태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착상전 진단이나 산전진단은 배아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사용될 때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출생전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마. 안락사/조력자살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과거에는 사망할 수 밖에 없었던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죽게 하거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살인행위입니다.

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이 모든 행위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천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의에 반합니다.

8. 배려(Compassion)란 무엇인가

배려(Compassion)는 말의 뜻 그대로 풀이하면 “고통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덜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곁에 있으며 같이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배려입니다.

병들어 괴로워 하는 아이 옆에 있는 어머니는 누구나 내가 내 아이의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형제나 친구들과는 슬픔을 같이 할 것입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배려입니다.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 사람에게도 우리는 배려의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일상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모두에게 배려의 감정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 앞에서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9. 참된 배려와 거짓 배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배려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배려를 가장하여 사악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정의감에 따르면 그것이 죄이고 고발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모른체 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배려입니다. 참된 배려는 그가 절도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극작가 네스트로이(Nestroy)의 작품에 나오는 장면에서 부자가 굶주린 거지를 보고 그의 하인에게 말합니다. “저 거지를 쫓아버려라, 그의 비참함이 나의 마음을 찢는구나”(Alice von Hildebrand, ‘Compassion, pity, mercy’, Catholic News Agency 2012.8.27). 거짓 배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낙태 찬성론자들이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배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혼외 임신을 하였거나 너무 가난하여 아이를 키울 수 없다거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임신부를 보면 그가 낙태를 하여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임신부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아가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부모에게도 고통을 줄 것이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이와 그 부모에게 더 나은 일이고 그

와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도와주는 것이 모두에 대한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최악이지 배려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배려는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낙태로 유인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와 관련된 거짓 배려에 관하여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르멘이라는 이름을 가진 9살 짜리 브라질 소녀가 의붓 아버지에게 강간 당하여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2009년 5월에 이 아이들은 낙태되었습니다.

해당교구의 대주교는 소녀의 어머니와 낙태에 관여한 의사들이 파문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디어는 고뇌에 찬 결정을 한 의사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대주교의 결정을 비난하였고 브라질 대통령도 너무 보수적인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교회 내부에서조차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의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임신한 소녀의 처지를 동정하여, 또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여 낙태를 하였다고 하여 의사들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감당한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과연 참된 배려일까요.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는 행위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최악이고 그에 관여한 의사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최악을 행한 의사를 변호하는 것은 거짓 배려이고 거짓 배려가 성행하면 자연법적인 선과 윤리가 타협의 산물인 것처럼 비쳐지는 폐해를 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주교가 파문을 선언한 것이 오히려 참된 배려라고 할 것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많은 무고한 어린 생명을 살리고 생명존중 의식을 고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파문선언은 낙태에 참여한 소녀의 어머니와 의사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일깨워 주고 하느님과 화해할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면에서도 참된 배려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페루에서 있었는데 5살 여아가 남자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이 경우 출산을 도와준 일야말로 어머니와 아이를 동시에 살리는 참된 배려라고 하겠습니까.

거짓 배려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우는 안락사의 경우입니다. 회복할 가망이 없는 말기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환자를 위하여 그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안락사를 시키거나 극약 처방을 하여 스스로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의 오레곤 주와 워싱턴 주에서는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이 합법화 되어 있고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조력자살 제도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은 항상 환자에 대한 배려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말기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거짓배려입니다. 환자를 죽게 하는 행위는 그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그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수정시부터 자연사에 이를 때까지 존중되어야 합니다. 말기환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육체적, 정서적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영혼을 돌보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금년 3월에 미국에서는 스넬링 부부가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남편 찰스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부인 아드리엔을 죽이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연간 1,000건 내지 1500건의 살인-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에 의한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넬리의 가족은 이 사건 직후 그들의 아버지의 행동은 깊은 헌신과 심오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미화하는 것은 유사한 사건들을 유발하여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시킬 것입니다. 거짓배려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을 생각한다면 배려라는 평가는 신중하게 하고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정의와 배려가 만나는 곳

정의와 배려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참된 성찰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배려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정의와 배려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정의에 기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참된 배려가 무엇인지를 항상 성찰하고 실천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토 론 자

- 이창우 교수, 가톨릭대
- 남기호 교수, 연세대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Themes of the Forum (Proposal)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포럼 주제 선정의 기본 방향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이하 BWL Forum)의 주제 선정 형식은 중장기(10년)과 단기(1년) 형식을 통합한 '장·단기 통합형'으로 한다.
- 이 방식은 10년 주기와 1년 주기 형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10년 주기 형식은 향후 10년간의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정해진 주제에 따라 포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 및 감사 초청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 반면, 1년 주기 형식은 그 시기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할 수 있기에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민감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 BWL Forum은 위의 두 가지 형식의 장점을 살려, 기본적으로는 10년 주기 형식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 하되, 강연 하나는 '열린 주제'(open theme)로 남겨두어 그 해의 이슈에 알맞은 주제로 선정한다.

2. 포럼 주제 선정 방식

- BWL Forum의 주제 선정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0년 주기 포럼은 9년(3년+3년+3년)+1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9년 동안은 선정된 주제에 따라 포럼을 진행하고, 마지막 해에는 9년 동안 개최되었던 포럼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 주기 포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포럼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대주제 선정 →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 주제(어) 선정 → 발표 주제 선정

1) 대주제 선정

- 'BWL Forum 연구위원회'에서 포럼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10년을 주기로 포럼의 대주제를 선정한다.
- 이 대주제는 향후 10년 동안 포럼을 이끄는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1) 포럼방향 설정

- 9년을 세 부분(3년+3년+3년)으로 구별하여 각 부분의 포럼방향을 정한다.
- 포럼방향은 대주제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3년), 현실 상황(3년), 미래를 향한 노력(3년)을 기본틀로 삼는다. 예를 들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첫 3년은 공동체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들을 다루고, 두 번째 3년은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마지막 3년은 공동체의 미래적 모습을 다루는 형식으로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이다.

Themes of the Forum (Proposal)

1. Basic Direction in the Selection of the Theme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BWL Forum) takes a unified approach in the selection of the forum theme by combining the long- and short- term themes.
- This approach aims to emphasize the merits of both the 1-year and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llows us to prepare for the forum every year with a pre-set theme, thus providing stability in selecting forum themes and inviting speakers accordingly.
- The 1-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enables us to select a theme that is sensitive to pending social issues and the needs of the given period. Through this selection process, BWL Forum will be able to reflect upon society's most prevalent demands.
- The BWL Forum will follow a theme selected under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nd one of the lectures will be set aside for "an open topic" to reflect upon the pending issue of the given year.

2. Forum Theme Selection System

- The BWL Forum takes the following approaches in selecting its themes.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the 9-year cycle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and the 1-year cycle.
- For the first nine years, the forum will proceed with the selected themes. In the tenth year, the forum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the previous themes covered in the last nine years and preparing for the next 10-year period.
- The theme of the forum is selected as follows: Select a general theme → Set the direction and guidelines for the forum / Set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Select a theme (key words) → Select a presentation topic.

1) Selection of a General Theme

- The BWL Forum Research Committee selects a general theme under the 10-year cycle selection system.
- The selected general theme serves as the keyword that leads and guides the forum for the next 10 years.

2)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1)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first nine years will be divided into three segments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Each segment will be assigned a direction.
- The direction of the forum will be set within the framework of principal topics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three years), specific issues (for three years), and efforts for the future (for three years).
For example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2) 주제 범주 설정

-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의 방향과는 별도로, 대주제에 속하는 하위 범주를 3가지 선정한다. 예를 들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는 가능한 하위 범주가 될 수 있다.
- 주제 범주를 세 가지로 정하는 이유는 원칙, 현실, 미래의 방향이 각각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포럼방향과 주제 범주의 연결

- 포럼방향의 기본틀인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에는 각각 세 가지 주제 범주가 배치된다.
- 예를 들어 포럼방향을 '원칙', '현실', '미래'로 설정하였고, 주제 범주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로 선정하였다고 할 때, 포럼방향을 '원칙'으로 설정한 첫 해에는 주제 범주의 '가정 공동체'를, 둘째 해에는 '사회 공동체'를, 셋째 해에는 '자연 공동체'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포럼 방향을 '현실'로 설정한 3년과 '미래'로 설정한 3년도 '가정 공동체'(첫 해), '사회 공동체'(둘째 해), '자연 공동체'(셋째 해)로 배치한다.
- 이 두 가지(세 가지 포럼 방향, 세 가지 주제 범주)는 매년 포럼의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3) 주제(어) 선정

- 포럼의 방향과 주제 범주에 맞춰 주제(어)를 선정한다.

4) 발표 주제 선정

- 포럼 발표자가 포럼의 대주제, 포럼방향, 주제 범주 및 당해 연도 주제(어)에 맞는 발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열린 주제

- 열린 주제는 'BWL Forum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포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포럼 준비단계에서 참가자들(학생, 교수,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3.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 주제 (2011~2020년) (안)

- ◆ 대주제: 인간과 공동체
- ◆ 주제 범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

| Themes of the Forum (Proposal)

- o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the fir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dealing with the principal topics related to "community."
- o The nex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the discussions of specific issues prevalent in various communities.
- o The la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efforts for the future of the communities.

(2) Setting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In addition to the basic outline sketched above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three categories will be established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example,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such categories as "family," "social communities," or "natural communities" can be selected as possible theme categories.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three categories so that they match the basic directions of the forum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3) How to Connect the Direction of the Forum to the Scope of Theme Category

- The forum will take three different directions during the 3-year span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For instance,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principal topics" for the first 3-year spa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family," "social community," or "natural community," then the first-year forum will deal with "family," the second-year forum, "social communities," and the third- year forum, "natural communities."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specific issues" or "the future" for the proceeding 3-year spans, the same sequence of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communi-ties, and natural communities- will be covered.
- These two elements (three forum directions/ three theme categories) become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theme of every forum.

3) Selection of Topics

- Topics ar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forum directio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4) Selection of the Presentation Topic

- The forum speakers should be given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general theme, the direction of the forum,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and the keywords of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so that they have ample time to prepare an appropriate presentation topic.

5) Open Topics

- The members of the 'BWL Forum Organizing Committee,' decide on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while planning the forum. A variety of methods are used to select the year's open topic; one of the international pending issues can be selected by the committee, or a different topic can be chosen through a vote by the participants (students, professors, and staff members) of the forum.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제1~9차 BWL Forum

차수	포럼방향	주제범주	주제(어)	관련 주제어	열린 주제
제1차	공동체의 형성(원칙)	가정 공동체(I)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만남에서 공동체까지	포럼 취지, 인본주의/만남, 대화, 관계, 공동체	포럼이 개최되는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선정
제2차		사회 공동체(II)	배려와 정의	배려, 정의, 형평, 진실성	
제3차		자연 공동체(III)	생명: 존재의 시작	생명, 창조	
제4차	공동체의 발전(현재)	가정 공동체(II)	결혼과 출산	사랑(인격적 일치), 결혼, 출산, 불신, 이혼	
제5차		사회 공동체(II)	참여와 나눔	참여, 나눔, 공동선, 지구촌, 열린 공동체, 기아, 양극화	
제6차		자연 공동체(II)	존재와 성장	기후, 물, 자원, 고갈, 오염, 재해, 변화	
제7차	공동체와 책임(미래)	가정 공동체(III)	신뢰와 용서	용서, 화해, 존중, 신뢰, 인격, 헌신	
제8차		사회 공동체(III)	자유와 책임	자유이지, 의무, (공동)책임, 책무	
제9차		자연 공동체(III)	보존과 미래	보존, 평화, 책임 있는 공동체	

-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갖는 BWL Forum의 첫 번째 10년의 포럼방향은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공동체와 책임'이다.
- '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체의 시작 혹은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정(제1차 포럼), 사회(제2차 포럼), 자연(제3차 포럼)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며,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포럼이다.
- '공동체의 발전'은 제4차~제6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현실 상황과 문제점, 현실 속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 '공동체와 책임'은 제7차~제9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 포럼에서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노력과 책임 등을 제시될 것이다.
- 관련 주제어는 주제(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주제들로서, 주제(어)가 제시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하였다.

Themes of the Forum (Proposal)

3. The Themes of the First 10-year span BWL Forum (2011~2020) (Proposal)

- ◆ General Theme : Human Being and Community
- ◆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and Natural Communities

1) The 1st~9th BWL Forum

Year	Direction of Forum	Theme category	Topics	Related Keywords	Open Topics
1	Formation of Community (Principles)	Family(I)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Purpose of the forum, humanism, meeting someone, dialogue, relationship and community	One of the pending international issues raised during the year of the forum
2		Social Communities(I)	Compassion and Justice	being considerate toward others, justice, fairness and truthfulness	
3		Natural Communities(I)	life: beginning of beings	life, creation	
4	Development of Community (Present)	Family(II)	Marriage and procreation	love (humanistic unity), marriage, procreation, distrust, and divorce	
5		Social Communities(II)	Participation and sharing	participation, sharing, communalgood, global community, open community, starvation and polarization	
6		Natural Communities(II)	existence and growth	climate, water, natural resources, exhaustion, pollution, natural disasters, and changes	
7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uture)	Family(III)	trust and forgiveness	forgiveness, reconciliation, respect, trust, personality, devotion	
8		Social Communities(III)	freedom and responsibility	free will, du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9		Natural Communities(III)	Conservation and future	Conservation, peace, responsible community	

- The BWL Forum will take place under the general theme of "Human being and Community" and the directions of the forum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ten years.
- The direc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forums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which will deal with the beginning or forming of a community. We will discuss how communities such as family (first year), social communities (second year), and natural communities (third year) are formed and what is needed to form a community.
- The direction for the fourth, fifth, and sixth forums will be "Development of Community." We will look into examples of today's family, society, and nature, and discuss the pending issues and problems they face. We will also examine how these communities develop in reality.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제1차 BWL Forum

- 제1차 BWL Forum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막 구성은 1차 포럼 이후 10차 포럼 때도 활용한다.

① 제1막

- 주제 : 가톨릭 인본주의
- 이덕효 신부, Jenkins 총장의 주제 강연
- 발표주제 1 : Bernard Lee의 인본주의 정신(이덕효 신부)
- 발표주제 2 : 가톨릭 휴머니즘과 가톨릭 대학(Jenkins 총장)

② 제2막

- 주제 :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 제1차 포럼의 주제인 '만남에서 공동체까지'에 대한 주제 강연

2) 제10차 BWL Forum

- 10차 포럼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일제 포럼의 경우, 오전 시간은 1막, 오후 시간은 2막이 될 수 있다.
- 제1막은 9차까지의 '제1차 10년 주기 포럼'을 총정리 하는 시간이다.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의 대주제를 개관해 주는 시간이다.

(1) 제1막

- 주제 : 지구 공동체
- 관련 주제어 : 화해와 평화
- 이 부분의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주제는 '지구 공동체'이다. 주제에서 암시하는 대로, 10차 포럼에서는 9년간 살펴보았던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화해와 평화'는 하나의 가능한 주제어이다. 화해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이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 계층에서 서로 다른 신념, 가치, 이상, 종교, 이데올로기 등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등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화해는 이전 포럼에서 살펴본 주제(어)들과도 연관된다. 진실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에 '참여' 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향해 '자유'롭지만 '책임'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것을 '보존'하고 가진 것을 '나눔' 때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2막

-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서막 역할을 한다.
- 이 시간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을 홍보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주제(어)는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이 확정된 후 정하도록 한다.

Themes of the Forum (Proposal)

(1) The 1st BWL Forum

- The first BWL Forum will consist of two sessions. The tenth forum will also follow the two-session system.

① The First Session

- Theme : Catholic Humanism

- Speakers : Rev. Paul D. Lee, and Archbishop Paul S. Coakley

- Topic 1 : Bernard Lee's Humanism Spirit (Rev. Paul D. Lee)

- Topic 2 : Catholic Humanism and Catholic Universities (Archbishop Paul S. Coakley)

② The 2nd Session

- Theme :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a community

- Keynote speech on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the theme of the 1st forum.

2) The Tenth BWL Forum

- The tenth forum will also consist of two sessions. If organized as a whole-day program, the first session will be held in the morning and the second session in the afternoon.

- The first session of the tenth forum will be devoted to summarizing the previous nine forum themes that were covered under the first 10-year cycle forum system. The second session will be devoted to giv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themes covered in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system.

(1) The First Session

- General theme: The Global Community

- Related Keywords: Reconciliation and Peace

- The general theme of the 10th BWL Forum will be "Global Community." As implied in the theme, the 10th forum aims to provide us with an integrative view of all the themes – "family," "society" and "nature" - discussed in the previous 9 years.

- "Reconciliation and Peace" is one possible keyword for the forum. Reconciliation is a practical path to peace. Only through genuine efforts of reconciliation amongst people of different social statuses, different beliefs, different values, different ideals, different religions, and different ideologies,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and amongst nations can we achieve real peace in this world.

- Furthermore, "reconciliation" is related to the themes of the previous forums. In order to achieve genuine reconciliation, we must first "meet" and "participate in" dialogues. We must approach others with "thoughtfulness," "respect," and "trust." We must make efforts to "forgive" one another. We also have to make efforts to create a better "future" together in a free, but responsible, atmosphere by preserving what we are and sharing what we have.

(2) The Second Session

- The second session will serve as a prelude to the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session will also be devoted to articulating the themes of the upcoming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topics will be chosen when the schedule for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is decided upon.

제2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2nd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발행인 「제2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발행일 2012년 10월 4일

운영위원장 박건영 교수 (국제학부)

공동위원장 김경자 교수 (소비자주거학전공)

운영위원 신승환 교수 (철학전공)

이창봉 교수 (영어영미문화전공)

노상욱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구본만 신부 (인간학교육원)

윤석원 교수 (물리학전공)

김혜경 교수 (식품영양학전공)

이범석 교수 (일어일본문화전공)

서정민 팀장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진행 가톨릭대학교 국제교류처

디자인 양승주

제작 한기획

문의 가톨릭대학교 국제교류처
Tel. +82_2_2164_4955